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기집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목 차



대 상	01. 실버도슨트가 맺어준 두 할매의 6년 우정 마포시니어클럽 이향순	006
최우수상	01. 하얀전쟁 팔공노인복지관 정홍자	014
	02. 일한다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제주시니어클럽 안서조	018
우수상	01. 행복을 담은 필름 종로시니어클럽 이삼용	024
	02. 노인이 노인을 돕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박문희	028
	03. 나는 老人이 아니라, 勞人이다! 부산남구시니어클럽 이경희	032
	04. 희망에서 절망으로, 다시 희망으로! 전주시니어클럽 김종현	036
	05. 새로운 보람과 즐거움을 찾다 세종시니어클럽 신극채	040
장려상	01. 무등산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 광주동구시니어클럽 박종화	048
	02. 언제나 맑고 밝게 살아요 전주시니어클럽 한규생	052
	03. 선물 같은 나의 일자리 전주효자시니어클럽 홍정의	056
	04.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최민선	062
	05. '일'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 김포시니어클럽 김흥기	066



06. 다시 자야 되나? 광양시니어클럽 박준재	072
07. 감사한 노년, 당당한 나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김소순	076
08. 불빛 하나 가슴에 찾아와 인천서구가좌노인문화센터 이인기	078
09. 아무것도 없어도 줄 것이 있다 오산시니어클럽 지동만	082
10. 단 하나의 은행잎도 나무 전체의 말 없는 이해 없이는 노랗게 물들지 못하듯 영광시니어클럽 임숙희	086
11. 노인일자리는 희망입니다 안동시니어클럽 김태선	090
12. 일하며 느끼는 나의 행복 시흥시니어클럽 신영순	096
13. 징검다리 사랑 대구동구시니어클럽 이지현	100
14. 새로운 삶의 장(章): 동화 할머니의 여정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성남시실버인력뱅크 문길엽	104
15. 시니어들도 대한민국의 관광외교를 하고 있어요 서울강서시니어클럽 고혜자	106
16. 살기 좋은 대한민국 부산사하시니어클럽 김수홍	114
17. 무제 인천남동시니어클럽 심옥자	118
18. 사랑한다는 인사 속에 담긴 우리의 연결고리 부산남구노인복지관 남덕희	120
19. 행복한 삶을 찾아 떠나는 노년의 여정 대구중구시니어클럽 이종운	124
20. 꿈의 직장이 현실로 “경로당 헬스케어매니저” 강화군노인복지관 정선애	130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기집



공모전 수상작 | **대상**

01



실버도슨트가 맺어준 두 할매의 6년 우정
마포시니어클럽 | 이향순

006

실버도슨트가 맺어준 두 할매의 6년 우정



마포시니어클럽 | 이향순

공익활동-실버도슨트



◆ 언니 언니 같이 가요!!

숨넘어갈 듯 불려대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동료 도슨트 양양순(가명) 할매다. “아, 가는 귀도 안 먹은 양반이 그렇게 불려도 안 들려요? 저 교문 밖에서부터 터져라 불렀고만...” 도시의 소음 탓이기도 했지만, 상체를 굽히고 자라목 자세로 언덕을 오르느라고 듣지 못했다.

◆ 배꽃 계집애 큰 배움집

어느 국어학자가 순수 우리말로 이렇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연사박물관>에서, 양 할매와 나는 도슨트로 6년째 근무하고 있다.

도슨트!

글로벌 시대니까 아시는 분은 척! 들어도 아시겠지만, <해설사>라는 뜻의 서양말이다. 내가 이 명문 여자대학교 부속 박물관의 해설사라고 하니까, 뭔가 전문적인 수준의 경력을 지녔던 할매쯤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 같은 애기다. 실버도슨트는 일하고 싶다는 노인들에게 국가가 배정해 준 노인일자리 가운데 하나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의 <마포시니어클럽>에는, 19개 분야에서 1,400여 명의 노인들이 자기 적성과 취향에 맞는 일터에서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10번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나다.

이대 자연사박물관은 이화여자대학교가 1969년에 국내 최초로 설립, 개관한 특수 박물관이다. 양

할매도 나와 함께 이 박물관에서 한달한시에 근무하기 시작한, 올해 77세의 할매지만 60대 중반으로 보일 만큼 건강하고 성격 또한 활달하다. 양양순이라는 이름 석 자처럼, 매사에 자신감 넘치는 의기양양함과, 또 한편으로는 양순함도 동시에 지닌 할매였다.

이대 자연사박물관은 명칭 그대로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은 물론, 암석, 화석, 운석 등 광물까지 보존·전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멸종 위기의 생물과 천연기념물, 그리고 희귀생물 등의 표본사진, 영상까지도 전시하고 있는 자연사 전문 박물관이다.

2개 층에 걸쳐서, 5만 8백여 종의 생물이 전시된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벽 전면에 설치돼 있는 대형 디오라마(diorama) 전시물에 우선 놀라고 압도당하는 기분이 든다. 원근 묘사법에 맞춰서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진 바다 풍경은, 화려한 특수조명이 한껏 더 웅장함을 더해준다. 관람객 자신이 바닷가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줄 정도다. 바닷가, 습지, 절벽 등에 사는 52종의 실물 크기 박제가 암벽 위나 바닷물 속 그리고 대형 열대림 나뭇가지에 살아있던 모습 그대로 박제되어 전시돼 있는데, 눈만 껌벅거리려준다면 살아있는 생물로 착각할 정도이다. 잘 만들어진 조화를 생화와 구분 못 하듯 말이다.

여기 이대 자연사박물관에 출근하던 첫날, 우리 도슨트 12명은 박물관 도슨트 〈쉽 방〉에서 상견례를 겸한 커피타임을 가졌다. 연장자이기도 한 내가 분위기를 띄운다는 생각으로, “손주들 보는 일에선 다들 해방되셨나 보죠?”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아니, 요즘에도 손주 보는 할머니들이 있납유?”라고 양 할매가 대답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손자, 손녀가 있으면 봐줘야지 어찌겠수?” 혼잣말처럼 낮은 소리로 말했더니, 다시 양 할매 왈, “아이구, 현모양처, 요조숙녀가 다 죽었나 했더니 여기 오니까 만나보겠네요. 외손자 보느니 파발을 매라는 속담은 이조시대 때 말이결랑요?” 하더니, 다른 도슨트들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표어나 캠페인도 세월 따라 변합디다. 아... 우리 처녀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느니,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면서, 계몽 표어를 내걸더니, 나중에는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고, 협박 공갈에 가까운 표어까지 내걸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이 태어날 때는, 다 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라면서, 칠팔 남매 낳아서 키웠거든요. 오늘날 애 안 낳는다고, 결혼하면 아파트를 준다느니, 애 한 명 낳으면 1억 준다고 하는 모양인데,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아, 나를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앉혀주면, 하루아침에 출생률을 500% 올릴 자신있다고니까요.” 양 할매가 장황설을 늘어놓자, 제일 젊어 보이는 중년 할매가 끼어든다. “아니, 무슨 수로 출생률을 그렇게 높인단 말씀인가?”라고 말하니까 “그야 간단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콘돔 만드는 회사와 피임약 만드는 제약회사들을 문 닫게 하면 되결랑요.”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양 할매의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우리 12명 도슨트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웃음들을 웃었다.

각자가 살아온 세월에 따라, 나처럼 우울함이 성격화된 듯한 미소를 짓는 할매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 한가락 했던 사람임을 밝히고 싶어 하는 할배의 너털웃음까지, 한 시간여에 걸친 우리 12명의 커피 상견례는, 내일부터 근무할 조 편성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양 할매와 내가 같은 조가 됐다. '저 할매 조심해야지.'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그것이 나의 기우임을 알기까지는, 두세 달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양 할매 자신의 이런저런 사생활까지 듣고 난 뒤부터, 나도 마음의 문이 열렸고 <씨암탉 할매(양 할매가 나에게 붙여준 별명)>라는 별호까지 받으며 우리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우리 박물관에 초·중·고 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오면 해설은 양 할매가 도맡아 하는 편이고, 나는 학생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일행에서 뒤처지는 아이들을 챙기고 안내하는 정도의 보조 노릇을 하는 게 전부였다. 양 할매는 아는 상식과 언어구사력 그리고 순발력에서, 나를 기죽게 하고도 남는 실력을 갖춘 듯 보였다. 누가 옆에서 들어보면, 대학교 생물학과 정도는 너끈히 졸업한 신여성 같았다.

이런 양 할매가, 도슨트로 근무한 지 2년이 되던 육이오 날로 기억된다.

양 할매와 점심을 같이 먹는데, 느닷없이 자신은 6.25 한국전쟁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6.25 후유증으로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야간여학교를 그나마 중퇴해야 했으며, 구로공단과 동대문평화시장 제품 가게의 재봉사로 전전하다가, 여군 부사관으로 자원입대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날 양 할매는 나를 친언니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살아온 얘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자신의 힘들고 어두웠던 과거를 밝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양 할매의 저돌적인 성격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5년여의 여군 생활에서 습득된 후천적 성품이고, 반면에 여성스러운 성격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형성된 성품임을 알게 됐다. 양 할매의 진솔하고도 속 깊은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속마음을 열어 놔다. 나는 딸만 셋을 키워 시집을 보내고, 대문 열어놓고 살 정도로 지닌 재산도 없다는 얘기부터, 영감도 종로구에 있는 서울교육박물관에서 우리처럼 실버도슨트로 6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도 털어놨다. 우리 둘의 잡초 같은 풀뿌리 인생 고백이라고나 할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이대 자연사박물관 귀신이 되자는 등의 농담도 주고받았다. 나와 두 살 차이인 양 할매는 전화할 때마다 언니, 언니 하면서 붙임성 있게 말했고, 근무하는 날이면 해설은 두 살 젊은 자기가 할 테니, 언니는 편하게 쉬라고 말하기도 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렇다. 이화여대 생물학과 신입생들이 리포트 자료를 만든다고 단체 관람을 왔는데, 나는 속으로 저 대학생들에게도 우리가 해설해야 하는 건지, 고민 중이었지만 양 할매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해설봉까지 들고 번개처럼 나섰다.

“우리 박물관 주인 같은 따님들이 오셨네. 반가워요! 여기가 생물학과 학생들에겐 친정 같은 곳인데 왜 그렇게 오기가 힘들었나? 여러분들 보니까 옛 고사가 생각나네요. 옛날엔 딸을 먼 타지로 시집을 보내면 하룻밤에 오고 갈 수 없었고, 첫아이 낳기 전까지는 친정도 한 번 가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과 친정어머니가 중간지점에서 만나서, 몇 시간씩 상봉하며 회포를 풀었다는데, 그런 만남을 <반보기만남>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니 옛 고사가 생각나네요.” 양 할매는 전시 해설과는 거리가 먼 구수한 곁가지 얘기로도, 관람객들을 사로잡는 재주까지 있었다. 가끔 이화여대 학생들이 왔다 싶으면 빠뜨리지 않는 곁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늘도 역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클리프 리처드라는 60년대 영국 가수를 알랑가 모르겠네요~. ‘더 영윈스’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 시절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케 했는데요, 그 가수가 1969년도에 서울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공연할 장소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은 물론 올림픽 경기장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공연 장소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학문의 전당인 이화여자대학교 강당에서 공연했다니까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가수 최희준 씨가 ‘자가용 타고 친정 가세’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로서는 꿈같은 얘기였고, 어느 세월에 저런 시절이 오겠나 싶었죠. 동네 이장님 댁이 아니면 자전거 한 대 없던 시절인데 말입니다. 그렇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집집마다, 아니 가족 인원수대로 자가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양 할매는 실버도슨트가 아니고, 무슨 정부 부처의 홍보대사 같았다. 그래서 내가 까치발을 하고 주먹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우리가 약속한 수신호를 보낸다. 다음 전시물 코너로 넘어가라는 신호였다. 나의 신호를 보고서야 양 할매는 서둘러서 한 개 층의 해설을 끝낸 뒤 “이 코너 다음부터는 각자 자유 관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한발 물러서곤 했다.

사실 2개 층에 걸쳐서 전시된 전시물들을 다 설명하고 나면, 건강한 양 할매도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지럽기까지 하다고 말하곤 한다. 다른 할배 도슨트들도 2개 층의 모든 전시물을 해설해 주고 내려올 때 보면, 얼굴이 붉다 못해 노랑게 변하기 일쑤다. 그런데도 양 할매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나는 여기 박물관 언덕을 기어 올라올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도슨트 생활을 계속할 거야. 언니도 나랑 그렇게 합시다~ 꼭.”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런데 이런 양 할매가 지난주, 그러니까 2024년 6월 둘째 주 월요일에 결근했다. 6년 동안 지각 한번 하지 않았던 양 할매였는데... ‘소나기가 와도 뛰지 않고 벌에 쏘여도 놀라지 않을 여자’라고 나를 놀릴 만큼 느긋한 성격의 나였지만,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연락이 없으니 궁금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휴대전화마저 꺼져 있으니 집으로 찾아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서 양 할매의 아들이 사무실로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급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짧은 소식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근무를 못 하실 것 같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고 믿기지 않아서 양 할매에게 다시 전화했다. <지금은 고객님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해 주세요.>가 나왔다.

양 할매가 이대 자연사박물관에 나오지 않은 지 보름은 족히 지났을 무렵, <이대 자연사박물관 도슨트 여러분, 제가 지병을 얻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치료 잘 받아서 을사년 내년에는 꼭 출근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제 우리 나이에 건강 말고 그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내년에 봐요.>

양 할매가 내 이름을 따로 불러주지 않아서 조금은 서운했지만 나는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렸다. <양 쌤! 그렇게 건강하시더니... 하여튼 치료 잘 받고 내년이 을사년이라니까 “을싸 좋다!” 하고 만납시다. 나이만 언니인 이향순.>

기어서 올라올 힘만 있어도 이대 자연사박물관의 실버도슨트로 영원히 남고 싶었던 양 할매. 그녀가 오르내리던 언덕길에 한여름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는가. 후드득 굵은 빗방울이 떨어진다. “언니~ 언니~” 나를 부르던 양 할매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듯하다. 을사년 새해 아침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보고 싶다, 양순아!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기집



공모전 수상작 | 최우수상

02



하안전쟁
팔공노인복지관 | 정홍자

014



일한다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제주시니어클럽 | 안서조

018

하얀전쟁



팔공노인복지관 | 정홍자
공익활동-동행사업단(노노케어)



‘띠리링’. “야야. 노인일자리 신청하러 팔공복지관 가야 한다. 어제 말했잖아. 복지관 앞에서 만나자고 이자 부지말고...” 절친은 요점만 알려주고 띠로롱 끊어버린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팔공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동행사업단〉. 이 용어부터 나에게서는 너무 낯설었다. 나이 불문, 우리 또래의 인력을! 어언 50년이란 절친의 권유와 조언이 만만찮았다. 그때마다 서글픔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현실의 고리를 나는 잡으려 하지 않고 최대한 멀리 걸어놓은 채 생각 없이 지내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나?” 손사래 치며 거부했다. 그럴 때면 절친은 물러서지 않고 “참말로 야가? 똥굴똥굴 집에서 놀면 뭐하노! 마, 영양가 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함께 가는 기다. 알겠제? 내일 보자.” 강도 높은 권유였다. 변화 또 변화의 연속이었다. 선택과 생각은 오롯이 내 몫으로 남게 되었다.

지난날! 내가 일하던 분야에서 최고점을 찍어도 보았고 힘들었던 삶도 최선을 다해 영위해 보았다. 그때 주어진 분야를 천직으로 알고 생활전선에서 나의 본기질을 측정하며 환희의 쾌재도 느껴보았었다. 점차 나이가 늘어나고 보니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갈 것은 오직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에서 오는 환희뿐... 비켜 가지 못한 세월의 무게 앞에 꼼짝없이 내어준 이상과 작은 꿈들! 그리고 정해진 목표라는 결승점의 귀로에서 순간의 시간은 더디더라도 전체적인 순간은 너무 빨라 그 틈새에 나를 움아매 버렸다.

“야아, 지금 오고 있는 기가?” 절친의 노파심에서 오는 재촉의 목소리에는 평소 느껴보지 못한 자신감과 생동감이 충만한 것 같았다. 절친은 수년 차 일자리 고수다. 첫발을 들여놓는 나와 비교하면 한참 선배다.

여차저차 따라간 곳이 지금 '눈에 삼삼, 귀에 쟁쟁'한 내가 하는 노인일자리와의 연결고리 팔공노인복지관이다. 마음을 열고, 알고 보면 못 할 것이야 없지. 세월의 틈새에서 만난 '참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해볼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맞다.' 현실을 연결고리에 엮어 잃어버린 늘그막의 작은 꿈이라도 이끄는 곳까지 가는 길만 남았다.

행복이 별거던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용기에서 나중에 때깔 좋은 열매도 얻을 수 있는 희망과 그 희망을 즐겨 찾는 내 마음 발에 꺾꽂 묻어두자. 당신이 누구든 간에 몇 살이든 또 어떤 모습이든 넉넉한 마음으로 자연스러움을 여운으로 남겨 놓으려나.

생소하고 처음 겪었던 절차 뒤에서 무덤덤했던 마음과는 달리 선정의 순간이 기다려지는 발표날 오전! 침착했던 안정감은 넓은 신작로로 마실 나가 버리고 가슴 내밀며 으스대는 긴장감이라니! 거기다 초조한 마음까지~~~

지난날! 젊음을 믿고 전문직 자격증을 손에 움켜쥘 때도 지금과 똑같은 기분이었다. 아마도 그때의 불안과 지금의 초조한 마음 둘이 하얀전쟁을 하고 있다. 더더져 가는 순간 속에 내 이름 석 자 뒤에 묻어온 “일자리 선정되었습니다.”라고 전해주던 복지사님의 목소리가 어찌 그리 반갑던지. 늘그막의 환희였다. 작은 성취감과 더불어,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고 잘해오고 있다. 내 마음 발에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있는 한 삶의 틈새를 기꺼이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팔공노인복지관 가는 언덕길! 두 사람의 햇늪은이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찹찹대며 올라가고 있었다. ‘썩~~’ “야아, 방금 뻥 지나간 게 뭐꼬?” 앞서가던 절친이 돌아서며 물어왔다. “니 못 봤나? 세월이 지나갔다”, “무슨 세월이 그리 빠르노?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겁제?”, “비켜 가자, 알미운 세월! 앞세워 가지 말고 그냥 놔두고 니강내강은 세월아, 네월아! 듣성거리며 놀며 가자. 어서 가자. 바빠 가자. 늦어지면 경을 칠라. 당신 혼자만 맞은 세월 속의 회초리도 아니건만 너도나도 다 때가 오면 속절없이 그 길 따라가야 할 것일!” 여운이 남아있는 선정의 고마움을 안고, 배정된 어느 어르신 택을 찾아 어렵게 사전 방문 하던 날!

◆ 어찌하오리까? '내 짝꿍 하옥순!' 2인 1조 되어

‘땡땡’ 한참 걸려 열린 문 사이로 ‘빠꼼!’ 얼굴만 보이며 예우하기 버거운 표정을 지으며 “누꼬” 거칠게 묻는다. 앞으로 도와드리려는 이유를 장황스럽지 않게 조신 조신 말씀드리는 순간! 문을

그냥 확 열며 우리 두 사람의 기선 제압을 초장부터 할 태세였다. 내 발에는 하얀전쟁이 발발할 것 같았다. 날아오는 총알도 없고 나는 전투기도 없는데 마음속의 '하얀전쟁'은 무슨 이유로 발발되었나? '미움도 이쁨도 지할 탓에 있는 걸 마음에 잘 새기거라. 맛있는 양념같이 소중히 여겨 내거라!' 철모르는 딸내미 시집보내며 가슴 저미게 타이르던 친정어머니! 지금, 이 순간에 귀하게 잘 되새김질하고 있다오!

〈날 살려라 도망가는〉 진퇴양난은 허기진 상태. “며칠만 끼적거리고 말 거면 오지 마라.” 며칠 만에 그만둔 전 팀들 때문인지 화가 많은 상황이었다. 주인 잃은 똥강아지 쫓아내듯 ‘후여! 후여!’ 손사렛짓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여러 굴레의 갑질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아니던가? “어른요! 오고 안 오고는 지금은 정해진 일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하니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출근합니다. 대문 좀 따주십시오.” 목은 타는데 물 한 모금 얻어먹지 못하고 이 무슨 미련을 여기에 남겨 놓겠는가? ‘할매는 우리 두 사람을 등한시하면 고급 인력을 놓치는구먼요.’라는 생각과 함께 쫓기듯 내려오는 언덕길!

어느새 짝꿍은 복지관에 보고하는 모양이다. 아직은 포기하기에 이르다는 생각의 늘그막에서 오는 자괴감마저 내 마음을 휘저어 놓는다. ‘글타, 내가 누구인가. 변화시켜 보는 거다. 그리고 꺾어보자.’ “짝꿍아, 내 짝꿍 옥순아! 우리 한 번 견뎌 내 보자. 옛말 그대로 고쳐 쓰지 못하면 다듬어 쓰기라도 해보겠다고 또 그늘 짙고 물 좋은 정자 없다고 자네와 나만 합체하면 뿔인들 못하건노!”

다음 날! 어제만해도 우리끼리 두런두런 얘기를 주고 받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힘든 줄도 모른 채 이 언덕배기를 올라왔지만, 오늘의 출발점은 상큼한 횡보는 아니었다. 그래도 가야만 했다. ‘땡땡’ 굳게 닫힌 현관문은 한참 후에야 ‘찰그락’ 무거운 음을 내며 열렸다. “휴우~ 됐다.” 안도의 한숨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실내의 공기가 탁하고 고약했지만 견뎌낼 수밖에는 별도리가 없었다. 방입 아닌 방입으로 청결과는 답이 처져 있었다. 공기를 정화하려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추운데 문 열지 마라. 와? 내한테 냄새 나나?” 또 시작을 끝으로 갈 껌새를 보이려 하고 있었다. 또 내가 쓰고 있던 마스크가 오늘의 알맹이 없는 총알받이가 되고 말았다.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마스크 쓰고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베끼라.” 저실 점 침대가 놓인 안방!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점을 무기 삼아 날뛰는 놈은 보기조차 흥측스러운 바퀴벌레였다. 흰 선 그린 운동장인 양 건네받은 바통을 거머쥐고 ‘빠르르 빠르르’ 침대 밑으로 달리고 몸집이 큰 놈은 날아오르기도 하고 어둠침침한 실내가 그놈들에겐 천국이였다. 주방 쪽의 짝꿍은 또 어땡고. 켜켜이 묻은 묵은 때, 냄새나는 냉장고, 서랍 속의 바퀴벌레 알! 천문학적이다. 짝꿍은 구시렁구시렁 소탕 작전에 임하고 있다. 궁노루 한 마리가 예고 없이 주인 없는 집에 침투해 펠쩍펠쩍 날뛰며 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새다.

우리 두 사람이 말을 아끼며 행동 모드로 들어가니 금세 깔끔해졌다. 털고, 닦고, 잡아내고, 고놈의 바퀴벌레는 소탕이 불가할까?! ‘요이땅’ 하고 ‘바르르’ 내뱉는 고놈들을 파리채로 잡으려다. 맵소사, 겨우 능선 하나 넘었는데 또 어떤 불똥이 떨어질랑가 모르겠네. 딱딱한 어르신 예우보다 형님 모드로 돌렸더니 얼굴이 많이 편해진 듯하다. ‘형님’ 예우를 했더니 게슴츠레한 어른의 눈망울이 변하였다. “웁다구나, 지금부터 형님으로 불러도 되겠지요?” “그러렴.” 일단 물음으로 기선 제압을 했다. “올 형님, 젊은 시절은 참 예뻐지예?” 얼굴에 복사꽃이 피었다. “젊어서 안 예쁜 사람 있더나. 동생도 예쁘네. 뭐”

그 후 몇 날 며칠을 지내 온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팀들의 활동이 당신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형님! 고인력 우리 두 사람을 만났잖우!! 인복은 있는갑소?” “아이다. 나는 그런 거 없다.” 은연중에 순화돼 가는 모드로 가고 있었다. 어차피 많은 기대는 못 하고 내가 살아온 연륜을 덧셈하고, 이진 아니다 싶을 땐 뺄셈하고, 모자라면 연민의 나눗셈으로 넉넉하게 채워 볼 것이다. 또 우리는 그것을 정도의 길로 잘 연마해서 ‘형님’ 가슴에 두고 갈 것이다(+ - ÷).

근데 형님과의 인연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부득불! 이별의 아쉬움을 끌어안았다. 형님! 지금은 자제님 댁에서 잘 지내고 계실 테지요! 너그들을 보면 살맛이 난다던 그 말씀! 지금도 ‘유효’하시나요? 이런들! 저런들! 오다가다 좋은 만남도, 같은 공간 속의 어긋난 만남도, 초여름의 뜻향기처럼 팔공의 참 좋은 우리님들! 가슴에 뿌려 보심은 어떨는지요? 감히 조언 아닌 사심을 소중히 건네 봅니다.

올해 4월 달! 즐겁고 흥겨웠던 그 순간들을 마음 밭에 ‘꾸우욱’ 심어놓았다. 17일 하루의 일정이지만 팔공노인복지관의 관계자님들이 보듬어준 선심과 예우, 배려가 있어 뼈까뻣한 대형 고급 관광차로 승차감! 아늑함! 안정감에서 오는 소리 없는 속도감! 어느 하나 불편 없이 문화 체험을 다녀왔다. 또 당일! 젊은 복지사님들이 일로 삼았던 어른들의 ‘안위’ 챙겨주느라 고생 많았어요. ‘엄지척’ 보이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소중하게 전합니다.

“팔공노인복지관 영원하시길!”

활동인 정홍자 올림

일한다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제주시니어클럽 | 안서조

사회서비스형-취약계층공익지원서비스



퇴직.

2013년 2월, 33년 봉직했던 경찰관을 퇴직했다.

퇴직할 때 그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 했으니 1년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라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그냥 놀았다. 친구와 낚시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다가 일어나면 술 마시고 놀고 계획도 미래도 없이 살았다.

어느 날 갑자기 2015년 9월 그날도 저녁에 친구와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소일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며느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한다. 부랴부랴 병원에 갔더니 위중한 상태라 빨리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며 응급수술을 하는 중이다. 다음 날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뇌사 상태라고 한다. 그렇게 보름여간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열 살, 여덟 살 어린 손주들만 남기고...

아들이 재혼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손주들이 사춘기에 예민한 시기라 여의찮았다. 나는 직장에 바쁜 아들 대신, 아내는 며느리 대신, 아빠 엄마가 되어 어린 손주들을 돌보다 보니 세월은 후딱 지나갔다. 그 와중에 2019년 아내가 신장암에 걸렸다. 코로나 시기에 서울 병원에 다니는 것도 힘들고,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손주들 돌보는 일에 소홀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가고 손주들도 제 앞가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과 상의 끝에 분가해서 노부부가 단출하게 살게 되었다. 아내도 건강관리가 잘되어 가까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일상을 회복하고 나니 손주들과 바쁘게 살던 습관이 몸에 배어 남는 시간이 무료해졌다.

◆ 시니어클럽 교육 수강

2022년 10월에 제주시니어클럽에서 환경 강사 교육이 있다는 공고를 보고 수강 신청했다. 11월에 수료하고, 12월에 노인일자리 모집할 때 신청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제주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 지원 신청을 하러 갔는데 환경 강사는 수요처 관계로 사업이 없어지고, 대신 '디지털 배움터 강사' 사업단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에 '디지털 강사'로 지원했다.

◆ 2023년 노인일자리 취업

선발 조건이 까다로웠다. 관련 자격증 유무, 경력 등 디지털 강사로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이라서 지원했는데 다행히 합격했다. 1년 동안 활동하고,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에 다시 취업했다.

◆ 2024년 노인일자리 재취업

2024년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동안 삼성에듀에서 디지털 강의를 받고, KTCS에서 디지털 배움터 강사 초, 중, 고급 과정 교육을 이수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강의에 앞서 시니어 상대 스마트폰 교육 강의 계획과 파워포인트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직접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해서 강의에 활용하기 위해 신형 노트북도 마련했다. 강의 준비가 끝나고, 3월부터 제주시니어클럽 어우렁 사업단에서 일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스마트폰 강의를 시작하였다. 스마트폰 강의를 하는 곳은 많지만, 노인을 위해서 노인이 강사로 있는 데는 없다. 강사가 시니어라서 시니어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강의가 재미있다고 한다. 수강생들도 젊은 강사에게 하기 쑥스러운 질문도 스스럼없이 한다. 노인들은 젊은 강사에게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나이가 비슷한 '노인 디지털 강사'에게 배우는 것이 좋은 점이 많다고 본다.

◆ 시니어 디지털 강사

시니어 수강생들이 첫 시간에 하는 말이 있다. "난 이거 하나도 모르쿠다!(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어)"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심시키고 강의를 시작한다. 강의 횟수가 더해가면서 수강생 중 한 분은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 강사님 덕분에 요금할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통신사에 말해서 저렴한 요금으로 할인받았다고 하며 이 교육을 안 받았으면 비싼 돈을 계속 냈을 것이라며 좋아한다.

버스 타기 시간표 보는 방법으로 정류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졌다며 계속 교육을 받겠다고도 한다. 또 다른 분은 스마트폰 자판 사용법을 잘 몰랐는데 교육을 받고 문자를 보낼 때 편리해졌다고 자랑한다.

시니어들이 어려워하는 '키오스크' 이용 방법도 스마트폰에 연습용 앱을 설치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만져서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의했다. 수강생 중 한 분이 집에서 앱으로 연습하고 친구와 커피숍에 가서 주문해 봤더니 별거 아니라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자랑한다.

우리는 좋은 싫든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과 함께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노년층은 디지털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느낀다. 심지어 '디지털 문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를 조작할 줄 몰라서 점심도 굶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도 단순한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제주시니어 클럽'에서 시행한 '디지털 강사' 사업같이 풍부한 경험과 디지털 지식이 있는 노인 전문 인력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 나에게 생긴 일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출근 시간을 앞두고 샤워하고 복장도 신경 쓴다. 강사로 다른 사람 앞에 서게 되는데 지저분한 용모로 불쾌감을 주면 강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에 거울 한 번 더 보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위에서 젊어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건강관리도 더 신경 쓴다. 내가 아파서 강의를 못했을 때 강의받으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하는 수강생을 생각하면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노인일자리에 취업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매월 수당을 받아서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친구와 술 한잔을 할 때 부담 없이 계산한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보니 특히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로 원천 징수 하기 때문에 매월 이체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훨씬 경제적이다. 행복한 삶은 일상과 소소한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손자녀에게 존경받고 주변 젊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

전에 가입해 놓은 유튜브(www.youtube.com/@antv123)를 다시 시작했다.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tjwh55>)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올린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책 읽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니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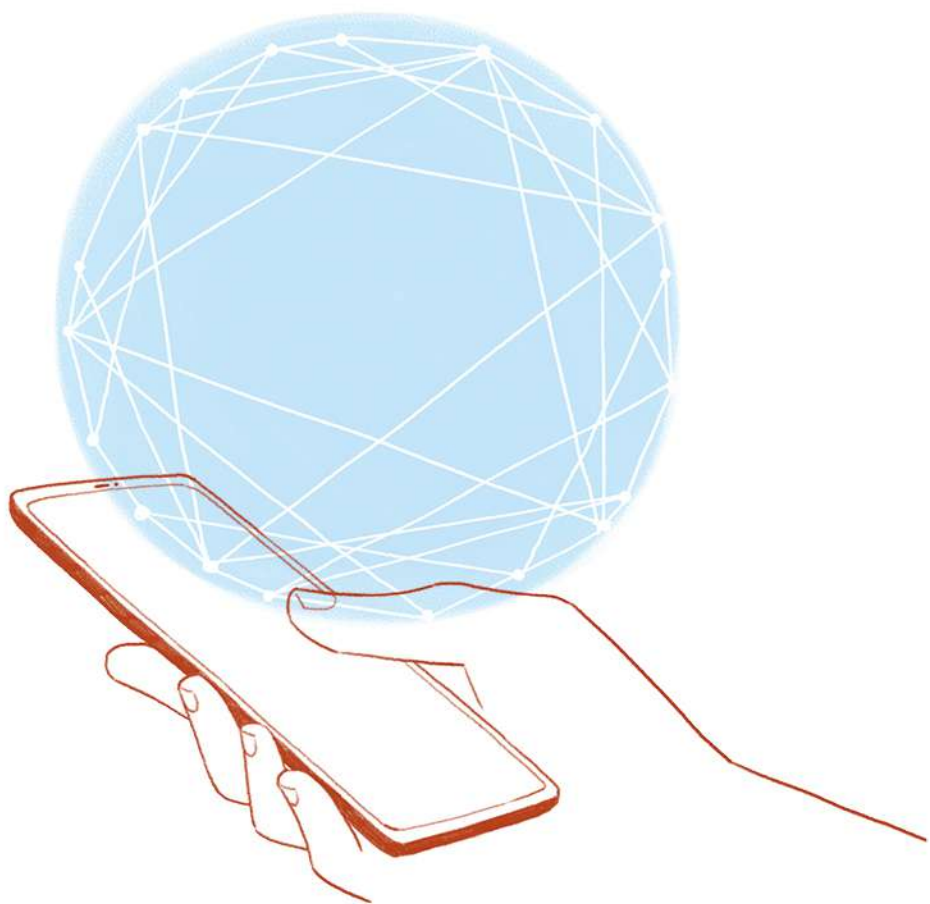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SNS 활동도 한다.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ansejo/?hl=ko>)와 페이스북에도 일상에서 예쁜 꽃도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런저런 사연도 공유한다. 손주들과 카톡으로 대화하고 선물도 보낸다. 사는 게 재미있다.

◆ 맺는 글, 배워서 남 주자!

퇴직 후 뒷방 늙은이로 술이나 마시고, 허망한 세월을 보내는 노년 생활이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해 활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병원 갈 일도 줄어든다. 이제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멋진 노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괴테의 말 한마디와 함께 글을 맺는다.

“일한다는 것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따라서 적도 생기지만, 친구도 만들 수 있다. 결국, 일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고독하다.” -예술과 고전-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기집



공모전 수상작 | 우수상

03



행복을 담은 필름
종로시니어클럽 | 이상용

024



노인이 노인을 돕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 박문희

028



나는 老人이 아니라, 勞人이다!
부산남구시니어클럽 | 이경희

032



희망에서 절망으로, 다시 희망으로!
전주시니어클럽 | 김종현

036



새로운 보람과 즐거움을 찾다
세종시니어클럽 | 신극채

040

행복을 담은 필름



종로시니어클럽 | 이삼용
공익활동-아이누리



2000년대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저의 공든 커리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필름 인화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신문물은 사람들의 필수품이 되면서 필름 카메라를 찾는 사람은 점점 줄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가 필름 사진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지켜내지 못했고, 저는 그 충격으로 의욕을 잃고 사진사로 사는 삶을 서둘러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1970년부터 30년 넘게 자연 풍경을 촬영하는 전업 사진작가로 살았습니다. 일찍이 실력을 인정받아 각종 사진전에서 상을 휩쓸었고, 긴 시간 동안 기다려 포착한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국립공원이나 한국관광공사, 대기업 등에 팔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대학병원에 갔다가 로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의 부딪함과 벅참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유물이 되어버린 필름 카메라가 꼭 내 신세 같다고 생각하며 몇 년 동안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기만 하던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가 상기된 얼굴로 저를 찾았습니다.

“여보! 은퇴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이 있대. 종류도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골라서 신청할 수 있대네. 한번 가볼래요?”

“응? 직업소개소 같은 건가? 혹시 사기 치는 곳 아냐?”

“아냐. 소개소가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래. 여러 군데서 하는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종로시니어클럽이라고,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 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봐요.”

다음 날 저는 아내와 아침 일찍 종로시니어클럽에 찾아가 일자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복지사가 “선생님, 지금은 선생님께서 원하는 자리는 없어요. 대기해 놓으시고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역시나.’ 하고 크게 낙담하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우연히 옆을 지나가던 다른 복지사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문화 가정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지금 자리가 있는데 그건 혹시 어떠세요??”라며 자격 조건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이 기회를 놓치면 엄청난 후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손주들 공부만 봐주어 경험이 많진 않지만 가르치는 거 자신이 있어요. 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다문화 가정 멘토링 사업 ‘아이누리’사업단의 참여자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 날에는 아주 오랜만에 정장과 넥타이를 꺼내어 입었습니다. 어색한 마음을 애써 누르고 아이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이국적인 외모의 두 모자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아이는 엄마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지 3년 된 태국에서 온 11살 남아아이였습니다. 교과서와 참고서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가르쳤던 경험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진행했더니 처음에는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진 아이는 학습보다는 놀이에 더 관심을 보이는 여느 또래처럼 점차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보다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니 제가 계획한 수업 진도가 제대로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내 수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지만 방법을 찾기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수업 중간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방을 나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아이를 찾으러 거실로 나갔더니 맞은편 작은 방에서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의 목소리를 따라 간 열린 방문 틈으로 노트북에 얼굴을 가까이 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한국어가 아닌 모국어로 재잘거리며 현지인 친구와 화상 채팅을 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모국어로 재잘거리는 뒷모습은 신나 보이기도 하고, 웬지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어른도 견디기 힘든 타향살이가 저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학교 진도를 따라잡는 것보다 아이의 외로운 마음을 끌어안아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어요.

이후 우리의 수업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저는 먼저 아이를 만날 때마다 사소한 부분이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시간을 잘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선생님이 힘이 되네.”

“오늘은 늦었네. 실컷 뛰어놀고 와서 덥고 힘들겠네. 재미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게 더 대단한 거야. 우리 오늘도 파이팅 하자.”

“알파벳을 정말 잘 썼네~. 이렇게 멋지게 쓴 글씨는 선생님 처음 봐~. 정말 멋진 글씨다.”

처음에는 쏟아지는 칭찬에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지만 아이는 내심 싫지 않은 듯했습니다. 사소한 아이의 행동과 변화를 놓치지 않고 사진기에 풍경을 담듯 관찰하고 칭찬해 주었더니 아이의 학습 태도도, 학습에 대한 열의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풍경을 담던 사진사는 이제 아이의 삶과 마음의 풍경을 담아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만을 위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어린이 도서관에 찾아가 사진작가로 일했던 시절의 열정을 되살려 제가 만나는 아이만을 위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좋아할 아이를 떠올리자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재료를 가지고 간 첫날, 아이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라며 요리조리 살펴보고는 처음 보는 손 글씨 교재에 참고서로만 공부하던 때보다 흥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점차 학습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했고, 저 역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던 수업은 이 ‘맞춤형 자료’ 덕분에 점차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음엔 뭘 가지고 올 거예요?” 헤어질 때면 늘 궁금해하는 아이를 위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반짝이는 아이의 눈을 보며 ‘다음엔 어떤 걸 같이 해볼까?’ 고민하게 되면서 제 삶도 점점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축구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축구공을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고 저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축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축구공이 생긴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축구를 잘한다고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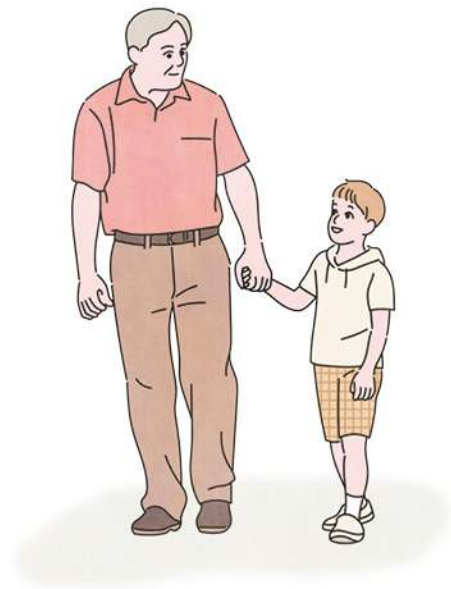
이렇게 아이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사소한 이야기까지 재잘재잘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도 저도 만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고, 집에 가지 말라고

붙잡는 아이를 달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날도 찾아졌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함께 공부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십 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속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각별한 사이가 되었으며, 그 아이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제자'로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중로시니어클럽 '아이누리'에 참여하면서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쉬는 날에는 아이의 이해도와 학습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학습 방식을 시도해 보고 자료를 준비하느라 도서관에서 몇 시간이고 혼자 공부하면서 젊은 날의 열정을 되찾았고, 아이를 위한 칭찬 한마디를 준비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수함이 시나브로 물들어 어느새 누구에게나 활짝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보람을 얻었으니, 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멘토인 셈입니다.

오늘도 수업하러 갔는데, 계단을 올라가려는 나를 먼저 발견한 아이가 저기 위에서 “선생님 오신다~!”라고 크게 소리치며 창밖으로 힘껏 손을 흔들어 주는 겁니다. 카메라 대신 제 눈과 마음에 그 따뜻하고 반짝이는 순간을 사진 대신 마음 한편에 잘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은 내 인생의 한 장면을 한 권의 앨범으로 엮어 펼쳐본다면, 아마 페이지를 뒤로 넘길수록 찬란하게 빛나는 풍경이 이어지겠지요. 앞으로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오래오래 이 일을 하면서 내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들이는 삶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어떤 모습이 담길까요?



노인이 노인을 돕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 박문희
공익활동-북부노노케어사업



어느 날 경로당 총무님이 나를 부추긴다. 교통비 안 들고 용돈 생기고 건강해지는 일이 있다고 했다. “봉사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 돈 필요치 않은 사람 어딴어? 해봐. 큰 운동이 된다니까.” 까칠이 같지만, 속 깊은 총무 언니가 싱글거리며 진심이 담긴 말을 속사포처럼 쏜다. 솔깃한 마음이 생겼다. 그래 한번 '해보자'를 굳히고 복지관 '노노케어'의 구성원이 됐다. 주위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지 않을까? 마음 한쪽이 무거웠지만 '늙은이에게 일자리는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커서 잠시 들었던 잡념은 물러났다.

아래층 일 시작함 (일명: 노인일자리) '노노케어'라는 한자와 영어 합성어 같은 이름의 일자리를 얻은 날을 일기장에 조그맣게 써 놓고, 2022년 1월에 출근하여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내가 나를 속이면서 슬그머니 일을 시작했다.

어르신들은 새댁 시절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에서 평생을 사시는 분이 많다. 자식들이 모여 가려 해도 '여기가 편하다' 하시니 자연 독거노인이 된다.

90이 넘는 노인을 돌보게 됐을 때 짝궁과 나는 당황했다. 아침에 출근했을 때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지. 여기저기 아파하시면 우린 어찌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지금은 출근해서 누워있는 노인의 이마를 톡톡 두드린다. 그러면 한쪽 눈을 게슴츠레 뜨고 빙긋이 웃는 무언의 놀이를 하게 된다. '대상자' 건강을 살핀다. 지병은 없는지, 좋아하는 종류는 무엇이며, 치아의 상태는 어떤지, 잘 보이는지, 들리는지, 수면 상태와 식사량까지 금세 알았다. 두 다리를 못 쓰셨다. 오래도록 기어다녀

무릎 성한 옷이 없었다. 옷을 벗겨보니 무릎에 울긋불긋 피멍이 들어있다.

사각 의자에 몸을 맡기고 밀듯이 힘을 주어 바깥마당을 보행하신다. 조금 일찍 인공 관절 수술이라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참여자)는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말벗을 하고 식사 잘 드시게 하고, 약 챙겨 드리는 것인데 그 범위가 넓다. 요즘은 혈압계가 지원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처음 방문했을 땐 서먹해하고 미심쩍어 했는데 지금은 나 죽을 때까지 오라 하신다. 생의 마지막 삶을 '노인이 노인 돌봄'과 함께하시니 그나마 덜 외로우시지 않을까 싶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시집가서 전쟁이 났는데 남편은 전쟁으로 군대에 강제 징집 되고, 당신은 갓난아기를 업고 친정으로 피난 가다가 홍역으로 어린 딸을 잃었다 한다. 그믐달 밤에 어느 모를 큰 산소를 찾아가 "여기 계신 무덤 주인님이 누구신 줄 모르나 우리 아기를 데려왔으니 잘 보살펴 달라."고 큰절하고 곁에다 묻어주고 왔노라고 말씀하실 땐 눈빛이 흐려지셨다. "그때 막걸리 두 손갈이면 딸을 살렸어. 홍역 할 때 열꽃이 피지 못해 죽었지. 주막집을 찾아가 통사정을 했는데 난리 통에 술이 어디 있느냐고 핀잔만 듣고 돌아섰지. 다행히 남편은 살아 돌아와 시름을 잊었고 자식을 찾기에 죽었다고 했지." 그 후는 서로 일절 말이 없었다고 했다.

올봄이다. 출근했는데 안 계셨다. 화장실 문을 열고 보니 역한 냄새와 함께 어르신이 인분을 뒤집어쓴 채 꼼짝 못 하고 앉아 계셨다. 나를 보더니 반가움과 민망함이 뒤섞인 얼굴로 "이 모양을 남에게 보이지 말아야 했는데."하며 세상이 다 무너진 듯 절망의 마른 울음을 터트렸다. 여러 날 변을 못 보고 있다가 변비약을 복용하고서 갑자기 한꺼번에 설사하는 바람에 똥 사태를 만난 것이다. "왜 안 죽고 살아서 이 꼴을 보이느냐."고 하도 서러워하셔서 달래느라 내가 더 찢찢했다. 내 속은 뒤집히는 것 같았다. 견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갇힌 그 마음이 오죽할까!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 올 때까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됐어도 일어서지 못하고, 온몸이 얼음장이 돼도 나올 수 없던 그 일은, 내게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그 대신 속이 편하다 하셔서 다행이었다. 내가 자식이었다면 어쨌을까! 어떡하느냐고 호들갑을 떨며 치웠겠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살아오신 지 100년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어떤 기억회로 모퉁이에 바스러졌던 삶의 영상들이 '노노케어'를 만나면서 되살아난 걸까? 유년의 기억을 노인은 지금 조각조각 모아서 깎고 계신가 보다. 3~4개월이 지나 외울 정도가 되니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쏟아진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소설 같은 얘기를 오늘도 듣는다. "왜 그렇게 참고 사셨냐?" 맞장구치고 공감하면서 너스레를 떨다 보면 어느덧 노여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자리에 누워 평온히 코를 골며 뼈마디가 쭈시는지 온몸을 움찔움찔하며 주무신다. 어르신 손발톱 깎기와 머리 손질은 내 차지다. 미장원이 가까이 있어도 근처도 안 가신다. 돈이 아까워 못 가시고, 속옷이 해져 걸레처럼

되었어도 버리지 못한다. “영어, 이제 이거 버리자. 새끼들 욱먹어. 옷도 안 사드렸다고.” 어제 간신히 승낙받아 하나 버렸다. 장롱 속에 여러 개 들어있는 속옷은 저승으로 가져가실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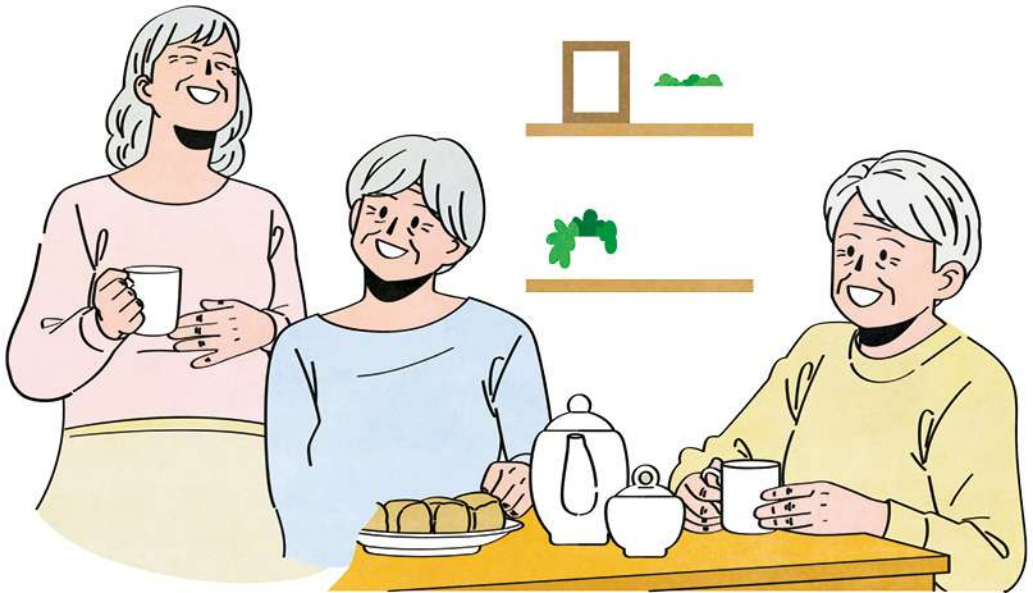
나와 짝꿍, 그리고 어르신. 우리는 72세, 83세, 94세이지만 우리가 ‘영어’라고 부르는 그곳에선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서로 만지고 주무르고 두드리며 쓸어준다. 짝꿍인 작은영아의 개다리춤에 배꼽을 쥐고 웃기도 한다. 작은영아가 지어낸 이름인데 참 정겹고 살갑다.

오래 살고 싶은 건 인간에게 욕망이지만 얼마나 살아야 할까? 먹고살 만해지니까 그 욕구가 점점 자라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욕심이 줄지 않는 것 같다. 각종 약을 한 줍씩 먹으면서도 이승의 삶에 덤을 주신다면 받고 싶다. 나는 일을 하면서 많이 변했다. 내가 그분이 되어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 삶의 지표를 수정하고 있다. 나를 위해 투자하고, 돈은 끝까지 쥐고 있겠다. 친구들 다 떠나고 혼자 남겨질 때까지 오래 살 것을 상상하면 아찔하다. 그때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을 테니, 삶의 끝자락이 무거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고령화 시대를 사는 우리는 중노인이 상노인을 도우며 산다. 사회가 작은 일자리라도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흡족한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사회의 일원으로 시대에 어른으로 당당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다. 자식들 눈치 안 보며 떳떳하게 살면 소외감과 고독함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출근하는 날 화장하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간밤에 꾸셨던 몸이 멀쩡해진다. 작은 급여와 적은 시간의 일이니, 직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미래의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기도 하고.

아침 창문을 열면 잠 없는 늙은이들이 삼삼오오 지나간다. 파란 조끼 위에 짙어진 가방의 무게일까, 구부정한 어깨 위로 키 큰 집게가 존재감을 내민다.

그들을 향한 내 아침 인사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나는 老人이 아니라, 勞人이다!



부산남구시니어클럽 | 이경희

사회서비스형-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관리사업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 3년 만에 결혼했다. 결혼 3년 차에 남편이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다. 3살, 1살 아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길고도 어두운 아픔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천사 같은 분의 기증 덕분에 남편은 이식 수술을 받고 회사로 출근했다. 그렇게 남편은 20년 근무를 더 하고 정년퇴직했다.

퇴직 2년째 어느 날, 남편은 외식하고 잠시 들를 곳이 있다며 따라오라고 했다. 남구청이었다. 남편은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었다. 뒤에서 모르는 척 지켜보았지만,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가장의 자리, 아버지란 이름의 무게는 얼마일까? 소속이 필요했고 일이 필요했던 남편은 그렇게 남구시니어클럽과 인연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20대 첫 출근 날처럼 차려입고 들뜬 목소리로 “갔다 올게.” 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했다.

어느 날 나도 남구시니어클럽을 방문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격증 있나요?” / “아니요.”

“직장 경력이 있나요?” / “아니요.”

이 나이에 구직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이 부끄러웠다. 자격증은 없지만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진심으로 하겠다고 면접을 마치고 나왔는데 부끄럽고 창피했다.

가족을 위해 40년을 일하고도 놀고 있을 수만 없어서 또다시 출근하는 남편을 보니, 매일 친구

모임 가고 문화센터 가고 놀면서 시간을 보낼 수 만 없었다.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다.

◆ 마음을 여는 일

나는 '홀로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 30여 명에게 주 1회 안부 전화를 드리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관리' 사업에서 일하고 있다. 시작은 2021년인데 코로나19로 고립되어 우울한 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례로 알려지면서, 작년에는 시에서 직접 다른 구군도 따라 할 수 있게 벤치마킹도 해줬다.

4년 차가 된 지금은 동행정복지센터 민원 안내는 물론, 안부를 확인하는 어르신들의 시시콜콜 일상 얘기, 식사 얘기, 걱정거리들을 들어주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소소한 일들을 챙기고 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도 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가는 편안한 관계가 되었다.

◆ 그냥 그냥

“아버님, 대연1동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 “그냥 그냥.”

“지금 뭐 하세요?” / “그냥 그냥.”

“별일은 없었나요?” / “그냥 그냥.”

“물어볼 거 없나요?” / “그냥 그냥.”

“제가 누구입니까?” / “몰라.”

이분은 10년 전쯤 뇌졸중으로 한쪽 마비가 왔다. 전동 휠체어에 종일 앉아서 생활하신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아침에 방문하여 식사를 챙겨 드리고 12시에 가시면, 그 뒤로는 혼자서 챙겨 들고 계신다.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와서 소통이 힘들다. 유일하게 하는 말인 “그냥 그냥”, “몰라” 이 두 가지로 세상과 소통을 하고 계신다.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아버님과 나는 대화를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천천히 지나갔다. 나는 혼자 떠들고 아버님은 웃기만 해도 서로가 알아들었다.

“아버님, 뭐 드셨나요?” / “김...치...찌...개...고...등...어...구이.”

“지금 뭐하세요?” / “텔...레 ...비 ...야 ...인 ...시 ...대...”

“제가 누구예요?” / “대연1동 선...생 ...님...”

◆ 고장 난 밥솥

8월 더위에 한 어머니는 식사도 못 하고 1층 주택에서 부채 하나로 더위와 씨름하고 계셨다.

“어머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전기밥솥이 고장 나서 아침을 못 먹었어요. 가스도 일회용으로 하는데 가스도 떨어지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 “몰라요.”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 “중고 밥솥이랑 중고 선풍기만 있으면 고맙겠어요.”

기어가는 목소리로 들리는 전화 너머의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밥솥과 선풍기를 구해달라고 전화했다.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가면 멀쩡한 가전제품들이 매일 쏟아져 나온다. 가까운 물건들을 그냥 내다 버린다.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이 쓰면 자원 재활용도 되고 쓰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주무관님을 앞세워서 밥솥이랑 선풍기를 어머님께 전달해 드렸다. 내 배가 부르다. 그해 여름은 여느 여름보다도 시원했다.

아파트 산책을 하면서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매의 눈으로 수색하는 것이 어느 날인가부터 습관이 되었다. 현관에는 컴퓨터, 전기장판, 선풍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언제 누가 필요할지 몰라서….

◆ 도움은 필요 없어요.

“아버님, 대연1동입니다.” / “네.”

“1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불편하신 거는 없으신가요?” / “네.”

“질문 없으신가요?” / “네.”

아버님과 통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가족들과 일찍 분리되어 혼자서 생활하고 계셨다. 아내, 자녀들과도 단절되고 지인들과 소통도 없이 작은 방 하나에 고립되어 계셨다. 그러다 보니 성격도 내성적으로 되었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다. 반찬이라도 챙겨 드리고 싶어서 조심스레 물어보면 도움은 필요 없다고 하셨다. 차라리 남들처럼 큰소리로 필요하다고 하면 더 편하겠단다. 대화도 조심스럽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수화기를 놓을 때마다 갈등한다. 전화 중단을 해야 할까? 한 달만 더 해보고, 한 달만 더 해보자. 그렇게 1년을 계속 전화했다.

어느 날 사무실로 민원인이 찾아오셨다. “내가 000입니다.” 깜짝 놀라서 자리로 안내하고 녹차를 한 잔 드렸다. 전화로만 1년 넘게 통화하다가 갑자기 만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

“전화 한 통 오는 데가 없는데, 동사무소라고 전화가 와서 귀찮아서 몇 번 하다가 말겠거니 했지. 1년 넘게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전화를 줘서 고마워서 누군가 일부러 보러 나왔다.”고 하셨다.

이제는 시간이 되면 안부 전화를 기다리신다며, 젊을 때 잘 사시던 얘기, 개인사, 홀로되신 얘기를

답답히 하고 가셨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여서 마음이 짠했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이런저런 이유로 노년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산다.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사회와 가족과의 단절, 건강. 나의 말과 행동들이 이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 나는 행복한 勞人이다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걸 알았다. 내가 노년이 되어서야 알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내가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건강과 행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오늘도 좋아하는 청바지를 입고 집을 나선다. 나는 행복한 勞人이다.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부족한 일손으로 일일이 살피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못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일일이 챙겨주시고 시니어만이 잘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할 기회를 주신 대연1동 복지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연1동 복지과 파이팅!



희망에서 절망으로, 다시 희망으로!



전주시니어클럽 | 김종현

사회서비스형-환경교육강사지원



고등학교 생물 교사로 오직 학생들의 입시에만 매달린 채 3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과 환경에 관한 조사 탐구를 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거나 환경 보존의 실천이 아닌 오직 입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으로 구성하였고, 이론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그것이 학생을 위한 최선이라 생각하였고 학생들 또한 그러길 원했다. 학생들은 스펙을 쌓는 일이 입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에 재직하기 전 석사 과정을 마쳤고, 공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 학교 재직 중에 시간을 쪼개어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 후로 공동 저자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꾸준히 공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국립생태원의 강의에 몇 번 출강하기도 하였다. 생명과학의 수업 시간엔 생태와 환경에 대해 열광을 하였지만, 그 역시 수능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퇴직하니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다. 학생의 입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세월이 무상하게 느껴지고, 교육자로서 이게 정말 보람된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의 전공을 살려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퇴직 후 일자리는 단순노동 이외는 찾기 힘들었다. 내 전공과 가장 밀접한 일이 무얼까 생각하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자연환경 해설사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자격증 취득 후 기쁨도 잠시 곧바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립공원이나 국립생태원에서 모집하는 해설사는 모두 공무원 선발로 60세 이전의 나이만 응시할 수 있었다. 조그만 소규모의 습지는 지자체 주민만이 지원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지원 자격도 없었다.

낙담하던 중 전주시니어클럽에 환경교육 전담 교육 강사 사업단이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았다. 이거야말로 내가 원하던 일자리였다. 생물 교사였던 나의 전공과 가장 밀접하고 30년 넘게 교단에서 강의를 한 경험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라 생각했다. 어떻게든 합격하리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준비하여 다행스럽게도 15명 합격자의 일원이 되었다. 너무 기뻐다. 나의 경력이 사장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강사 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의 내용은 내가 미처 접해 보지 못한 내용도 많아 새롭게 공부하는 재미가 있었다. 한편으론 내 전공과 가장 유사하니, 다른 동료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관련 영상이나 자료를 닦치는 대로 공부하였다. 사전에 알지 못한 많은 관련 지식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공부를 더 할수록 회의와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이 왔다. 피터 브레넨의 <대멸종 연대기>라는 자료를 접하게 됐을 때다.

지금까지 지구는 11번의 크고 작은 생물 멸종의 시대를 겪었고 그중 5번은 대멸종을 경험하였다. 대멸종들의 원인은 지구의 온도 변화 때문이며 그때마다 70~85%의 생물의 멸종이 일어났다. 4번은 지구의 냉각 때문이었으며, 3번째 폐름기에 일어난 대멸종은 유일하게 온난화로 일어난 멸종이었다.

지구의 평균 온도보다 무려 10°C 상승하여 바다 온도는 40°C에 육박하였고 멸종률은 무려 95%에 달하였다. 자연 상태에서 가장 빠른 온도 변화가 1만 년에 4°C 상승이었으나, 인간에 의해서는 100년에 1°C가 상승하였다. 이렇게 빠른 속도의 온도 상승에 적응을 못 해 생물들이 하루에 10종 이상이 사라지고 있다. 1년이면 3,600종 이상의 생물들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인류세가 3번째 대멸종과 똑같이 닳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터 브레넨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가 100년 이내에 인류는 멸종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런 예측은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단순 예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 암울해진다.

갑자기 우울해지며 희망이 없어지는 느낌이었다. 내 3명의 손자를 바라보면 측은함이 밀려온다. 우리의 잘못으로 어린 손자들이 고통을 받을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의 대멸종이 조만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설마~, 과학자들 또 헛소리하네~.'라고 코웃음 지으며 관심도 없다. 그럴 때마다 나의 가슴은 답답해진다.

답답한 마음을 어찌 해결할 수 없었다. 과학자들이 방송에 나와 환경에 관해 이야기하며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알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나 혼자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잘 진행되어 가는데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닌가? 識字憂患인가? 모든 걸 기억에서 지워 버릴까? 별 생각이 든다. 인류의 대멸종에 대해 온 지구인들이 합심하여 대처해도 부족한데 그것도 모르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몇 시간 후 도살장에서 생을 마감하는 줄도 모르고 트럭의 짐칸에서 힘자랑하며 싸우는 돼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혼란스럽다.

나의 정신의 혼란 속에도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유명 환경교육 강사들의 환경에 대한 이론교육이 있었으며, 난생처음 제로웨이스트 숍인 <늘미곡>과 <제비마트>의 방문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았다. 전주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통해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의 현실을 체감하게 되었다. 전주소각지원센터와 종합리사이클링센터를 방문하여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부하였다.

나의 오지랖 넓은 걱정은 또 있었다. 우리 사업단이 전주시니어클럽에서 올해 처음 구성되었으며 아직 기본적인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개척해야 한다는 실정이었다. 과학을 전공한 몇몇 선생님을 제외한 사업단 단원들은 대부분 문과 출신으로 환경에 대한 기초지식이 조금은 부족했다. 이런 상태에서 시니어 환경교육 전담 강사를 육성한다고? 과학을 전공한 교육자 출신 시각으론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나만의 기우였다. 이때부터 오은경 선생님의 기획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현장 교육에서 쓸 ppt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오 선생님의 지도하에 3조로 편성하여 조별로 주제별 조사 활동과 토의를 수없이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체 토의 과정을 거쳐 '푸른별 지구'라는 수업자료를 드디어 완성하였다. 우리만의 엄청난 결과물을 창출해 냈고 그 뿌듯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 사업단 단원들의 열정과 능력은 대단하였다. 모두 힘을 합하면 불가능이 없음을 느꼈다. 이 ppt 자료로 전원이 돌아가며 발표를 하였고 그 강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피드백 과정을 수없이 진행하였다.

또한 경로당에 빔프로젝터 시설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O, X 퀴즈'를 스케치북으로 제작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자료를 제작하였다.

또한 쓰레기 모양을 코팅하여 백크로판에 직접 붙여보는 교구재도 제작하였다. 이 교구재를 가지고 많은 시연 발표를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연습을 진행하였다.

7월 1일부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요일제와 일몰제에 대한 교육과 환경 교육을 위해 긴장과 우려를 안고 드디어 3인 1조로 경로당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환경에 대해 기본 지식과 관심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건 기우였다.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분리배출을 잘해 왔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우리가 실제 접하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도 잘 알고 있었다. 분리배출에 대한 사전 강의 준비를 위해 공부했던 이론적인 내용보다 실생활에 적용하는 환경교육이 더 적합함을 느껴 강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더

쉽게 환경 문제에 대해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더 공부하게 되었다.

또한 시니어클럽 사업단의 환경교육 연수 과정의 강의를 하게 되었다. 경로당과 달리 환경에 대한 심화 내용으로 ppt를 이용한 강의였다.

시니어분들은 기대 이상으로 환경에 대한 전문 용어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인류의 멸종에 대한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새로운 내용에 대한 호기심으로 30명이 강의를 대하는 열정은 대단하였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으리라는 편협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치부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더 우리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걸 깨달았다. 이 어르신들에게 온난화의 심각성을 조금만 주지시키고 자극을 준다면 큰 변화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희망이 보인다. 나의 생활 습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예전엔 쓰레기 분리배출은 아내의 몫이었으나 지금은 내가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매일 아내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 불편하고 또한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분리배출의 요령은 매일 잔소리처럼 하고 있다.

난방 때는 1°C 낮추기, 냉방 때는 1°C 높이를 통해 1°C 지키기를 실천하고 있다.

샤워나 양치질 때 수도물 잠그기, 불필요한 전등 소등하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새 옷을 구입하지 않기를 다짐한다. 미약하지만 CO₂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행동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나의 이 작은 행동과 실천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시니어클럽 환경교육 강사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됐다.

나의 이 작은 강의가 미약하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시니어클럽에서뿐만 아니라 내 힘이 다할 때까지 지구를 지키는 환경전도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시니어들이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오늘도 힘차게 출근 발걸음을 땀다. 지구가 건강하게 회복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람과 즐거움을 찾다



세종시니어클럽 | 신극채
시장형사업단-세종의책방 집현



◆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다.

먼저 퇴직한 전 동료에게서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는 허드렛일 정도로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연초의 노인일자리사업 공고에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있어 기대감이 일었다. 3개를 지원했고 그중 책방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퇴직 후에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세종의책방 집현」에서는 책 판매 이외에 어린이를 상대로 동화구연도 한다니 특별했고 설렘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동화구연 면접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연습을 했다. 준비 기간이 짧아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따라 했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그리고 동물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목소리를 바꿔야 한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혼자 연습하니 며칠이 지나도록 제자리였다. 하루 이를 연습으로, '한국인의 밥상'의 최불암 배우나 '건축 탐구 집'의 김영옥 배우의 말하듯 편하면서도 필요한 감정이 담겨있는, 수십 년 배우 내공의 내레이션을 따라갈 수 없었다.

동화구연 면접을 보았다. 면접 차례를 기다리는 20여 분 동안 긴장감에 가슴이 뛰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두근거림을 넘어 가슴이 뛰기까지 했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 긴장되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경험 많아 보이는 옆 사람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이야기 대본은 면접 10분 전에 주어졌고 3개 중 하나를 선택했다. 시작할 땐 감정을 유지하며 인물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낸듯한데, 갈수록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았다. 중반부에 가서야 내 구연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후반부에 겨우 다시 가다듬었다.

면접장 문을 나오는데 아쉬움이 남았다.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세듯이 걸어 내려왔다. 하지만 오늘 겨우 계단 하나를 내디뎠을 뿐이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가슴이

뛰었다. 동화구연 모집 안내문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설레어 뛰었다.

◆ 어서 오세요

면접 후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며칠은 사회 초년생으로 첫 직장 취업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책방에서 일하며 1주일이 지났다. ‘어서 오세요.’ 책방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하는 인사말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다.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아서다. 지금껏 구매자나 이용자였지 판매자나 제공자가 아니었기에 듣는 것에 익숙했다. 마트나 가게에 가면 다른 이들이 하는 인사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았다. 그동안 흘러들던 말이었는데 그들은 매번 진심과 간절함을 담아내고 있음을 느꼈다. 간절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절을 담아보려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음을 너무 높이지 않고도 경쾌하게 인사하게 되었으나,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려면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망설여진다. ‘어서 오세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환영’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지 의사를 묻는 정도일 텐데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영이라면 따뜻하게 맞이하는 목소리나 눈빛이면 충분할 테고, 도움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면 눈을 마주하며 한 걸음 다가서듯 더 적극적으로 몸짓까지 더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환영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궁금한 것이 있는지 아직은 손님의 태도나 눈빛만으로는 알 수 없다. 손님의 의도를 먼저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건 한참 후의 일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어서 오세요~.’

인사말이 필요 없기도 하더라. 인사말에 시선을 어색하게 피하며 책방 안쪽 서가로 총총히 들어가는 손님이 있었다. 한참을 서가 앞에서 의미 없이 서성이거나 의자에 앉아 있기를 반복하고 나갔다. 그냥 시간을 보내러 온 것이었다. 이럴 땐 아무 말 없이 무심하게 대해야 했다. 내 할 일에만 충실하여 인사를 건네거나 궁금한 눈빛으로 볼 상황이 아니었다. 할 일이나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았다면 들어오는 것도, 들어와 무엇을 하는지도, 나가는 순간에도 무심히 모른 척해야 한다. 문을 지나 들어오면서 내가 서 있는 계산대 쪽이 아닌 서가 쪽으로 시선을 두거나 몸이 향했다면 설 곳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입도 눈도 다물자~.

바람이 생겼다. 어디에나 있는 책방이지만 이곳만큼은 무엇을 해도 좋고, 부담 없이 들러 마음껏 쉴 수 있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잠시라도 책을 본다면 더 기쁘겠다. 책방에 들어와 책을 열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나가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책을 보는 사람들

맞이하는 나는 이곳에 있는 동안 늘 기쁘다. 누구든 환영이다. ‘어서 오세요~~.’

◆ 고객과 아름다운 소통을 하다

일하는 책방에서 가끔 서평을 쓴다. 맘에 드는 책에 대한 소감을 길지 않게 쓴다. 그렇게 쓴 서평은 책에 꽂아 두고 혹시 모를 독자 고객을 기다린다. 책방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담당자는 서평도 써야 한다는 말도 함께 했으나, 그때는 흘러들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들었는데 그때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서평이라지만 평가는 분명 부담스러운 행위인데도 말이다. 내가 여전히 쓸모가 있다는 안도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이 앞섰다.

독일의 동네 책방에서는 직원들이 쓴 서평이나 소감을 책과 함께 놓아둔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걸 이 책방에서도 하고 있었다. 앞서 일한 사람들이 남긴 서평이 책에 꽂혀있고 책보다 서평이 먼저 보였다. 글씨는 단정했고 글은 진솔했다. “감동은 늘 부르르 몸을 떨며 온다.”는 글귀로 시작되는 서평은 책을 궁금하게 했다. 이곳에 들른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었을 것이다. 마음을 흔들진 못하더라도 진심이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내 서평도 책에 꽂혔다. 서평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읽고 그 책이 궁금해졌으면 하는 욕심도 생겼다. 그런 바람과 욕심으로 인해 부풀지 않으려 했으나 생각처럼 쉽게 억눌리지 않았다.

한두 권 책에 서평을 남기니 부담이 생겼다.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게 되었다. 거기에 더해 내가 쓴 글이 책의 내용을 전달하고 평가하는 객관성 있는 서평이라기보다 개인적인 감상을 적은 독후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책에 대한 기준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허투루 나설 일도 아니었다.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다 제각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에 미쳤다.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작가의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고 서로 만족할 수도 있다. 미달이든 오해든 만족이든 각자의 몫이다. 그 가운데 마침내 우리는 책 속 세상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책방에서 만들어 가는 책 속 세상이다.

고객들이 책방에서 일하는 우리와 우리가 남긴 서평을 보고 간혹 따뜻함을 느꼈다는 더 따뜻한 쪽지를 남겨 놓는다. 책방에는 고객이 글을 쓸 수 있는 공간과 필기구가 있고 게시판도 있는데 그곳에 쪽지를 꽂아 놓는다. “일하시는 학사님이 미리 책을 읽으시고 쓰신 내용이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세종 시민이 편하게 드나드는 책방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에 사서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포근한 미소에 잠시 편안히 숨 쉬다 갑니다.” 같은 글이 게시된다. 이런 글은 더 편안하고 좋은 책방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한다. “집현에 조용하고 재밌는 책들이 많네요. 책 잘 읽다 갑니다.”라며 비뚤비뚤한 글씨로 어린이가 쓴 글은

기슴을 뭉클하게 한다. 이렇게 고객과 일하는 우리 사이에 쪽지로 주고받는 소통이 이어지며 책방은 더 훈훈해진다. 좋은 책방을 만드는 보람과 즐거움이 생긴다.

◆ 꼬마 손님과 할아버지

세종에는 젊은 층이 많아 책방에도 꼬마 손님이 많다. 대개 엄마와 함께 온다. 유모차에 타거나 품에 안겨 오기도 하고 손을 잡거나 큰 아이 중에는 엄마보다 앞장서서 들어오는 책 좋아하는 아이도 있다. 책방에는 아이들을 위한 분리된 공간이 따로 있다. 앉아서 동화책을 읽을 수 있고 아이 몸에 맞는 키 작은 의자도 있다. 많진 않으나 판매용이 아닌 기증받은 책도 있어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다. 몸을 제 맘대로 하고 볼 수 있는 구조물이 구석지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다양한 동화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부족하지만 즐겁게 찾아와 책을 읽으니 좋다.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엄마가 많다. 책 읽어주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다. 엄마도 아이에게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간혹 등장인물이나 동물에 따라 목소리를 바꿔 가며 읽는 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된다. 엄마는 못 하는 게 없다. 엄마들은 평소에도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어 자연스럽게 동화구연을 하니 동화구연을 배우는 내게 선생 같은 존재다.

어느 날, 3~4학년쯤 보이는 초등학생과 엄마가 왔다. 아이는 추천 도서 코너에서 책 한 권을 골라 안쪽에 마련된 긴 책상으로 갔다. 책상은 대여섯이 앉아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길고 서가에 가려지고 안쪽에 있어서 쉬거나 독서하기에 맞춘다. 더욱이 남쪽을 향한 유리창에 맞대어 있어서 손님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오후에는 내려진 커튼을 건너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다. 슬픈 이야기를 읽는 순간에는 위로받을 수 있을 듯하고, 시를 읽는다면 시에서 그리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고, 굳이 책을 읽지 않고 창밖만 멍하게 바라보아도 좋은 곳이다. 두어 시간이 지나고 그곳에 갔더니 아이가 지금껏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잠깐 볼일이 있어 나갔단다. 마음 놓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책방이라 생각해 주니 다행이다. 아이는 천연덕스럽게 엄마와 통화한다며 내게 휴대폰을 빌려달란다. 아이도 나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보아주니 참 다행이다. 언제부터인지 마음속으로는 늘 할아버지가 되고 있다.

아직 바람이 차던 날, 문 닫을 시간 10분을 남겨두고 아빠 손을 잡고 아이가 들어왔다. 곧 마감할 시간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드물게 아빠와 함께 왔고 책을 보는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기 때문이다. 10분이 넘게 지났다. 뒷정리하고 모처럼 있는 지인과 만날 약속에 맞추러야 했다. 아빠의 책 읽어주는 굵은 소리가 두런두런 나지막이 들렸다. 동화 이야기의 끝이 궁금한 채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 다 읽기를 기다렸다. 읽은 책을 책꽂이에 넣는 순간을 포착했다. 문 닫을 시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어가는 소리로 얼버무렸다. 잘 알아듣지 못하고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책방 문을 닫아야 해서.” 내 손녀가 아닌 다른 아이에게 나를 할아버지라 지칭했다. 처음이지만 자연스러웠다. 나를 할아버지라고 지칭해야겠다고 마음먹었었다. 세대 간 소통으로 할아버지란 칭호는 친근감으로 받아들여졌다.

◆ 반짝이는 눈을 마주하다

아이들이 왔다. 책방으로 들어오는 긴 복도에서 재잘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동화구연을 듣기 위해 온 어린이집 아이들이다. 복도로 나가 맞이하자 아이들이 먼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해왔다. 그 인사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처음으로 동화구연을 하는 부담과 긴장이 풀어진 것은 그동안의 연습도 준비도 아닌 한순간 아이들의 환한 얼굴이었다. 귀여운 녀석들~.

오늘의 이 1시간을 위해 동화구연을 배웠다. 강사를 초빙하여 2달 동안 강의를 듣고 연습했다. 동화구연이 이런 것이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며 강사가 한 시범을 보고 ‘이렇게 재미있구나.’ 감탄했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뒤따랐다.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워할 아이들을 상상하며 시작한 첫 수업은 기대와 달리 걱정을 키웠다. 동화구연은 목소리만이 아니었다. 등장인물에 맞추어 나이, 성별, 성격을 반영하고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이미지와 동화 속 캐릭터를 고려하여 목소리를 다양하게 변형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목소리에 더해 표정과 몸짓을 덧붙여야 제대로 된 구연이었다. 이는 배우들이 하는 연기와 다름이 없었다.

강습을 듣고 집에서 연습하고, 함께 배우는 동료 앞에서 시연했다. 동화구연이 연기와 매한가지인 걸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남들 앞까지 서니 더 고역이었다. 어설픈 내 모습과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동료들 보는 쑥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책방 취입 면접으로 동화구연을 하면서 느꼈던 설렘이 여전히 여전하고, 엄마 손을 잡고 책방에 찾아와 책을 읽고 나와 눈을 맞춘 아이들의 눈을 또 마주하고 싶었다. 그리고 1년 일하기로 책방과 계약했고 약속은 지켜야 했다.

동료들 앞에서 한 시연은 효과적이었다. 서로를 보면서 보완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다. 시연을 거듭할수록 영성찬 구연에도 뻔뻔해졌고 뻔뻔할수록 빈틈은 메워졌다. 나이 들수록 부끄러움이 없어져서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이럴 땐 쓸만했다. 동화구연에 더해 구연에 필요한 인형 같은 자료를 만들어야 했고 종이접기도 알아야 했고 율동도 필요했다. 동요와 율동은 음치에다 몸치인 내겐 또 다른 난관이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에 수많은 자료가 있었고 무엇보다 동영상들 통해 시각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정보는 어디에든 있으니 찾아내고 나름대로 묶으면 되었다.

동화구연 일정이 정해졌다. 배운 것과 조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구체화해 보았다. 아이들의 흥미를 위한 활동도 추가하고 다양한 구성도 필요했지만, 초보인 내가 해낼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했다. 연습하다 보니 아이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방법도 고민되었다. 먼저 동화구연을 진행한

동료를 보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과 크고 웃긴 몸짓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 앞에서 나도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드디어 아이들 앞에 섰다. 가벼운 이야기로 마음을 열고 눈을 맞추었다. 여기 오면서 선생님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나 꾸밈없이 맑은 눈에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저 기대와 호기심이 어떻게 채워질지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져 머뭇거리면서 준비한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했다. 그런데 준비한 말보다 상황에 맞게 더 자연스러운 말이 나왔다. 동화를 읽기 시작했다. 동화는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다. 내 실수도 줄이고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동화를 크게 복사하고 코팅해서 찼했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집중도가 높아졌고 간혹 큰 소리로 웃었다. 한 명이 웃으면 따라 웃었는데 유난히 잘 웃고 호응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와 눈을 자주 맞추었다. 어서 맞장구쳐달라는 절실함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 이야기는 "옛날 깊은 산속에 심술꾸러기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요."로 시작하는 구전동화다. 책 없이 외워서 구연했다. 도깨비를 그린 풍선을 들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풍선에 그려진 도깨비를 보며 귀엽게 생겼다고 말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일결에 "도깨비가 어떻게 무섭게 변하는지 잘 들어보자."라고 했다. 그런데 동화는 정반대로 풍선에서 바람을 빼며 풍선이 점차 작아지도록 전개되었기에 도깨비는 갈수록 귀여워졌다. 아뿔싸!

며칠 후 다른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화구연을 한 번 더 했다. 인터넷 검색까지 해서 도깨비를 빨간 풍선에 무섭게 그렸다. 이번엔 먼저 아이들에게 도깨비가 무서운지 귀여운지 물어보았다. 여전히 귀엽단다. 귀여운 녀석들~.

◆ 뜻밖엔 얻은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

30년 이상 한 일을 그만두고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6개월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지냈다. 그동안 하고 싶었으나 충분히 못 했던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고향도 찾아가고 친구들과 만나고 산과 들을 걸으며 자연을 보고 많은 걸 했다. 그러니 놀았다기보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겠다. 그 후 올 초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원하는 책방에서 일해 왔다. 이 책방에서 30년 직장에서의와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느끼고 있다.

한 달에 30시간 정도 일을 하니 많은 시간은 아니나 내가 얻는 행복은 무엇보다 크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분야의 일을 한다는 새로움, 책을 읽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즐거움, 일터를 청소하고 정돈하는 작은 수고, 고객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장소와 분위기를 제공하는 기쁨, 무엇보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을 마주하며 이야기하는 보람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경제적 지원과 노인의 4고(苦) 극복이라는 복지 측면도 있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측면도 크고 의미 있다. 책방으로 출근하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다.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기집



공모전 수상작 | **장려상**

04

01

무등산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
광주동구시니어클럽 | 박종화

048

02

언제나 맑고 밝게 살아요
전주시니어클럽 | 한규생

052

03

선물 같은 나의 일자리
전주효자시니어클럽 | 홍정의

056

04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 최민선

062

05

‘일’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
김포시니어클럽 | 김흥기

066

06

다시 자야 되나?
광양시니어클럽 | 박준재

072

07

감사한 노년, 당당한 나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 김소순

076

08

불빛 하나 가슴에 찾아와
인천서구가좌노인문화센터 | 이인기

078

09

아무것도 없어도 줄 것이 있다
오산시니어클럽 | 지동만

082

10

단 하나의 은행잎도 나무 전체의 말 없는
이해 없이는 노랗게 물들지 못하듯
영광시니어클럽 | 임숙희

086

11

노인일자리는 희망입니다
안동시니어클럽 | 김태선

090

12

일하며 느끼는 나의 행복
시흥시니어클럽 | 신영순

096

13

징검다리 사랑
대구동구시니어클럽 | 이지현

100

14

새로운 삶의 장(章): 동화 할머니의 여정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성남시실버인력뱅크 | 문길업

104

15

시니어들도 대한민국의 관광외교를 하고
있어요

서울강서시니어클럽 | 고희자

106

16

살기 좋은 대한민국
부산사하시니어클럽 | 김수홍

114

17

무제
인천남동시니어클럽 | 심옥자

118

18

사랑한다는 인사 속에 담긴 우리의 연결고리
부산남구노인복지관 | 남덕희

120

19

행복한 삶을 찾아 떠나는 노년의 여정
대구중구시니어클럽 | 이종운

124

20

꿈의 직장이 현실로 “경로당 헬스케어
매니저”
강화군노인복지관 | 정선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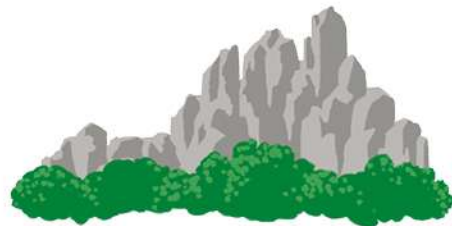
130

무등산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



광주동구시니어클럽 | 박종화

사회서비스형-무등산시니어탐방플러스



◆ 무려한 일상의 끝과 새로운 시작

저는 동구시니어클럽 무등산 시니어 레인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할 일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점점 무의미해져 가던 중, 동주민센터를 통해 동구시니어클럽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고 면접을 통과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혼자라는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무등산을 탐방하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봉급을 받으면서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되니, 사회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뿌듯함도 커졌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명랑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노년의 삶에는 고독, 무위, 빈곤, 질병이라는 네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항상 꾸준히 걸으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과 출근을 위한 긴장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줍니다. 매일 걷다 보니 건강도 좋아져서 오래 살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탐방객 안내의 보람

무등산에는 휴가철이면 매일 10명 내외의 외국인 탐방객이 찾아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딸 덕분에 뉴욕에서 2년간 생활한 경험이 있어 영어 회화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지금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매일 딸과 영어로 대화함으로써 실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덧 외국인 탐방 안내가 저의 주요 업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와 인문학을 좋아하는 저의 특기를 살려, 외국인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도 곁들이니 외국인 탐방객이 더욱 즐거워합니다. 외국인 탐방객 안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틈틈이 세계여행을 다녔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세계 각국에 관련된 책들을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걸쳐 불교가 융성하여 무등산에는 원효사, 증심사, 약사사라는 큰 사찰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외국인 탐방객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들을 사찰로 안내할 때마다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하고 탁월한 장소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산나무에서 증머리재까지 이스라엘 신혼부부를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사위가 이스라엘 인이라서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어 그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하고 즐거웠습니다. 신혼 시절 아이들이 없을 때 많은 여행을 다니며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추억을 쌓으라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외국인 탐방객들은 무등산에 와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약사사 계곡과 바람재 계곡의 물소리는 청량하고 시원하여, 한여름이면 피서지로도 제격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영어도 사용할 수 있고, 문화유적 공부도 하니 매일이 즐겁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행복하니, 이 일에 자신감도 생기고, 전공과목처럼 쉽고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실력을 갈고닦아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 남을 돕는 기쁨과 행복

84세의 나이에 무등산을 등산하시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시지만, 젊은 시절부터 자주 무등산을 오르셨던 익숙함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께서는 여전히 등산이 문제없다고 하시지만, 누구든 몸에 스며든 세월은 비껴갈 수 없기에, 조심스럽게 뒤따라가 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노인께서 다리에 힘이 풀려 계곡으로 구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재빠르게 몸을 날려 붙잡았습니다. 붙잡지 않았으면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 큰 사고가 날뻔했으니,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무등산을 사랑하시는 노인께서 앞으로도 아프시지 않고 무등산을 자주 오르며 행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귀가하는 도중에 노변에서 채소를 파시는 할머니를 봅니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항상 채소를 팔고 계십니다. 제 어릴 적 6·25동란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힘겹게 삶을 일구셨던 어머니가 생각나서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일한 대가로 받은 소중한 월급으로 할머니의 채소를 한 번씩 사 드립니다. 어렵게 살아가시는 할머니를 작게나마 도우니 저 또한 공동체 의식과 이웃 사랑의 행복을 듬뿍 느낍니다.

이처럼 남을 돕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타인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도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무등산을 더욱 아름답게

직원들과 함께 계곡마다 숨겨둔 쓰레기와 막걸릿병을 찾아 수거하면서 무등산을 깨끗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오물이 많기 마련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이 치우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우거진 산록 안의 깨끗한 계곡물, 이름 모를 새들의 합창, 귀여운 다람쥐, 멀리서 들려오는 빠꾸기의 울음소리, 산사에서 들리는 스님의 독경 소리는 맑은 자아에 침잠하게 합니다. 마치 산사에 사는 스님처럼 마음이 청아해집니다.

지난해 가을 중반 장불재에 갔을 때, 역새 군락이 바람에 날리면서 역새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탐방객들이 와서 한국의 가을을 빛내는 역새밭의 아름다움에 취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안내와 함께 사진도 찍어 드리니 한국인의 친절에 연신 감사하다고 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 무등산의 시와 나의 시

매월 교대로 증심사지구와 청풍지구에서 근무합니다. 제4수원지를 가로지르는 청암교는 사진작가와 중년 부인의 이를 수 없는 사랑의 배경, 미국 아이오와주의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연상케 합니다. 청풍쉼터에서 제4수원지와 청암교를 바라보노라면 저도 그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또한 청풍쉼터에는 일명 김삿갓 옛길이 있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절절한 시 한 수를 읊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절로 떠오릅니다. 과거 산성이었던 무진고성에 정화 활동을 하러 갈 때는 후백제의 견훤 왕이 호령하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17세에 다산 정약용이 썼던 무등산에 관한 시도 읽으며, 토끼 등에 세워진 산우(山友)의 추모비를 읽으니 저도 어느덧 시인이 된 듯합니다.

“마나슬루를 정복하다

사고를 당한 산우
손짓한 설원을 향해
나래처럼, 나래처럼
훨훨 날아가다
사고를 당한 산우의 혼을
영원한 어머니,

무등산에 묻히면서 위로한다.
무등산은 사랑으로 너의 이마를 짚어주리라.”

시상이 떠올라 저도 아래와 같은 시를 써 봅니다.

“시린 가슴을 덥힐
한 자락의 바람을 찾습니다.
돌터미에 쌓인 낙엽에서 사랑의 무늬도 봅니다.
오늘도 무등산 가슴에 안겨 연가를 부릅니다.
無等山 除一切苦
무등산에 오르면
모든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영산입니다.
나는 무등산을 사랑합니다.”

◆ 무등산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수십 년간 바꿨던 삶 속에서 무심코 봐 온 무등산은 저에게 단순히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등산은 저에게 단순한 일터를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아 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년의 삶이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하루가 기대됩니다. 이 일은 제 삶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매일 저에게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무등산에서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앞으로도 많은 노인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도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언제나 맑고 밝게 살아요



전주시니어클럽 | 한규생 사회서비스형-초록등 안전 보안관



2월. 아직 추위가 풀리지 않아 쌀쌀한 날씨다. 아내가 심심한지 출근할 곳에 가보자고 즐랐다. 지도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곳이고 어렵듯이 어딘지 짐작이 가는 곳이었다. 그래도 운동 삼아 한번 가자고 하여 발을 옮겼다. '문정유치원' 교문을 어루만지자 입가에 미소가 돌았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지난해 여름에 교직에서 퇴직했다. 근 40년을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다. 보람이 있었고 열심히 산 삶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다.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젠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출근했던 시간이 되면 갑자기 나이가 들기라도 한 것처럼 축 늘어졌고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에 안절부절못하는 나를 발견했다.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놓으면 왜소해지고 무력감에 빠진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무언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을 습득하고, 인터넷을 통해 노인 상담사, 안전교육 지도사 자격도 습득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사 교육도 받았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12월에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전주시니어 일자리 모집 공고'를 찾아보았다. '내게 맞는 사업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 주어지기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몇 개의 자격증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원할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번을 고민하다 오랜 시간 근무했던 학교 관련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초록등 안전 보안관 사업단에 지원하였다. 채용 과정을 거쳐 3월부터 전주 문정유치원(올해 개원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초등학교와 교문을 함께 쓰고 있으며 전주시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뿌듯함과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존재감이 느껴져 참으로 기뻐다.

출근 전 미팅하던 날 따뜻하고 다정스럽게 맞아준 원장 선생님·원감 선생님과의 만남, 내게 주어진 업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문에서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등원(등교)하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과 그 이후에 11시까지 교사(校舍) 앞에서 늦게 등원하는 아이들을 교실로 안내하는 일이 주어졌다.

시내와 시외의 경계선의 작은 언덕에 위치한 유치원의 3월은 조금 쌀쌀했다. 가끔은 눈발이 얼굴을 간지럽히기도 하고 꽃샘바람은 언덕을 넘어가려 마지막 발버둥을 치기도 했고 교문 앞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코를 골며 매연을 뿜어내기도 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둘을 합쳐 120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지만 등교 시간에 교문을 드나드는 차량은 통학버스, 교직원 차량, 물품 수송 차량 그리고 학부모 차량 등 족히 100여 대가 넘었고, 반면에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은 고작 두 명이었다.

붉은 안내 봉을 들고 시니어 복장을 하니 제법 의젓함이 느껴졌다. 어린 자녀들을 등원시키는 일이라서 차량들은 조심스럽게 드나들었고, 출입이 영킬 때만 통제하고 안내하는 일이라서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단순히 출입만 통제하고 안내하는 일은 기계적이고 단순하다는 생각에 무료하고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장에 들어오는 손님을 맞이하듯 안내 봉 두 개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서 미소를 띠고 45°로 허리를 숙이며 깎듯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도로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진입하는 차량을 향해 인사를 건네며 밝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마냥 즐거웠다. 그런데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다. 깜빡이를 넣지 않고 갑자기 학교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어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해야 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일어났다. 인사를 하며 반갑게 맞이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웠고, 갑자기 학교로 진입하여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까 조바심이 일었다.

우회전 깜빡이 신호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운전하는 분에게 가서 ‘깜빡이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자니 아침부터 바쁘게 짜증 나게 하는 것 같고. 이런저런 고민 끝에 ‘깜빡이 팻말을 만들어 한 손에 들고 인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작은 용지에 ‘깜빡이 부탁해요.’라고 쓰고 코팅하였다. 그런데 신호를 잘 넣는 운전자들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쉽게 사용할 수가 없었다.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한 지 일주일이지났다. 그러다 문득 ‘반갑게 맞이할 여러 팻말을 만들고 그중의 하나인 것처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안내 봉에 부착할 여러 팻말을 만들기 시작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건강한 하루’, ‘활기찬 월요일’,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 ‘기쁨만 가득’, ‘깜빡이 사랑해요’, ‘즐거운 주말’ 등 다양한 문구를 만들고 요일별로 번갈아 손에 들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깜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한 팻말 인사는 운전하는 분이나 나에게 미소를 짓게 했고, 그리고 나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다. 운전하시는 분 중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지?’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서 창문을 열고 먼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선생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차를 세우고 가끔 음료수나 간식을 건네기도 했으며, 개인적인 일로 며칠 나오지 못했을 때 학교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분은 “무슨 일 있었느냐?”, “특별한 일 없으셨죠?” 하면서 안부를 묻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은 무슨 팻말일까? 매일매일 기대를 하고 와요.” 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나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사는 일이 바빠 정이 사라지고 각박해지는 세상인데 오고 가는 정과 사랑이 있고 훈훈함이 있다는 것이 마냥 행복했다.

깜박이 팻말은 다른 인사 팻말보다는 자주 사용하지 않았지만,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서너 차량은 여전히 깜박이 신호를 하지 않고 학교에 진입하고 있었다. 이젠 인사를 떠나 ‘교통 캠페인이라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손에 들 수 있는 인사용 팻말이 아니라 A3 용지에 ‘깜박이는 약속입니다’라고 크게 써서 코팅하여 교문 철제문에 부착하였다. 부착한 지 한 열흘이 지나자 학교에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차량은 신경 쓸 일이 없게 되었다. 유치원에 드나드는 운전자들이 눈여겨보았나 보다.

이젠 깜박이 팻말을 붙였던 철제문에 다른 팻말을 붙이고 싶은 욕심이 일었다. 교통 캠페인이 아닌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던지시 전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작은 미소로 행복을 나누세요’, ‘감사와 배려는 당신을 흐뭇하게 합니다’, ‘잠깐!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진입하세요’, ‘언제나 맑고 밝게 살아요’라는 문구를 만들어 1주일 단위로 바꿔 부착하기 시작했다. 그중의 하나, ‘언제나 맑고 밝게 살아요’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제시한 학급 생활 목표였는데 퇴직하고도 내가 전하고 싶었던 삶의 목표를 누군가에게 여전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더없이 기뻐다. 누군가는 팻말 하나에 감동하기도 할 것이고 삶을 돌아보기도 할 것이다. 작은 욕심이 일어 시작했지만 맑고 밝은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된다면 더 좋은 글귀를 생각해 내고 그들에게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앞은 전주시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2차선 도로이다. 차량 왕래는 그리 잦지 않지만 출퇴근하는 차량, 사업용 차량, 노선버스 등이 규칙적으로 오가는 도로이다. ‘학교 앞을 지나가는 모든 분에게도 인사를 건네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똑같은 팻말을 방향만 조금 틀어 지나가는 차량에도 가볍게 목례로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번호는 잘 기억하지 못해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오가기 때문에 종류나 색깔은 낯익은 차량들이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느껴졌다. 지나가는 차량들도 낯설어하며 무표정이었고 ‘어어, 나한테 왜 인사를 하지?’라는 등 의아한 표정들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들의 반응이 나타났다. 시내버스 기사는 거수로 인사를 하고, 어느 차량은 깜빡이로, 어느 차량은 클랙슨으로, 오토바이로 우편 배달하는 집배원은 목례로, 어느 운전자는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줄이고 창을 열고 손을 흔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답례했다. 오늘 아침에는 나와 동년배쯤 되는 어떤 분이 교문 앞에서 내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일을 참 재미있게 하시네요.”라고 말을 건네기에 망설임도 없이 “그래요? 네, 아주 재미있어요. 하루가 무척 즐거워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상대방에게 작은 미소라도 머금게 하려 시작한 일이었는데 도리어 내게 그 이상의 감사와 기쁨과 자존감을 느끼게 했고 또한 더불어 사는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아주 큰 선물로 되 돌아왔다. 매일 아침 ‘어떤 팻말로 그들에게 다가갈까. 어떤 팻말로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게 할까?’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설레는 일이다.

나이가 들어 이젠 ‘시니어’라는 단어로 산다는 것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하지만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여유를 갖게 하고 나이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새로운 터전을 찾고 그 터전에 세속적인 욕심이 아닌 참된 삶의 욕심을 하나하나 채우고 꾸미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힘들게 살아온 만큼 이젠 편안하게 살고픈 것은 시니어 모두의 욕심이다. 그러나 적절한 노동과 적절한 생각거리와 소박한 내일들을 꿈꾸며 산다는 것도 남은 인생을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비가 오는 날이면 신발과 옷이 젖는다. 따가운 햇살에는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옷이 땀에 배어 끈적거린다. 그러나 ‘오늘은 무슨 팻말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하며 나와 작은 소통이라도 하고 싶어 할 많은 운전자를 생각하면 아침이 기다려지고 설렘이 가득하여 출근길이 마냥 가벼워진다.

장마가 끝나고 햇살이 따가운 요즘. 가끔 등 뒤에 바람이 분다. 그리 고마울 수가 없다. 아침 일과가 끝날 때쯤 하늘을 보면 까치며 참새며 이름 모를 새들도 잠시 내 머리 위에서 청아한 소리로 재잘대며 인사를 건넨다. 교문 근무를 마치고 교사(校舍)로 들어오는 시간, 아침 일을 마쳤다는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과 정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었다는 생각에,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을 수많은 분의 따뜻한 표정이 떠올라 입가에서 흥얼거림과 미소가 저절로 나온다. 노인일자리를 통하여 얻게 된 행복이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오래오래 사회의 일원이 되어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이런 기회를 내게 준 전주시니어클럽, 오늘도 수고했다고 시원한 냉수 한 잔을 전하는 동료 시니어 선생님,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오늘은 특별히 ‘언제나 맑고 밝게 살아요.’라고 인사를 전하고 싶다.

선물 같은 나의 일자리



전주효자시니어클럽 | 홍정의

사회서비스형-공공행정업무지원(시니어 설문조사원)



‘혹시?’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살폈다. “합격이 되면 다섯 시까지 전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담당자가 공지한 시간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솟는다. 여고를 졸업하며 대학 대신 직장을 선택하고 입사 시험 발표를 기다리던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고 감정이었다. “전주효자시니어클럽입니다. 지원하신 설문조사원에 합격했습니다.” 오! 나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네! 감사한 마음과 기쁨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기쁜 마음 한가득, 자연스레 지난 삶의 시간이 돌이켜졌다. 6년의 직장 생활을 결혼과 함께 마무리하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아온 지 40여 년. 두 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하고 남편은 은퇴했다. 가정에서의 내 역할은 웬만큼 했으니 뭔가 삶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 끝에 대학 진학을 결심했다. 오십 중반을 넘긴 나이에 대학 공부는 힘들기는 했으나 딸인 듯 조카인 듯한 젊은 친구들과 학우가 되어 함께하는 시간은 새로운 경험이자 즐거움이었다.

교과과정 중에 인간을 탐구하는 분야를 배울 때는 내 삶의 이곳저곳이 강의 내용에 대입되거나 비추어지기도 해서 감정이 북받칠 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잘 견디었구나 하는 위안이 들 때도 있었다. 내가 필요한 공부를 잘 선택했네! 배우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보람 있다는 마음에 나름대로 진심과 성실을 다했다. 그렇게 두 해의 과정을 이수하여 학위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여러 해를 무심하게 지냈다. 신앙생활과 가족 뒷바라지와 악기에 집중하며 딱히 취업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내던 중에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고맙게도 내게 안내와 권유를 해왔다.

“시니어클럽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참여하는 분들이 보람을 많이 느끼고 즐거워하며 계속하고 싶어 해! 꼭 해봐”라는 당부를 받고 며칠을 고민했다. 내 나이도 적지 않고, 또 두 해 전 며느리가 전주로 전근을 오면서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와서 아들과 주말부부가 되어 손자를 돌보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것저것 고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곧 깨닫고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용기를 내어 시니어 일자리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지원을 위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이 전주시에 거주하며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경제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일자리 1,600여 개를 공공형, 시장형, 사회사업형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다채롭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도시가 점점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바뀌고 노인들이 활기차게 생활하며 수명, 특히 건강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일들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시니어클럽이 정부 공적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에게는 노인들의 삶을 살피고 지원하는 일에 대한 10여 년의 경험이 있었다. 내가 다니는 성당에서는 어르신 성경 대학을 운영하며 매주 신앙강좌와 급식 봉사, 성지순례를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봉사자로 활동하며 노인의 특성과 성향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도 제법 몸에 익혔으며, 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며 이끌어야 하는지도 나름 터득했다. 그 경험과 보람은 내 삶의 자리에서 늘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심리적 안정감과 은총의 느낌마저 받고 있었다. 사람을 상대하는 설문조사원으로 일하기는 어렵겠지만 오히려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고 적합하겠다고 판단하며 지원했는데, 고맙게도 합격 통보를 받았다.

채용 과정을 안내받고 지원서를 낸 후, 면접을 보고 합격 소식을 듣는 일련의 과정에서 효자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업무능력, 대민응대와 친절함에 놀랐고 많이 배웠다. 대면 교육과 사이버 강의와 평가 등 설문조사원의 일을 배워가는 과정은 늘 새로웠다. 개인정보보호 등 경험하지 못했던 몇몇 분야를 배울 때는 막연했던 개념들이 이제 현실에서 지켜야 하는 일이라는 느낌에 중요함을 새기기도 했다. ‘나도 저런 모습으로 하면 될 거야.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해야지!’ 시니어클럽에서 진행한 충실한 교육 덕분에 설문을 시작할 즈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제법 생겼다.

나는 전주효자시니어클럽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마음에 품고 3년째 일하는 제1기 설문조사원이다. 설문조사는 전주시의 노인복지과와 연계되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 전주시에서 설계한 내용으로 대면 상담 방식 조사를 통해 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세부 내용은 주거, 건강, 생활 여건, 노쇠 평가, 우울감 등 외형적 생활과 심리상태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삶 전반에 걸친 내용이다. 설문조사원은 2인 1조가 되어 하루 세 시간씩, 주 15시간, 한 달 60시간을 기본으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다. 지금까지 진행한 설문 대상은 독거 어르신, 75세 이상과 75세 도래 어르신, 65세 도래 어르신들 설문을 했고, 전주시 보건소의 계획에 따라 치매 예방 설문조사도 했다. 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참여자들의 시니어클럽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의견도 세세한 설문 상담을 통해 센터 운영의 기초자료로 수집하기도 한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먼저 대상자와 전화 통화를 해서 면담 약속을 해야 하는데 여기가 첫째 난관이다.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낯선 전화를 잘 받지 않아서다. 몇 번씩 전화를 걸거나 미리 안내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다. “왜 우리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자식들의 의심스러워하는 전화도 여러 차례 받았다. 연락이 안 되면 무작정 주소지로 찾아가기도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된 주소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사를 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웃집에 물어보아도 안 되면 주민자치센터 통합돌봄 담당자를 찾아가 사정을 알리고 추적해서 해결한다.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한결같이 친절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분들의 친절과 도움에 감사한 마음이다.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되어도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 선뜻 마음이 열리지 않아 망설이는 이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며 따지는 이도 있다. 어르신들의 형편을 살펴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일도 간단치 않다. 다른 대상자와 겹치지 않아야 하고 이동 동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년의 인자함과 고집을 일상적으로 마주한다. 고집스러운 항의성 대화도 있지만 또 다른 이들의 친절하고 인자한 말과 따뜻한 마음에 불편했던 마음이 금세 풀리고 위로받는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설문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꾸준한 설득에도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면 아쉽더라도 정중히 인사하고 설문 거부로 종결한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휴대하고 2인 1조로 주거지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도 진행한다.

수기를 쓰면서 많은 사람과의 생생한 만남이 어제 일처럼 스쳐 지나간다. 설문조사원 1년 차 겨울에 만났던 75세가 넘는 여성이 떠오른다. 파트너와 함께 집을 찾았더니 남편은 병으로 걷지 못하며 추위 때문인지 이불을 둘러쓰고 방 한쪽 구석에 요강을 옆에 놓고 앉아 있었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 집을 찾아올 수 없어 혼자서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40대 딸은 무엇을 할 수도 없어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허리를 다쳐서 앉은걸음을 하는 어머니가 좁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다. 어질러진 물건들, 정리되지 않은 집 안은 냄새가 진동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말문이 막혔다.

이야기라도 들어줘야겠다 싶어 차분히 앉아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는 남편보다 당신보다 딸이 늘 걱정이라며 한숨과 푸념을 땅이 꺼지도록 쏟아냈다.

들어보니 이미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세 사람이 따로 떨어져 수용시설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몸이 불편한 가족들이 서로가 안타까워서 떨어지지도 못할 형편인가 보다. 삶의 기본인 의식주의 해결이 이토록 어려운 이웃이 있음에 가슴이 아팠다. 설문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을 펴펴 쏟았다. 시니어클럽으로 돌아와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도움 방법이 없을까 설명을 드렸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끔 궁금하고 생각이 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 나름으로 불행하다.” 레흐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 이렇게 자주 떠오르며 절절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

효자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참여자와의 만남도 생각한다. 녀너지 못한 살림에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이 43년 동안 누워서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에도 세 남매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지금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일하는 73세 어르신을 만났을 때는 그 한없는 사랑과 강인한 생활력에 절로 고개가 숙어지고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어깨를 감싸 안았더니,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참여자들과의 만남은 늘 기쁘고 설렌다. 통화도 쉽게 연결되고 협조적이며 친절하게 질문에 응답해 준다. 설문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직접 농사지은 부추이니 먹어보라며 한 바구니 정성껏 싸 주는 마음 따뜻한 이도 있다. 설문을 하다 보면 정부에 대한 불만을 끝없이 쏟아내는 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이, 녀너지는 않아도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 혼자 지내면서도 정갈함과 깨끗함을 잃지 않는 어르신들...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고 겪었다.

효자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참여자 모두가 빠트리지 않는 말은 일자리에 대한 감사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고 갈 곳이 있어 감사하고 행복하며 매달 일하고 받는 수당도 적지 않아 노년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신체적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어쩌면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응답이 일하고 있는 지금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 느껴져 나도 모르게 감사의 미소가 지어진다.

설문조사원으로 일하고부터 삶을 대하는 내 생각과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기쁘게 시작한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제법 넓고 풍부해졌다.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졌으며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런 변화를 가족들도 지지하고 응원해 준다. 이 또한 감사할 일이고 축복이라 여겨져 행복하다. 꿈과 지향이 있으면 비록 노년의 삶이라도 풍요롭고 의미가 충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일자리는 꿈과 지향을 일구고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효자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을 앞장서 이끌고 있다. 일하고 싶어 하는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작은 행복을 만날 기회가 효자시니어클럽에 있다. 효자시니어클럽 외에도 관심을 가지면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주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신적·신체적 건강도 챙기고 소박하지만 규칙적이고 목표가 있는 일상을 꾸려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년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곳이 지상의 낙원 아닐까?

어제도 오늘도 같은 듯 다른 듯, 그렇지만 같은 날은 하루도 없다. 매일 그날의 웃으로 갈아입는 새날들. 무심코 받지만, 선물 같은 날들에 거듭 감사하다. 행복한 마음으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효자시니어클럽 운영진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일자리 참여자들에게도 파이팅을 외친다. 모두를 응원하며 오늘 만나야 할 새로운 사람들과 설레는 만남을 기대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터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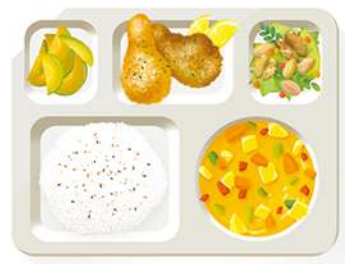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 최민선

사회서비스형-늘봄학교지원사업단



내 나이 올해 62세다. 나는 50대 초반에 그 중2병 사춘기도 이긴다는 갱년기가 갑자기 찾아왔다. 밤새 잠을 못 자는가 하면 우울증과 무기력증, 알 수 없는 통증들에 시달려야만 했다. 여기저기 한방, 양방을 투어하다시피 해도 병원에서는 별다른 병명은 없고 신경성 질환이거나 갱년기라고 했다.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다 보니 대인 기피증도 생겨서 점점 밖에도 못 나가고 집안에서만 몇 년을 두문불출하고 있던 어느 날 혼자 살고 계시던 시어머님이 치매와 노환으로 쓰러지셨다. 내가 큰머느리여서 부득이 우리 집으로 모셔야만 했다. 어머니는 치매도 심하시고 침상에서 누워 계셨기 때문에 대소변을 내가 직접 받아내며 식사도 떠서 먹여 드려야 했다. 그나마 소일거리도 생기고 함께 동거하며 이야기도 하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몸의 고통도 조금씩 사그라지는 듯하였다. 바쁘게 살다 보니 조금씩 우울증도 개선되는 듯 잠도 잘 자고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의 미래의 자화상을 보는 듯해 때로는 서글퍼지기도 하고 노년의 인생이 불쌍하고 측은하여 지극정성을 다하여 모셨다. 그러나 노인들은 '밤새 안녕.'이라고 어느 가을날 홀연히 나의 곁을 떠나가셨다. 그나마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아프니 인지상정이라고 마음을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돌아가시니 나에게 큰 상실감이 왔다. 다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며 병원을 한 달에도 몇 번씩 찾아가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춘천지혜의숲'이란 곳을 알게 되었다.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아니고 하루 3시간 일하는 것이니 돈도 벌고 사회생활 겸 봉사한다 생각하고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던 내가 할 수 있을까?’하고 오래 망설였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과거 어린이집에서 조금 일한 경험이 있어 유치원 돌봄 파트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합격하였다고 문자메시지가 왔다. 과거시험에 붙은 양 그날은 하루 종일 기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남편도 축하해 주고 초등학교 손녀딸도 “할머니 축하해요.”라고 카톡으로 축하해 주니 세상만사가 다 내 손에 있는 듯 기뻐했다.

3월부터 일이 시작되었는데 첫날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참석하였다. 함께 일하게 된 다섯 명이 모두 모여 원감 선생님께서부터 할 일을 설명 듣고 조를 편성하여 잔뜩 긴장해서 원생들과 첫 상면을 하게 되었다. 준비된 점심을 식판에 담아 원생들이 맛있는 점심을 먹게 배식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 중 주된 일이었다. 그리고 배식을 다 마치고 식사가 마무리되면 식탁과 바닥 청소 등 마무리 뒷정리를 하고 일과를 마치게 된다. 안 하던 일을 하니 덤기도 하고, 아이들은 시끌벅적하고, 처음 유치원에 온 아이들은 환경과 분위기가 생소하여 울고, 떼쓰는 아이에 밥 안 먹겠다고 식판을 뒤집어 쏘는 아이에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그러나 원아들이 손주 같아서 얼마나 귀엽고 예쁘지 모르겠다. 자기 입맛에 맞는 식사가 나오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식판을 들고 와서 “할머니! 저 계란찜 좀 더 주세요.”라고 말하고 “여기 있다. 많이 먹어요.” 하면서 더 주면 “감사합니다.”라며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면서 가는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한지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한다.

직장인들은 월요일이라 하는데 나는 월요일 출근에 병이 치유되는 것 같다. 주말이면 집에서 심심하고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월요일만 되면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오히려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안 낳거나 한 명만 낳는 이유가 맞벌이나 육아 등 경제적 문제로 제일 힘들어해서 저출산 시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같이 손주, 손녀를 키워본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국가의 복지정책이 잘 되어서 젊은 세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내가 하는 이런 돌보미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시니어가 참여하는 복지정책이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우리가 일하는 팀은 모두 다섯 명이다. 이 중 한 분은 피아노를 잘 치시고, 또 한 분은 하모니카 강사를 한 경험이 있는 일류 하모니카 연주자시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노인복지관에서 익힌 기타를 너무 잘 치신다. 우연한 기회에 하모니카를 부시는 분이 원생들에게 하모니카 연주를 몇 곡 들려주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 유치원 교사가 “원생들을 위해 연주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하모니카 선생님이 “우리 다섯 명이 합동 연주회를 해주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도전하기로 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탬버린, 캐스터네츠 이렇게 각자 악기를 담당하고 일과를 마친 뒤 하루에 20분씩 연습에 연습을 통해서 ‘유치원에 갑니다’, ‘수박파티’ 등 동요 4곡을 준비해서 원생들에게 재능 기부를 하게 되었다. 우리가 합주하고 원생들은 노래를 부르며 너무 멋진 공연이 되었다. 원생들은 물론 유치원 교사들도 깜짝 놀라며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정말 감동이라고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원생들이 앙코르를 외치며 더 해달라고 해서 하모니카 선생이 독주로 2곡을 더 불러주고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 유치원 측에서 “12월 크리스마스 때도 한 번 더 부탁한다.” 해서 요즈음 우리는 하모니카를 모두 구매해서 하모니카 선생님의 지도하에 ‘징글벨’ 등 성탄 축하를 연주하기 위해서 일을 마치고 더위도 물리치고 모두 열심히 배우고 있다.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고 보람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올해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마구 치솟는 물가에 장 보기도 두려운데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일거양득이라 했는가? 돈도 벌고 보람도 찾고 건강도 유지한다. 더군다나 병원에 안 가니 병원비도 안 들어가서 좋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느끼고 매일 아침이면 출근해야 하니 아침마다 벅찬 하루하루를 맞는 인생의 맛도 느끼고 산다.

우리 다섯 명에겐 요즘 이상한 병이 생겼다. 내년에도 우리가 모두 건강하게 같이 또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몽상이라고나 할까? 나도 꼭 그렇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해 본다. 이제 벌써 계약기간이 반이 지나가 일할 수 있는 남은 기간도 5개월이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눈 깜짝할 정도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또 성실히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신 ‘춘천지혜의숲’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거의 60대 초반에서 65세 정도면 정년퇴직들을 하고 가정에서만 생활하는데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되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노후 대책도 완벽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식에게 손 내밀 처지도 못 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야말로 일도 하고,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며, 내 건강이 허락된다면 5년, 10년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일'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



김포시니어클럽 | 김흥기
사회서비스형-공공시설지원



초등학교에서 40년 봉직 후 초등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하였다. 평생을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왔으니, 퇴임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재능 기부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로 다짐하였다. 2021년부터 안전 보행 교육 서포터즈를 시작으로 3년째 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는 치매 예방 교육, 웰다잉, 환경교육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공공시설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소식을 듣게 되었고 봉사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하신 모든 분이 잘해 내실 것이라 믿지만, 누구보다도 저는 이 일에 적임자이며 무엇보다도 잘해 낼 자신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달라는 면접관님 앞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토박토박 드렸던 말씀이었다.

그랬다. 하루 3시간이라는 점과, 하던 봉사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 용돈도 보탬 수 있다는 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 매력이 끌려 지원하게 되었다. 결국 합격 통지를 받고 선발되었고, 1년간 일할 사업장 배정 발표를 하는 날이 되었다.

우리의 사업단은 '공공시설지원'으로 우체국, 복지관, 문화원 등 공공시설 이용 민원인들의 안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고 알고 있었다. '나도 그 어느 한 곳에 배정되겠지' 하면서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흥기 어르신, 하성에 있는 김포 한강 푸드뱅크입니다. 교통편도 불편하고 수요처 특성상 힘든 일도 하셔야 하는 곳인데,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담당 복지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악!” 하는 소리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지원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하성면은 김포시에서 버스를 30분 이상 타고 가야 하고, 버스 노선도 30~40분 배차의 노선 한 개밖에 없는 험지인 데다 힘든 일까지 해야 한다면 그런 곳을 왜 사업장으로 지정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했던 모양이다. 위로의 소리이자 자기들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안도의 소리의 합성어로 들렸다. 순간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집에서 걷거나 전철로 출근하고, 끝나면 복지관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따뜻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그런 것이 내가 그런 그림이었다. ‘집 근처에도 많은 사업체가 있는데, 나는 왜 그 먼 곳까지 그것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비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이걸 불공평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닐까?’, ‘하성면? 푸드뱅크?’, ‘흐흐흐! 하성면과는 인연이 있는가 보네. 푸드뱅크면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곳 아니야? 누군가가 가야 한다면 내가 갈 수도 있지.’

교사 시절 3년간 근무를 했던 좋은 추억의 장소이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내 성격에 맞는 일이며, 나의 좌우명인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와 맞아떨어지면서 금방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졌다. 사실 반대한다고 사업장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으니, 포기를 했다는 게 맞는 말이겠지. 그렇게 올해 일자리는 시작이 되었다.

설 연휴가 끝난 2월 13일이 첫 출근일이었다. 버스 앱을 통해 버스 시간을 검색하고 근무 시간인 9시 30분보다 좀 일찍 도착하였다. 사무실 앞에는 ‘푸드뱅크’라고 쓰인 탑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사무실에는 소장, 팀장, 복지사 모두 세 분이 있으셨고, 그 외에 대표와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일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했다.

이곳 푸드뱅크는 작년까지는 지자체의 지원이 전혀 없었고,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시청이 지원금을 약간 줘서 팀장과 복지사 한 분에게는 급여가 지급되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무료 자원봉사자라 하셨다. 특히 대표님은 개신교 목사님이신데, 후원금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부족한 운영비를 매달 사비로 보충하고 계신다고 했다. 소장님과 자원봉사자 몇 분들은 십여 년이 넘도록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런 훌륭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데는 숨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함께 섞여 있음을 알았다.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보수를 받고 일을 한다는 사실에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푸드뱅크란 개인사업자나 기업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배부하는 나눔의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사업체에 배정되기 전 담당 복지사님께서 “내근만을 하도록 사업체에 당부드려 놓았으니, 어르신은 사무실 안에서만 근무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푸드뱅크에 배정된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푸드뱅크에 관해서 나름대로 사전 상식을 갖추었다. 사업소에 가면 '물품 수거, 소분 운반, 배분' 등의 보조를 하게 될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관심이 간 건, 이용자와 직접 부딪히는 '물품배분' 일이었다. 그런데 내근이라 해서 주로 수거해 온 물품들을 내리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소분하는 일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팀장과의 첫 미팅에서 “어르신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실은 사무실에서는 거의 하실 일이 없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사무실 근무만을 부탁하셔서...”라고 하셨다. “제가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도움이 되실까요?”라고 하자, “물품 배분 현장에 일손이 필요한데요.”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일단 함께 나가서 도와드려 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첫날부터 배분 현장에 나가서 이용자들을 만나는 게 나의 주 업무가 되었다. 결국 내가 원하던 업무를 자연스럽게 맡게 된 셈이다. 교사 시절부터 소외계층이나 특수 장애인들에게는 유독 마음이 쏠리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었던 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자존감, 자격지심, 피해의식, 대인기피증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와의 관계를 원했던 것이다.

푸드뱅크에서는 아침 시간이 제일 분주하고 바쁜 시간이다. 출근하자마자 수거해 온 물품들을 차에서 내려서 정리하고, 그날 배분해야 할 물품들을 탑차에 싣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물품을 싣고 나면 나는 소장님의 탑차에 승차하여 현장으로 출발한다.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은 이용자들의 명단에 자필 서명을 받는 단순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시간만 채우고 급여를 받는 단순한 일인 것은 싫다. 뭔가 더 의미가 있고 값진 일이 되기를 원한다.

1주일에 한 번씩 잠깐 몇 초의 만남이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내 욕심이었다. 나와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다.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친절한 말투, 다정다감한 표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외국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용자들에게는 혹시라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부정적 견해나,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고 싶었다. 대화 상대가 없어 외로운 분들에게는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는 안부를 물어봐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이용자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동안 밝아진 이용자들의 표정과 먼저 말을 건네주는 그들을 보면서 내 기대가 채워져 가는 걸 알았다.

우리는 서로 행복의 웃음을 교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용자들을 대하다 보니 내가 하는 일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근무한 지 한 달여 지난 3월 중순 무렵 사무실을 구래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지식산업센터 12층으로 옮기게 되었다. 매일 아침 버스 시간을 검색하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더구나 구래역까지는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이용하여 이동하게 되니, 교통비도 아낄 수 있어 내겐 훨씬 편한 조건의 출퇴근길이 되었다. 하지만 푸드뱅크 차원에서는 물품들을 12층까지 올렸다 내려오기를 반복해야 하니 훨씬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함께 근무하는 분들은 별다른 불편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사업장 이전 후 이용자들과의 행복한 만남은 뒤로 하고 사무실에서 빵을 개인에게 돌아갈 양만큼 소분하는 일을 내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었다. “저에게 공간 열쇠를 넘겨주신 겁니까? 영광입니다.”라며 자연스럽게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셈이다.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이용자와 만나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빵 소분 작업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다.

빵을 수거해 오는 업체는 브랜드 제과점부터 개인 제과점까지 다양한 만큼 빵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고 많다. 내가 제과점에 가서 사 먹어본 빵의 종류는 3~4가지를 넘지 못한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빵이 맛있는지를 잘 모르고, 비싸서 못 사 먹었을 것이다. 그 많은 종류의 빵들은 개인별 호불호가 갈린다. 이용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때, ‘나는 튀긴 빵은 안 먹는다, 이걸 너무 달아서 안 된다, 이런 빵 좀 더 주면 안 되냐.’ 등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내가 담아 준 빵이 이용자들의 손에 넘어갔을 때 싫어하는 빵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배려해 주고 싶었다. 하나의 방법은 빵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골고루 담아주는 일이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개수나 양을 똑같이 하려고 애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빵이 더 많다고 느껴서 속상한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다. 빵을 담으면서 이용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 봉투의 빵은 누가 가져갈까? 좋아하실까? 보관은 잘하면서 드실까? 기온이 갑자기 오르면서 고민이 하나 늘어났다. 빵 중에는 샌드위치 종류, 소스가 들어간 빵, 채소가 들어있는 빵 등 더운 날씨에 상하기 쉬운 빵들이 꽤 많이 있었다. 푸드뱅크에 들어올 때 이미 만든 지 하루 이틀이 지난 빵들인데, 이곳에서 하루 정도 더 머물고 이용자들 손에서 또 머물다 보면 변질하거나 상할 수 있어서 고민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빵은 과감하게 빼내서 냉동실에서 얼렸다. 얼린 빵을 아침에 별도로 챙겨가서, 공지하고 원하는 분들에게만 추가로 나누어 주기로 했다. 물론 나누어 주면서 보관법, 드시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기로 했다. 그런 덕분인지 아직 변질된 빵을 먹었다거나 탈이 났다는 소식은 한 건도 없었다. 일 년 내내 탈 없이 잘 드시도록 신경을 쓸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어른이다. 더구나 훈장님(초등학교 교장)이었다는 걸 모두 알고 있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쓴다. 다행히 모든 분이 나를 어른으로 잘 대해주고, 종종 조언을 요청하기도 한다. 직원들 간 약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해 주기도 했고, 생활이나 업무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올 4월과 5월에는 김포시청에서 시행하는 점검과 광역(경기도) 점검단의 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 주로 2023~2024년의 운영 전반이 점검 대상이라 했다. 특히 2023년의 운영 점검이 주 대상이라 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정식 직원도 없이 운영된 터라, 점검 지침에 의해 비추어 보면 난감하다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나는 교감이나 교장으로 근무할 때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많이 진행해 봤고, 감사, 평가, 점검 등에서 수검자 또는 피수검자로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약간의 조언과 위로를 줄 수 있었다. 그 결과 좋은 평으로 점검받았고, 점검자를 따로 마련하고 자료를 미리 비치해 놓은 곳은 유일하다는 칭찬까지 받았다 한다. 학교에서 학교평가나 감사를 받을 때 성의껏 수검장을 꾸민 경험은 약간 귀찮았더니 점검단의 좋은 평을 받은 것 같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을 하면서 얻게 된 소소한 행복들이다.

사무실에서 주로 일을 하다가 가끔 물품 배분 현장에 나가서 지원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어릴 적 소풍을 갈 때 들었던 그런 기분이 든다. 한동안 보지 못해 궁금했던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하면 맨 먼저 차에서 내려 큰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이용자들도 반갑다며 화답해 준다. “보고 싶었소.”라는 이용자의 말에는 나도 모르게 울컥한다. 가끔 얼굴이 안 보이는 어르신이 있을 때는 궁금하며 걱정이 된다. 대부분 별 탈 없이 잘 나오고 계셔서 다행이다. 몇 명의 이용자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큰일이 없기를 기도한다.

내가 하는 노인일자리는 사회 우수 경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으로 그중 ‘공공시설지원’ 사업단이다. 60세 이상의 나이면 누구나 쉽게 해낼 수 있는 단순한 일이다. 하루 3시간씩 한 달 20일만 일하면, 70만 원이 넘는 급여에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의료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 은퇴한 노인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우리 사업단에는 56명의 노인이 각자 다른 사업장에서 노익장을 뽐내며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하려고 애쓰고 있다. 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냉장고와 냉동고로 꽉 채워지고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 문은 굳게 닫혀 있는 5평 남짓의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수거해 온 빵을 소분하는 일에 충실하며 이마의 땀을 훔치고 있다. 내가 하는 사소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 있게 쓰인다면 그 이상 뭘 바라겠는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나는 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이 지속되기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

‘김포신문 2024년 3월 12일 자 노년 시대’란에, <일하는 노년이 아름답다 김흥기 시니어 김포한강푸드뱅크>로 내가 소개된 적이 있다. 그때 인터뷰했던 기사 내용을 요약 소개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 나는 가진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오로지 내 건강이나 챙기고 취미생활 하는 곳에만 사용한다면 너무 이기적이고 아깝지 않을까요? 내 삶이 기쁨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푸드뱅크에서 만난 사용자분들 중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있을까요?

- 우리 푸드뱅크에서 나눔을 주는 분들이 250여 명 됩니다. 대부분 저소득 노인층인데, 그중에서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분들을 대할 때는 특별히 신경을 드립니다. 웬지 기가 죽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으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노인이란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 옛날 대가족제도 하에서의 노인은 위엄 있는 가장이자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었죠. 핵가족화,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꼰대.’라며 비하의 대상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요. 나는 이런 시각이 불편합니다. 노인은 젊은 세대에게 모범을 보이며 사회에 도움을 주는 선배 시민의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환의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다시 자야 되나?



장려상

광양시니어클럽 | 박준재

사회서비스형-시니어홍보기자단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고 일어나니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잘못 잤나?’, ‘다시 자야 하나?...’ 늘어나는 흰머리, 삐죽거리며 나오기 시작하는 눈썹들이 아직도 생소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양시니어클럽 시니어홍보기자단’ 박준재라고 합니다. 저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위치추적관제센터 등에서 근무하다 5년 6개월 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비행청소년 지도 분야 등에서 일하기 위해 나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고 싶어 단기 운전 알바, 서무 잡무 등에 3~4차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노인이라는 선입견으로 부상 우려, 근로 성과 등을 고려했는지 기회가 오지 않았습다. 그리고 광양이라는 도시 특성이 구직하려면 기술과 관련된 직종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없으니 때는 이미 늦었지요. 몇 번 퇴짜를 맞으니 심드렁해지고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2023년 12월 말 처음으로 광양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 사업인 ‘시니어홍보기자단’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목적 없이 배회하는 걸음과 목적 있는 걸음걸이는 차이가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목적 없는 걸음은 보폭이 좁고 발을 내딛는 속도가 느립니다. 어깻죽지 각도는 앞으로 모여 예각이 됩니다. 구부정해지는 거지요. 반면에 목적을 가진 걸음걸이는 힘차고 어깻죽지가 둔각이 됩니다. 가슴이 퍼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쪽 어디선가 힘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샀습니다. 노인은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재 인터뷰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녀야 할 것 같아 구두도 편한 놈으로 샀습니다. 모두 당근에서 싸게 샀습니다. 당근도 퇴직하고서야 알았습니다.

다음엔 퇴직할 때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한쪽에 처박아 뒀던 인생 신조를 다시 꺼냈습니다. 현직에서 한시도 잊지 않았던 신조였습니다. 새삼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뒤통수를 볼 수 없다. 반면에 아무리 멍청해도 눈만 있으면 내 뒤통수를 볼 수 있다. 그러니 잔머리 쓰지 말라. ② 이기심은 날 찌르는 창이 되어 돌아오지만, 배려는 날 보호해 주는 갑옷이 된다. ③ 일 잘한다는 소리보다,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어라.”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도 자식에게 한 번씩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양시니어클럽 홍보기자단이 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서류 작성을 적지 않게 했지만, 기사 작성은 또 다른 문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 ‘취재 기사 주제 선정’, ‘자료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기사 작성’은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고맙게도 광양시니어클럽에서 해당 교과과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교육내용이 너무나 알찼습니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대체로 직장 실무교육은 대충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전문가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취재 및 기사 작성 기법 7회 차, 사진과 영상 다루기 15회 차 교육 정말 감사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니어클럽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수많은 노인네들 뒤통사끼리를 하다 보면 얼굴 한번 찌푸릴 만도 한데, 사무실 방문 때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밝게 반겨주니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기사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1건을 목표로 합니다. 보통 홍보성 기사를 주로 씁니다. 간혹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한마디 하는 기사도 썼습니다. 여기서 잠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광양시니어신문’을 검색하셔서 한번 둘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자단이 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간판과 삼일절’에서는 여수시 진남관 앞 로터리 이순신 장군 동상 뒤에서 일본어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가게 앞에 수많은 젊은이가 길게 줄 서 있는 장면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도박 이야기’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정보기술 조직이 수천 개 도박 사이트를 한국에 팔아

불법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온라인에 코를 박고 게임에 빠진 젊은이들이 안타까워 도박의 폐해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여도지죄와 이강인 선수’는 2024년 초 축구 아시안컵 4강 시합을 앞두고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때렸다는 뉴스가 전국적 공분을 얻어 이강인 선수를 매도했을 때 썼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되지만, 이강인 선수는 젊은 우리의 보배니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한마디 했습니다.

1590년대 임진왜란에는 수많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양 현감 어영담’은 무예와 공격이 다른 영웅들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데도 현재 받고 있는 대접이 소홀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지금도 우리들의 영웅 탄생과 성장 그리고 등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를 쓰고 게재되면 제일 먼저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냅니다. 기쁜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적극 응원해 주고 기사 관점에 대해서도 토론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며느리는 말이라도 “아버님, 대단하세요! 나중에 손자, 손녀가 글자를 깨우치면 아버님 기사를 꼭 읽어보게 시킬게요.”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이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광양시니어신문 덕분입니다.

하나,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안 게임에서 미얀마국의 서포터즈도 활동했습니다. 당시 부산시청에 신청하여 성사되었고, 경기장 정리와 사회봉사 집행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독재정권으로 최빈국에 속했으나, 선수들은 하나같이 순수했고, 우리의 활동에 대해 매우 감사해 하던 모습이 기억 납니다. 이 대회에서 미얀마가 거둔 성적은 금1, 은5, 동6개로

종합순위 26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장은 스디 스마인 장군이었는데, 부산시청을 통해 서포터즈 임원진을 자신의 나라로 초대하였지만, 노생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후회가 됩니다.

..



둘, 2003년 동티모르로 장난감과 축구공 두 트럭을 보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서 나무가 한 그루뿐인 황량한 벌판에서 동티모르 소년 한 명이 초라한 형색으로 먼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진을 봤습니다.

동티모르는 UN의 감시하에 2002년 간신히 독립된 나라로 외침, 식민지, 내전 등을 겪은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순간 소년에 대한 연민과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처지를 경험한바 장난감을 보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나라에는 평화유지군으로 상륙수병대가 파병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봉사명명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몇 달간 장난감 수집/수리와 새 장난감과 축구공 기부를 통해 두 트럭 분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는 보내는 방법이 난감했습니다. 항공편으로 보내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줄 수준이었습니니다.


셋, 2013년 5월 5일.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00소년원에서 원생 단동 사진이 발생했습니다. 80여명 집단 패싸움, 경찰 400명 투입. 이 당시 언론 보도 내용으로 모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날은 어린이날인데 오후 5시경 비상소집에 응조했습니다. 일주일전 소규모 집단싸움이 있었지만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중문을 열고 들어가니 산이 떠나갈듯한 원생들의 고탍소리 욱실 그리고 운동장에서 경찰관들이 폭동제압 자세훈련을 취하고 있어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내가 할 일을 끊임없이 생활관으로 올라가서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주위를 살핍니다. 한 공과 원생 40여명이 생활관에서 기물을 다 때려 부시고, 기동타격대와 대치를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온갖 쌍욕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혈압이 오를 내도 올라 이미 태이저 진을 발사하고, 진압 작전을 막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때 만약 경찰관들이 투입하면 원생 몇 명의 머리가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피해보고에서 인적사항과 개인정보는 빼고, 기동타격대에만 유익하도록 신인

넷, 영광스럽게도 위치추적중앙관제 초대 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 전자감동이란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무사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치추적 초창기 생각납니다. 장치 태깅도 도장으로 구하고 전자장치를 센터백을 수백번씩 이가 장치의



직원들의 열정이 성능점검을 위해 달려가 양해를 발목에 부착하고 차가, 한강물에 띄우기를 확인했고,

또 보름이상 발목에 차고 생활하면서 착용감을 직접 확인 해보는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걸 다시 꺼낼 줄 몰랐습니다. 저의 퇴임사입니다. 현직에서 근무할 때 가장 보람 있었던 4가지입니다.

첫째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였던 미얀마의 서포터즈를 조직해서 성심을 다해 활동했던 내용입니다.

둘째는 상록수 부대가 파병됐던 동티모르 소년들을 위해 장난감과 축구공 두 트럭을 보낸 것입니다. 해군함대로 물품을 보내기 위해 국방부와 함대사령부까지 찾아간 생각이 납니다.

셋째 모 소년원에서 난동이 있었을 때 경찰기동대가 투입되면 원생들이 다칠 것이 뻔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제가 혼자서 들어가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한 것입니다.

넷째 우리나라에 전자발찌가 도입됐을 때 관제센터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아득한 얘기가 되어 생각조차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꺼낸 것은 저의 경력에 자랑스럽게 한 줄 추가할 내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광양시니어신문 취재기자 박준재'입니다. 감사하게도 주위로부터 많은 긍정적 평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식들과 하나의 주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과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늘 힘을 줍니다.

자식들은 늘 제 행동의 지표가 됩니다. 광양시니어신문 취재기자로써 행동하거나 기사를 쓸 때도 자식들에게 늘 부끄럼이 없도록 처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인지 예전에는 제가 자식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그들의 눈치를 보네요.

또 앞으로 쓰고 싶은 기사가 저에게 힘을 줍니다. 요즘 흔하게 벌어지는 '사기 범죄와 노인'이 광양에서는 어떤 양상을 띠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도를 넘어선 악질 민원으로 아까운 젊은이들이 세상을 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질 민원의 폐해와 사회적 대응'에 접근해 보려 합니다.

철부지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저지른 학교폭력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천형(天刑)과 같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이 무서운 이유'를 기사로 작성해 보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마음먹은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비록 아직은 아마추어 기자 초년병에 불과한지라 스스로 생각해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숙달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구두를 신고 취재하러 갑니다. <끝>

감사한 노년, 담당한 나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 김소순
공익활동-지역사회환경개선봉사



대전에서 살다가 공주 정안면 산골짜기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과 토끼 같은 아이들 4명을 낳고 내 땅은 아니어도 농사지며 살았는데, 37세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12세, 10세, 8세, 6세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배고파 우는 아이들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든 먹고살아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주저앉으면 우리 아이들 4명도 같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아서 억척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일터가 집을 떠나 먼 곳이면 아이들 떼어 놓고도 일을 나갔고, 품팔이가 있으면 악착같이 찾아서 일했고, 비탈진 밤나무 산에 몇백 미터씩 약을 치는 위험한 일도 살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험한 일을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찾아 타지(他地)로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 옆에 많이 있어 주지도 못하고 아이들끼리 지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 아이들을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난 지 11년 만에 생때같은 막내아들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나머지 세 아이를 두고 절망하거나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들을 죽게 방치했던 아이들의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불쌍했습니다. 내 삶을 미움과 원망으로 채울 수 없기에 그 아이들과 부모들도 용서했습니다. 그렇지만 17세 그 예쁜 모습의 내 아들은 어디 있나,

보고 싶은 마음을 지금까지 가슴에만 묻어두고 살고 있습니다.

고된 삶을 살아서 그런지 나처럼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고 싶어서 나물 뜯어서 말린 것도 이웃과 나누고, 마을 일이나 행사에도 일손이 필요하면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산골짜기에 살다 보니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고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냥 놓고 있을 수 없어서 폐지라도 주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정안면 행정복지센터에 갔다가 대한노인회와 연결이 되어 마을 청소하는 일자리를 얻게 돼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기초생계 수급을 신청해 보라는 이장님의 권유도 있었고, 73세에 무슨 일을 하냐고 하는 분도 있었지만 아직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기에 노인일자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남들 보기엔 나이 들어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흉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좋고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당당하고 좋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나 마을 청소하는 노인일자리 하고 있어.'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거리가 깨끗해져서 좋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오니 무엇이랴도 사람들에게 도움 준 것 같아 뿌듯하고 자랑스롭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당당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큰아들에게 "우리, 그전보다는 부자 아니냐...! 그전에는 고기도 못 먹었는데 이젠 먹고 싶으면 사 먹잖아." 하면, 아들이 "그러, 엄마 부자야! 하하하." 하며 웃고 삽니다.

불빛 하나 가슴에 찾아와



인천서구가좌노인문화센터 | 이인기
사회서비스형-보행로정보수집전문가



막다른 골목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은퇴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부정적인 변화가 온몸을 휘감아 온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많은 세월을 직장에 몸담으며 여러 경험을 쌓았다. 그 속에서의 성취와 보람은 나의 자부심이 되었고 이를 통해 나를 정의해 왔다. 하지만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나이에 딱혀 직업을 찾을 수 없었고 점차 사회적인 활동이 줄어들자 무기력함과 정서적 불안감이 제일 먼저 다가왔다. 사회와의 연결 통로가 단절되면서 나도 모르게 막막함과 상실감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은퇴하고 곧바로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만날 친구도 없고 주변에 누구 하나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도 없었다. 하루는 점점 길어졌고 일주일은 점점 짧아졌다. 마치 젖은 어깨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비가 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나의 인생이 풍요로운 강에서 시작해 메마른 사막으로 흘러가는 강줄기 같다고 생각되던 초겨울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참여하게 된 노인일자리사업은 나에게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내가 참여한 노인일자리는 2023년에 50여 명 정도의 참여자가 활동했지만 사업 성과가 좋아 올해에는 500명이 넘는 수준으로 작년 대비 10배나 확대된 사회서비스형 보행로정보수집전문가 분야이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이나 관공서 등의 건물을 출입할 수 있는 보행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보행 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돕는 일이다. 참여자들은 엘비에스테크에서 개발한 로드 스캐너라는 앱을 활용해 출입문과 진입로 등의 사진을 찍어 건물 접근성 정보를 등록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도 느끼게 되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날 회사 직원이 “이 사업은 복지 분야에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를 포용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표준을 개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부터 고령자, 임신부까지 모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구축하여 무장애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는 말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2인 1조로 활동 지역을 배정받을 때 센터 담당자가 안전하게 활동하라며 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 앱에 등록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을 살펴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 지금까지 나와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다. 건물 또는 상점의 출입문과 진입로, 건물 내부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정보를 사진으로 촬영해 앱에 등록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앱에 나오는 지도의 건물과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고 그 건물에 입점하여 있는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을 선택해 출입문의 폭이 1미터가 넘는지와 여닫이인지 미닫이인지 등 출입문의 형태 그리고 진입로가 계단인지 턱인지, 경사로가 있다면 완만한지 등을 꼼꼼하게 입력했다. 건물에 입점하여 있는 상점명이 없을 때는 상점명을 입력해서 건물 정보를 등록했고 상점명이 다른 경우나 폐점된 경우에는 오류 신고를 통해 지도 정보가 수정되도록 앱 관리자에게 요청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내가 보행 약자라면 어떤 사진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정확한 사진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신경을 썼다.

가끔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출입문이나 진입로의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상점주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뭘 신고하려고 그러냐?”, “불법주차 단속요원이나?”는 등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센터 담당자가 만들어 준 보행로정보수집전문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우리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라는 것, 보행 약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해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있어 그러한 오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나 또한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노인일자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분야도 있냐.”며 본인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출입문이나 진입로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했을 것 같다.”라며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하루는 길을 지나던 60대 후반의 남자가 “무엇 때문에 사진을 찍느냐.”고 묻길래 앱에 등록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장애인이거나 고령자 등이 사회 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을 한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더니 자기 가족 중에도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데 “이런 사전 정보가 있으면 음식점 같은 곳을 가는 데 아주 편할 것 같다.”면서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이런

분들과의 만남은 이 일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도록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보다도 이 일을 하면서 보다 더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동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드나들던 곳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장벽으로 다가왔을지 알게 되었다. 좁은 출입문과 오르기 어려운 계단, 턱 등이 그분들이 누려야 하는 이동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시려왔다. 하지만 이러한 앱 개발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들이 서비스되고 조금씩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머지않아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일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하루하루 보행로 정보들을 앱에 등록할 때마다 어두운 곳에 작은 불빛 하나를 밝히는 것 같았다. 단순히 보행로 정보만을 입력하는 물리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일을 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희망의 불빛이 나에게도 찾아온 것이다. 매일 출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매일 걷고 촬영을 하는 것이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보약이 된 것이다. 은퇴 후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며 걱정하던 가족들도 내가 노인일자리를 시작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에 기뻐했다. 한번은 집을 찾아온 딸이 “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어요. 웃는 모습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라며 안아주기도 했다. 나의 일상은 더욱 보람차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오늘은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생각하며 출근을 준비하고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즐거운 기대감에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았다.

나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찾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도 큰 위로가 되었다. 친구 하나 없던 삭막함에서 말동무가 생기고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마치 길었던 터널에서 빠져나와 빛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 “노인일자리라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묻는다면 “가슴속에 찾아온 불빛”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 정서적 탄력성의 회복과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느낌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윤 선생에게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도 늘 집 안에 틀어박혀 사회적 소외감이 들었다고 한다. 이를 걱정하던 지인이 노인일자리를 하도록 권유했고 이 일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게 된 것이 생활에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다며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또한 그동안 노인일자리에 대해 정부가 쓸데없는 곳에 세금을 퍼 준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직접 일을 해보니 자기 생각이 틀린 것 같으며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었다고 했다. 보행로 정보 수집이라는 일자리가 보행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면 노인일자리 역시 나처럼 사회의 원편으로 밀려난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주는 사업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고령사회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닐까? 이러한 사업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커다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말 잘 쉬셨습니까~?”

윤 선생의 반가운 목소리가 아침 햇살보다 더 반짝거린다. 이제 나의 하루는 더 이상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다. 아침은 즐거움으로 다가왔고 저녁은 내일의 설렘이 되었다. 나에게 보행로정보수집 전문가라는 일은 일자리의 개념을 넘어 내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긍심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지금 이 길 위에서 다시 찾아온 삶의 의미를 소중하게 경험하고 있다. 초점을 맞추고 출입문의 사진을 찍는다. 그 사진 속에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함께 찍히고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움이 있다



오산시니어클럽 | 지동만 공익활동-교통안전지킴이



새벽 4시 30분, 아직 세상이 눈뜨지 않은 고요한 시간, 잠에서 추방당한 사람처럼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난다. 더 이상 잠들지 못하는 노년의 얇은 잠은 이런저런 상념으로 이어진다. 정년퇴직을 한 지 어느덧 30년, 평생을 일해서 노후를 위해 마련한 작은 건물은 IMF의 여파로 넘어갔고 느닷없이 빈손으로 맞은 노년이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함과 허탈함 속에 지낸 시간도 있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혼란스럽던 나날도 있었다. 그 폭풍 같은 시간을 함께 넘어온 아내는 올해 여든이 되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생 모르고 살았던 아내는 인생의 질곡과 세월의 풍화를 겪으며 관절염을 얻었다. 손가락 몇 개만 집으면 아흔 살이 되는 나 또한 작년과 다른 몸의 쇠약함과 마주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함께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들 470명 중 절반 이상이 하늘나라로 갔다. 구십이 가까워지니 이제 부고도 거의 오지 않는다. 슬픈 소식조차 뜸해지는 인생의 외로운 황혼,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어쩌면 그 화살이 나에게 쏠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등에 소름이 돋지만, 누구나 늙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건 불변의 진리이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게 하루하루를 쓰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2008년부터 시작한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이 올해로 16년이 되었다. 가까운 친구의 동생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외환 위기로 건물을 잃고 서울을 떠나 이곳 화성으로 오면서 시작한 활동이었다. 무언가 할 일이 필요했지만 이미 노년의 때라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참여하게 된 교통안전지킴이는 체력적으로 몹시 어려운 일이 아니면서 규칙적인 일상의 루틴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내게 안성맞춤인 일이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안전하게 지켜주는 활동을 하면서 처음 느낀 것은 아이들의 무표정이었다. 당연히 인사를 하는 아이들도 없었다. 이 아이들에게 '예의가 없다.', '젊은 부모들이 공부에만 관심을 두고 인성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저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며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신 나는 먼저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존중받은 사람이 남을 존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먼저 산 사람으로서 먼저 사랑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처음 시도한 일은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삼미 초등학교 등교 지킴이"라고 쓴 가로 36cm, 세로 26cm의 풋말을 만든 것이었다. 비나 눈에도 젖지 않도록 비닐 코팅을 하고 줄을 만들어 목에 걸었다.

♡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삼미 초등학교 등교 지킴이

목걸이를 걸고 아이들에게 인사하면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아주기 시작하자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크게 돌아왔다. 처음에는 주눅터있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하더니 이제는 90% 이상의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사를 한다. 학교 쪽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환영이었고 어떤 아이는 감사 편지를 건네고, 또 다른 아이는 칭찬 상장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보람을 느꼈다.

칭찬 상장

교통안전지킴이 선생님

교통안전 선생님께서는 눈이 오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매일같이 학생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교통안전 규칙을 잘 책임져 주셨기에 이 칭찬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14일 삼미 초등학교 2학년 1반 김** 드림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하게 되자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교통안전지킴이를 하는 건널목 옆에는 육교가 있는데 비나 눈이 오는 날은 계단이 미끄러워 위험해 보였다. 그러던 와중 2021년 1월 8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육교 계단을 내려오던 3학년 학생이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육교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겠다는 생각에 오산 시청에 캐노피 설치를 위한 서면 건의문을 보냈다. 그리고 1월 12일에는 시장님을 찾아가서 캐노피 설치의 긴급함을 설명했다. 결국 오산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 11월에 캐노피를 준공 완료했고 이제 아이들이 눈비가 내릴 때도 불편 없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게 되었다. 감사함과 함께 도움을 주었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노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인간 만사가 무상하다는 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소외감을 극복하게 한다. 나와 함께 교통안전지킴이를 하는 동료들만 봐도 이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은 시간도 내가 매일 만나는 아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다. 아직도 일할 기회가 있음에 감사한다. 새벽이다.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몸이 무겁지 않다. 다행이다. 석가모니는 아무것도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일곱 가지, 무재칠시(無財七施) 중 첫째로 화안시(和顏施)를 꼽았다.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 오늘 만나는 아이들에게 나도 웃음을 주어야겠다.



단 하나의 은행잎도 나무 전체의 말 없는 이해 없이는 노랗게 물들지 못하듯



영광시니어클럽 | 임숙희
사회서비스형-시니어컨설턴트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는데요?
“왼쪽 어금니 쪽 잇몸이 부었는지, 뭔지 모르게 불편해요.”

이어서 치과 원장님은 파노라마 촬영실로 나를 보냈고 얼마 후 나는 치과용 긴 의자에 앉아 대형 모니터와 마주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왼쪽 어금니 위쪽 맨 끝에 사랑니가 나기 시작하는데, 하얀 것 보이시죠? 지금은 머리만 보입니다. 불편하시면 다시 오세요.”

‘이 나이에 사랑니라니?’ 의아해하는 내 표정을 보고 옆 의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기다리던 분이 “나는 이가 빠져 임플란트 시술을 하느라고 1년을 다니는데 그 나이에 사랑니가 난 걸 보면 건강하시거나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봅니다.”라고 했다.

순간 요즘 나를 건강하게 하고 신나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던가 하고 몇 가지 되뇌어 보니 시니어클럽 컨설턴트 활동들이 돌을새김으로 다가왔다.

1981년 국어 교사가 되었다.

봄이면 삼색제비꽃과 동백꽃이, 여름엔 배롱나무와 샨비어가, 가을이면 천일홍과 국화가 아름다운 고등학교로 발령받았다. 교문 밖을 나서면 금빛 햇살에 부서지는 반듯반듯한 엽판이, 그 너머엔

삶의 강인함과 질박함이 녹아든 바닷물이 남실거렸고, 학생들은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이 옹골차고 번뜩였다. 학교 언덕을 오르다 보면 자귀나무가 연분홍 실타래를 풀어내며 바삐 뛰어오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고, 광대나물꽃, 주름잎, 꽃마리 등이 길옆에 앙증맞게 웃고 있었으며, 교정의 등꽃들은 주렁주렁 향기를 뿜으며 창틀을 넘어 교실까지 따라왔다.

국어 교사로서의 삶, 순정하고 맑디맑은 학생들과 아름답고 섬세한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삶의 터전 속에서 생활 속 글쓰기를 하는 동안 그들의 내면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며 나 또한 성장했던 고마운 시간을 보냈다.

퇴직 후 국어과 기간제 교사를 2년 더 한 후, 시니어클럽 모집 공고문을 보고 시니어 사무실 문을 넘었다. 잘 정돈되고 깔끔한 그곳에서 훈훈하고 친절하신 관장님이 설명하는 시니어클럽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운영 취지와 기대되는 효과를 듣고 3개월 시범사업인 사회서비스형의 시니어컨설턴트를 지원하게 되었다. 신청서 하단쯤 자격증을 쓰는 곳이 있었는데 국어 교사, 전문상담교사, 한문 교사를 적으며 어쩌면 내가 가진 자격증이 소용되는 일을 했으면 하고 작은 소망을 품어보았다.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국가 공인 인증기관에 등록하여 가족 상담, 노인 상담, 청소년 상담 자격을 취득하며 언젠가 만나 뵙게 될 어르신들을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하고 학교 울타리 밖의 제2의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탐색했다.

인생 2막 시작. 비록 3개월 시범사업이지만 각기 다른 직종에서 퇴직하신 열 분의 컨설턴트 선생님들과의 첫 출근은 시니어클럽 기관에서 마련한 수준 높은 임파워링 코칭 수업 현장이었다. 그 코칭 수업을 통해 시니어 어르신들의 마음 상담 역할을 하는 직업의 책무성도 생기고 상담 기법, 경청과 말하기 스킬도 생겼다. 이어서 조별로 편성된 마을 경로당에서 공익형 일자리로 청소와 환경을 지키는 시니어 어르신들을 찾아뵈었다.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더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여쭙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여쭙었다. 어르신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그러다 보니 삶의 활기가 느껴져 병원도 덜 가게 되고, 손주들에게 떳떳하게 용돈을 쥐여줄 수 있어서 일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하셨다.

2024년, 시니어클럽 지원서를 내고 정식으로 발족한 시니어컨설턴트일을 하게 되었는데 시니어인턴십과 취업 알선형 수행을 돕는 역할이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분들과 적합한 일자리 발굴에 나섰다. 우리 지역 산업단지나 각종 기업체를 방문하고 동행 면접을 통해 참여회사와 시니어 어르신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니어클럽 하반기 계획에 있는 어르신들의 자서전 쓰기를 위해 자서전 쓰기 강의를 맡게 되었다.

고등학교 재직 시 글쓰기 수업 시간에 제자들과 ‘열일곱 살의 자서전 쓰기’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간 설렘이 있었다.

먼저 컨설턴트 선생님께 자서전 쓰기 10시간 강의 과정 중에 직접 단계별로 자서전을 쓴 후, 우리 열 명의 컨설턴트가 강사 요원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시니어분들 자서전 쓰기를 도우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계획에 의거, 자서전 쓰기(자기 역사 쓰기) 1강에서 자기 역사의 뜻, 자기 역사를 쓰는 목적과 의미, 자기 역사 쓰기 수업 개요를 시작으로 자기 역사 쓰기 원칙 3가지, 시작하기와 관점 정하기, 연표 만들기, 열개 짜기(마인드맵), 기록 모으기(다카시 쓰기), 기록 배치하고 열개 수정하기, 줄글 쓰기,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쓰기를 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자서전도 한 편씩 완성되었다.

‘봄에는 화단 가에 있는 팽팡이나마에 연초록 연필심이 얼굴을 내민다. 조금 지나다 보면 목련, 은행나무 등이 연달아 어린잎을 피워내고 키위 잎이 점점 짙은 그늘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짙레꽃 닮은 하얀 키위꽃이 집어등처럼 매달린다.’

참으로 아름답았던 추억을 불러내어 지금은 공공시설이 되어 사라진 어린 날 집에 대한 그리움을 승화시킨 시적 문장들이 수두룩한, 선생님들의 서정과 서사가 깃든 자서전을 읽고 편집하며 눈물이 뺨에 구른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와 함께 참여한 동료들과 따스한 연대감도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자서전 본래의 목적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정서적 치유와 자아실현을 경험하며 제2의 인생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음을 확신한다. 단 하나의 은행잎도 나무 전체의 말 없는 이해 없이는 노랑게 물들지 못하듯, 시니어의 삶 또한 세대의 중요한 한 축으로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니어가 건강해야 사회적 안정을 꾀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은 경제적 자립을 도우며 시니어가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의 교류와 이해가 증진되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정년퇴임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 교육청에서 직접 전달받지 못하고 개인별로 송부된 훈장을 보며 뿌듯함 속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늦은 시작은 없듯, 국어 교사로서의 삶을 마치고 시니어컨설턴트가 되어 내가 잘할 수 있는

혹은 잠재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어르신 상담과 자서전 쓰기 활동할 수 있는 지금이 내 삶의 또 다른 시작, 행복한 현재이자 우물 속 사다리며, 마중물이다.

분명,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는 얼굴의 주름은 그 깊이를 더하겠지만, 내면의 물결무늬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지리라. 분얼기 지나며 제법 통통해진 푸른 모들의 땀에 스치는 흐뭇한 바람처럼.



노인일자리는 희망입니다



안동시니어클럽 | 김태선

사회서비스형-시니어금융업무지원사업



‘톡톡’ 누군가 내 팔을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자그마하고 이쁜 할매가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화장실”, “늪으니 오줌을 참을 수가 없어서.”라고 소곤거리셨다.

“아이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기 전에 물도 안 마셔요.”

“새댁(60 중반이 넘는 내게 새댁이란다, ㅎㅎ.)도 그렇나.” 얼굴이 편해지신다.

볼일을 보시고 평안한 얼굴로 환히 웃으시면서 작고 낡은 가방에서 홍삼 사탕 세 알을 꺼내주셨다. 고맙다면서. 새마을금고로 노인일자리 나온 지 며칠 뒤 만났던 이쁜 할매 ㅎㅎ. 노인일자리를 한 지 보름이 지났다. 조금씩 어색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몸에 익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

◆ 노인일자리

나이 들어 할 일 없는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구제정책, 하는 일도 없으면서 모여서 정해진 시간만 보내면 돈을 주는 노인구제정책. 노인일자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정적 생각들이다. 나 역시 길거리, 공원 등에서 무리 지어 앉아 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주변의 나이 든 분 중 어지간하면 노인일자리를 꺼리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고, 길어진 노년의 지루한 시간과 길어진 만큼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제적 문제들은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퇴직 후 일 년은 참으로 자유로웠다. 하고 싶었던 그림도 그리고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도 받으면서

구속 없는 자유를 누렸다. 하지만 2, 3년이 지나자 시간이 정지되는 듯 삶이 지루해졌다. 가족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지난 시절의 인간관계도 끊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 우울증이 왔다

백세시대에 아직도 살아야 할 날들이 너무 긴데 벌써부터 사회와 단절된 노인의 삶을 살기엔 너무 억울하고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알게 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나이에 맞는 일자리의 내용을 갖고 있었다. 내가 갖고 있던 노인일자리에 대한 선입적 편견을 버리고 지원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 노인일자리 첫째 날

안동 새마을금고 태화동지점. 앞으로 10개월간 내가 다닐 근무지다. 집에서 걸어서 왕복 1시간 20분 거리. 건강을 위해 걸어서 다니기로 결정했다. 지점장과 직원 1명으로 직원이 달랑 두 명이 전부인 아주 작은 마을금고. 자그마한 체구에 착한 눈매를 가진 지점장, 노인 고객이 오면 목소리 레벨이 끝없이 올라가면서 온 사무실을 꽉 채운다. 귀가 어두운 노인들을 위한 배려다. 친절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다. 가식 없이 사람을 대해줄 성격 같았다. 언제나 웃는 얼굴 '캔디 지점장'. 만화속 예쁜 여주인공 같은 서구적 외모를 가진 직원, 요즘 젊은이답게 솔직하고 당당하다. 그러면서도 예의 바르고 상냥한 안동 처자다.

'아, 다행이다.' 나이 든 할매가 가면 싫어하지는 않을까 잔뜩 주눅 들어 어지럽던 백만 가지 생각들이 싸악 밀려갔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한 달이 '획' 하고 지나고 있다. 변화된 생활패턴에도, 매일 새롭게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 주로 노인층이 주 고객인 마을금고에서는 매일 많은 사연들이 펼쳐진다. 많은 사람과 많은 사연 속에서 나 자신이 새롭게 철이 들어가는 기분이다. 일을 해서인가. 그렇게 지루하던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

◆ 벌써 사월 하고도 중순이다

많은 사람의 사연들이 내 일기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나는 나이 들어 다시 철이 들어가고 있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은 배고픔뿐이야, 너무 가난한 세월이어서 밥이란 걸 제대로 챙겨 먹어본 적이 없어. 그냥 그냥 스무 살이 되고 두 번인가 세 번 만나고 영감이랑 결혼했지, 결혼식 같은 게 뭐 있었겠노, 사진도 한 장 없는데. 어영부영 정붙이며 살다 보니 자식새끼 낳고 새끼들 입에 곡식 넣어

주느라 내야 늘 굶는 게 먹는 날보다 많았지. 이제 자식들 다 키워 시집 장가 보내고, 내 먹고 싶은 거 내 돈 주고 다 사 먹을 수 있게 됐는데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입이 당겨도 몇 손가락 먹으면 배가 불러 많이 먹지도 못해.”

처음 본 할매는 내 손을 꼭 잡고 길고 긴 당신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로 들려주셨다. 울무차 한 잔 내려드렸다고, “이게 최고지. 달달하니 잘 넘어가니.” 그러다가 갑자기 “내 그래도 초등학교는 나왔데이.” 하시며 소리 내어 웃으셨다. 그이의 ‘자존감’이었다.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돈도 벌고 새떡(ㅎ)은 얼마나 좋으노.” 연신 부러움을 표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뒷모습이 허전해 보였다.

이젠 자식 입이 아니라 지갑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할매, 거의 모든 노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듯이 - 나도 그렇겠지. 아니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 아닌 각오를 한다.

◆ 오월, 아직은 걸어 다닐 만큼 날씬인 것 같다

왕복 1시간 20분, 출근해서 3시간을 뒹 수 있으면 걷고 서 있으려고 노력한 결과인지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다.

출퇴근하다 보면 가끔 아는 이들을 만난다.

일상처럼 묻는다. “어디 가노.” 처음 한두 달은 “볼일 보러 가요.” 요즘 들어서는 “아르바이트 뛰어요.”로 대답한다. “노인일자리 가요.”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아직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벌써 석 달을 채워가는 지금도 깨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럽다. 새마을금고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의 폭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크고 있음을 느끼는데도 말이다. 요즘은 할매들의 이야기에 추임새도 넣고 감정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선지 할매들의 여자의 일생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길어지고 있다.

◆ 유월의 햇별이 따가울 정도로 덥다

지팡이에 의지해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 (사실 출입문은 내가 열어도 무겁다.)

대기석에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계셨다. 울무차 한 잔을 내려드렸다. 스물여덟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남겨놓고 먼저 간 영감님을 이야기하셨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 자식새끼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 혼자서 다 했다. 새끼들 싸질러놓고 뭐 그리 좋은 데라고 그리도 빨리 지 혼자 훌쩍 가버리고. 새끼들 키우고 손주 셋까지 내가 다 키우고 이제 좀 편할까 했는데 부단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리, 허리, 골반 돌아가면서 다치는데 멀쩡한 곳이 없다. 팔자도 참 드렵지. 평생을 허리 한 번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 늙어서 살만해지니깐 병을 달고 산다. 그래도 오늘이라도 영감한테 가면 내 큰소리치고 대접받을 까다. 니 새끼들 내가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들까지 보고 내가 다 키웠다고.” 그래 할매, 죽어서라도 영감님한테 큰소리 명명 치시고 보상받으셔야지요.

그이의 고단했던 삶들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눈빛이 강한 분이였다. 그녀가 살아온 삶처럼. 좋은

곳에 계신 영감님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라.

젊은 시절 나만 고생하고 산 것 같아 마냥 억울했던 심정들이 조금씩 부스러져 간다. 가족들과 같이 열심히 살아온 많은 사람, 그들은 그것을 고생이기는 해도 억울하고 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나도 그냥 가족과 함께 열심히 산 사람이었구나.

노인일자리를 다니면서 쓰기 시작한 일기들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사연들이 쌓여간다. 돌돌이를 끌고 휴지를 모아 팔아 아들내미 전기매트 사준 할매, 비행기 한 번 안 타봤지만 오백만 원을 더 모아(통장에 오백만 원쯤이 들었던) 유럽 여행을 꼭 가겠다는 희망을 갖고 휴지를 줍고 다니는 할매, 자식 전화 한 통에 노년의 삶을 살아가야 할 돈 4천만 원을 모두 찾아 준 할매, 60이 넘었는데도 정년퇴직이 없어 그만둘 수가 없다는 야쿠르트 아줌마, 배달비 땀에 장사해도 남는 게 없으면서 투덜거리는 옆집 치킨 가게 아저씨 등등 끝도 없는 사연들이 마을금고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많은 사연 속에서 노년의 삶을 대하는 내 생각도 자세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

◆ 텅다. 일자리 나온 지 넉 달이 넘어가고 있다

너무 더워서 당분간 출근은 버스를 타야 하나.

“아이고, 오랜만이네. 요즘 왜 이리 안 보이노. 요새 어디 다니나?” 노인일자리를 다니면서 길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흔히 듣는 소리다.

“노인일자리 가요.” “영, 왜?” 대부분의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다. 나를 전문직이란 직업을 가졌던 걸 아는 이들이니까.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시간도 벌려고요.”

“하루 세 시간 일하는 것도 좋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사는 이야기도 하고 매일 나가니까 생활리듬감도 찾고 돈도 벌고요, 좋아요.”

“그래도 하던 일 하지, 왜 노인일자리를.”

“ㅎㅎ 나이 들면 나이에 맞는 일 하는 게 좋아요. 이전에 하던 일은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어요. 나이에 맞는 일 하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이 나이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은데요.” 헤어져 오면서 나 자신을 쓰담쓰담, 그래, 드디어 스스로 가졌던 쓸데없는 편견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났구나. 잘했다.

“저 노인일자리 다녀요.” 이 말이 그렇게도 힘들었을까. 나 자신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것 같아 기특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해 가고 세상의 빠른 걸음을 따라가기엔 우리가 가진 나이가 너무 무겁다. 전자화, 자동화된 세상에서 혼자 치킨 하나 주문하기 어려워하는 노인들에게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불러주면서 경제적 도움까지 주는 ‘노인일자리’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 퇴직 후 딸들이 매달 보내주던 용돈을 노인일 자리를 시작하면서 중단시켰다

아직은 내가 일하면서 별어서 살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년간 우울증까지 겪는 엄마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딸들은 처음엔 노인일자리 나가는 것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되찾는 엄마를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다시 멋진 노인 엄마로 거듭남을 딸들과 같이 축하했다.

일을 하면서 자립하는 부모의 떳떳한 모습과 부모로서 자식에게 경제적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게 해준 노인일자리. 일자리와 경제적 보탬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의 다리를 이어주는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는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을 주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희망이다.



일하며 느끼는 나의 행복



시흥시니어클럽 | 신영순
사회서비스형-청소년시설지원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게 된 지도 올해로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온 국민이 고통을 겪어야 했던 IMF 때 경영하고 있던 사업을 눈물로 접고 한동안 실업자 신세로 지내다가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오십 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시화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의 말단 영업사원으로 취업했다. 몇 년을 할 일 없이 빈둥대며 남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했던 나만의 설움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남아 있는 열정을 다해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다. 오로지 집과 회사만 알고, 새벽이건 한밤중이건 마다치 않고 모기업에서 부르면 1톤 트럭에 생산품을 가득 싣고 아산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17여 년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 사이 내 나이 칠십을 넘기고 생산과 영업을 총괄하는 임원이 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버티기가 무척 힘들었다. 끝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2018년 말에 정든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막상 퇴직하고 보니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에 비해 또다시 처량한 실업자 신세로 전략해, 이루어 놓은 재산도 없고 명예도 보잘것없는 그저 앞길이 막막한 한낱 노인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한동안 심한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져 지내야만 했다.

이런 나를 보고 아내는 “당신은 할 만큼 했어! 이제 편히 쉴 때도 된 거라구.” 하며 위로해 주었지만 나는 조금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 그동안 일에 정신없이 매달려 있는 나 때문에 많이 외로워했을 아내와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맛집이라도 찾아다니자고

다짐했건만 그나마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서 쉽게 실행하지 못하였다. 집에서 그냥 쉬는 것도 잠깐이지 막상 한두 달을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쉬고 있자니 하루하루가 여간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었다. 2019년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던 8월 어느 날 아내가 며칠 전부터 체했는지 속이 거북하고 소화가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하길래 가까운 동네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였다.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나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왔다.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부터 위암 말기라는 판정이 내려졌고, 나는 서둘러 서울에 있는 원자력병원으로 긴급 이송 입원시키고 그날부터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지만 병세는 점차 악화하였고, 암이 온몸 장기 구석구석까지 전이되어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는 담당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렇게 아내와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 난 후, 나는 그때부터 아내에게 무심했던 나 자신을 자책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종일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치 폐인처럼 지냈다.

몸은 점점 야위고 정신은 피폐해져 살아 있음이 신기할 정도로 느껴졌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줄줄 나오고 목소리는 잠기어서 신 목소리만 겨우 내뱉는 듯한 정도로 착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취업 상담직원의 전화였는데, 집에서 그렇게 있지만 말고 '노인일자리'라도 참여할 의사가 없느냐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멀리 천사의 음성이라도 들려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죽은 아내가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는 것 같은 착각에 '그래,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죽은 아내의 생각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에 정신없이 매달려 보는 거야.' 결심하고 그분이 알려주는 대로 월곶에 있는 시니어클럽을 찾아갔다.

간단한 면접 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초조하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2019년 1월이 끝나갈 때쯤 2월 1일부터 사무실로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 벅차오르는 희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솟아올라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출근 첫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벅찬 감정을 가다듬고 월곶에 있는 사무실로 나갔다. 교육실에는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며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후에 면접을 했던 사회복지사가 들어와 출석 체크를 하더니 곧바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출·퇴근 시간, 출근부 작성 요령, 안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었는데 상냥하고 친절함 목소리로 전혀 지루하지 않게 교육을 잘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급작스레 창궐하는 바람에 실내 교육 일정이 많이 길어졌고 점차 지루해지기

시작했지만, 어서 빨리 환경이 좋아져서 현장 투입이 이루어지길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보람과 기대로 가득 찬 신나는 나날이었다.

마침내 한 달여 동안 지루했던 교육 일정이 모두 끝나고 현장에 투입되던 날, 우리는 다섯 명씩 각기 팀을 이루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루에 3시간씩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전철역 주변이나 공원 등지에서 일했다.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스치는 놀이기구나 출입문 손잡이, 공원 벤치 등에 각자 분무기에 담아간 소독제를 분사하고 마른걸레로 닦는 일이 전부였다. 일과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함께한 동료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바깥 테이블에 둘러앉아 종이컵에 따라 나눠 마시던 막걸리가 어쩔 그리도 달고 시원했던지.

“나이 먹으면 명예도, 쌓아 놓은 재물도 다 소용없는 것이여! 건강이 최고지! 우리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살아 보자고.” 하며 유쾌하게 웃어대던 팀장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이제는 코로나19도 끝나고 작년부터 시흥시 능곡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노인일자리에서 만나 친구가 된 동료와 함께 일한다. 서로를 아끼고 위해 주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방과 후 청소년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만의 재능과 특기를 살리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휴먼지가 많아 자주 쓰고 닦아주어야 하는 청소원 역할이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와 따뜻한 우정을 나누고 서로를 보살피 가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일하시는 관장님 이하 직원 모두가 친절하고 상냥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늙어서 노인정이나 기웃거리며 화투나 치면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일을 해서 건강해지고 용돈도 벌고 친구 간에 우정도 돈독하게 쌓아 가는 지금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이어서 나는 참 좋다.



징검다리 사랑



대구동구시니어클럽 | 이지현

사회서비스형-즐거운생활지원단



오월의 장미가 가는 곳마다 흐드러지게 피었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유난히 덩굴장미가 많다. “예쁘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감탄사 뒤로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분이 있다. 그분은 신장이 좋지 않아 오줌보를 달고 계시기에 항상 누워 계신다.

몸을 돌리기도 어렵고 힘들어 욕창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다. 요양보호사님이 돌보고 있지만, 우리의 방문을 정말 좋아하신다. 의식은 말짱한데 몸이 불편해 거동이 어려워서 바깥세상을 그리워하신다. 두 번째 방문할 때 진달래꽃 한 송이를 꺾어 봄소식을 전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 오월의 장미가 너무 예뻐서 또 한 송이 가져다드리고 싶은데 2주 동안 감기가 들어 우리에게 감기를 옮길까 봐 오지 말라고 하신다. 경우가 밝으신 분이다. 말로 하는 수채화. 그분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선물이다.

어느덧 노인일자리를 시작한 지도 5개월이 다 되어간다. 한 집, 한 집을 방문할 때마다 오롯이 느껴져 오는 그리움, 군데군데 덕지덕지 붙은 외로움이 우리가 나눌 숙제다.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몇 년 더 직장 생활을 했던 건, 눈 뜨면 갈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퇴직 후 몇 달을 쉬어보면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퇴직 후에도 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찾고 세상 속으로 가고 싶었다.

육십 대 중반 무렵, 스스로 직장을 포기했었다. 거울 속의 내가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버린

이유였다. 그 어떤 곳도 할머니를 환영해 주는 곳은 없었으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알게 되었다. 나는 뭘 듯이 기뻐했다. 행복한 세상으로 한 발짝 내디딜 징검다리를 찾은 것이다.

‘즐거운생활지원단’ 줄여서 ‘즐생단’

앞으로 열 달 동안 내가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이름이다. 대구시에서 시니어클럽을 통해 2024년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단이다. 1월 중순부터 약 3주가량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름 고독사 예방 전문가로 거듭났다. 취업의 기쁨과 고독사 예방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각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으로 파견되었다. 2인 1조로 하루에 다섯 가구 정도 방문 상담을 다니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일을 한다. 오전 3시간을 다니며 처음엔 우리가 열 달 동안 만나야 할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달여간 진행했다.

대다수가 몸이 몹시 아픈 분들이셨고, 자식의 외면과 관심 부족 속에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다. 가끔 자식들에게 전화는 오지만 “개들도 개들 살기 바빠서...”라며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짠하다.

불현듯 아들 둘을 둔 시골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돈 많은 첫째와 가난한 둘째의 이야기다. 첫째는 돈으로 효도했고, 가난한 둘째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가 어머니의 등을 굽어 드렸다. 어머니에게 어느 자식이 더 좋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후자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어르신들께 둘째가 되어 드리자고 결심을 했다. 요즘처럼 물질만능의 시대에 돈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진심은 통한다는 말, 그것을 실천해 보고 싶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여운을 남기는 세 분이 있다. 여운만큼 방문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 분들이시다.

정** 할머니는 29년생, 올해 95세다. 우리가 방문하는 분 중 가장 연세가 많으시다. 돌아가신 내 엄마와 같은 나이여서 더 애착이 가는 분이다. 성당을 오래 다니셔서 신앙생활이 몸에 밴 분이시지만, 지금은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하며 혹여 냄새가 날까 걱정하신다. 그 연세에도 요양보호사를 고사하시고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언제나 짠하다. 우리가 방문하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간호사의 방문과 신부님의 미사가 유일한 세상과 소통 창구였다. 방문을 마치고 집을 나올 때마다 지팡이를 짚으시고 대문까지 따라 나오신다. 우리가 골목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바이 바이 손을 흔드신다.

우리도 몇 번이고 돌아보며 손을 흔든다. 손 인사가 주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 골목에 방문하고 돌아올 때마다 가득 차 있었다.

김** 할머니는 평소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보청기를 싫어하신다. 언제나 방문하면 현관문이 열려

있고, 아파트 베란다 의자에 앉아 바깥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계신다. 15평 아파트가 전 재산이고 자식도 없다. 70살 된 질녀가 이웃 아파트에 살며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귀만 잘 들리신다면 오랜 시간 대화하고 싶은 분이다. 그 집을 나설 때마다 소통이 안 돼서 미처 하지 못한 대화의 아쉬움이 남는다. 할머니는 항상 아파트 복도 끝에서 우리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주신다. 그 쓸쓸함이 가슴 깊이 스며든다. 몇 번씩 뒤를 돌아보며 우리도 손을 흔든다. 어항 속의 금붕어.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또 다른 김** 할머니는 주택 2층에 사시는데 계단 난간이 위험해 걱정되는 분이다. 비 오는 날, 계단을 오르내리시다가 다쳐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있다고 하셨다. 인상이 북스럽게 생긴 팔순이 넘으신 분이다. 매일 아침을 빵과 커피로 드시는데 우리가 방문하면 꼭 빵과 커피를 주신다. 다른 어르신 댁을 방문할 때 주시는 차는 대부분 사양하는 편인데 할머니가 주시는 것은 이상하게도 커피도 마시게 되고 화장실도 마음 편히 이용하게 된다. 참 정이 가는 분이다. 2층 계단은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오기에도 아슬아슬해서 매번 걱정된다. 2층 계단 위에서 항상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신다. 즐생단이 끝나는 날, 꼭 커피믹스 한 통을 사드릴 생각이다.

우리는 서서히 어르신들의 딸이 되어갔고, 딸을 기다리는 그분들의 삶에도 변화가 보였다. 전화로 방문을 예약하고 들르면 청소도 깨끗이 해 놓으시고 얼굴도 웃도 예쁘게 하시고 우리를 반겨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좋은 표현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어머니, 오늘 블라우스 너무 멋지세요!”

“예구, 이거 만 원짜리인데... 난 만 원 이상은 옷 못 사 입어...”

“그래도 너무 예쁘고 멋지신걸요.”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 비록 내겐 안 계신 부모님이지만,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생긴 많은 엄마, 아빠가 생각났다. 이를 동안 방문하는 열 분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자고 결심하고 파트너와 상의해서 사비로 간식을 사드리자는 결론을 내렸다. 둘이 반반씩 내어 이를 동안 우리의 마음이라며 작은 선물을 드렸다. 드리는 우리도 받는 어르신들도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 작은 마음이지만 내어놓으니 이리 좋을 수가 없다. 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들으시고 되레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아름다움은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 자꾸자꾸 이어지고 크게 번진다. 오월의 장미 덩굴처럼.

즐생단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건, 우리가 한 방문 조사가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적용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때였다. 에어컨이 없는 집에 에어컨 설치를 해드리거나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분에게는 선풍기도 선정하여 갖다 드리고, 반찬도 갖다 드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너무나

기뻐다. 어르신들의 생활 전반과 때마다의 상황을 열심히 파악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결과라 생각하니 뿌듯함에 감동이 물려왔다.

평소 어르신 중 가장 살기가 넉넉해 보이시는 곽** 어르신과의 대화 내용이다.

“어르신! 어버이날에 자제분들을 만나 식사하셨나요?”

“응. 식사는 했지. 그런데 돈은 안 주고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사주니 거절도 못 하고, 그 옷은 입지도 못하고 놓 안에 있어.”

“어르신! 그럴 때는 이야기하세요. 뭐니 뭐니(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요!”

이렇게 어르신과 속 이야기를 나누고 우스갯소리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되다니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눈 뜨면 갈 곳이 있다는 것, 노인일 자리를 하면서 내가 만난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노인일 자리를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 나올 수 있었듯, 나를 통해, 즐생단을 통해 어르신들이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요즘이다. 어르신들과 만나 소통하고 삶을 나누려 나날을 보내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차다.

노인일자리 '즐거운생활지원단'이 이어준 사랑.

징검다리와 같은 이 사랑을 오늘도 하나하나 이어 건너본다.



새로운 삶의 장(章): 동화 할머니의 여정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성남시실버인력뱅크 | 문길엽
공익활동-동화구연강사파견사업



2017년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나는 혼자가 되었고, 나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때 지인의 우연한 소개로 알게 된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의 동화구연 프로그램은 나를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였다. 지금까지 6년째 이어진 이 여정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나의 존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2018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다. 동화구연 강사는 평생 동안 가정에서 네 명의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만 해온 내게는 흥미롭지만 도전적인 일이었다. 교사가 되는 것은 나의 꿈이었지만, 그저 꿈으로만 남아 있었다. 이제, 인생은 나에게 뜻밖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첫걸음은 흔들렸다. 동화를 외우고 늦은 밤까지 교구 만드는 일은 나의 결심을 시험했다. 그러나 주변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동화를 듣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드디어 만날 수 있었다.

동화구연에 점점 빠져들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목소리 톤, 제스처, 율동 등을 다양하게 시도하며 연습했다. 신중하게 동화를 선별하고, 아이들에게 더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화술도 향상되었고, 아이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도 커졌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나의 보람도 커져 갔다.

아이들은 나를 '동화 할머니'라고 부른다. 나는 어디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찾아가 동화를 들려준다. 때로는 동화를 듣는 아이들보다 동화를 들려주는 내 모습이 더 행복해 보인다. 아이들의 집중력은 짧아서 동화를 15분 이상 들려줄 수 없다. 실제로 수업을 준비하고 어린이집에 가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나는 모든 준비 과정에서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가 아픈 날이나 병원에 가서 통증 주사를 맞고 온 다음 날이면, 하루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지만, 곧이어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떠올린다.

자리에서 일어나 햇살이 밝은 날이든 비바람이 치는 날이든, 나는 교구를 챙겨 어린이집으로 향한다.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레 화장하고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기쁨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루에 두세 군데의 어린이집을 돌며 수업하고 나면 여든의 몸이 내게 묻는다.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냐고. 자식들도 이제 편하게 지내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을 통해 치유받는다.

동화구연 강사로 일하면서 희망을 다시 찾았고, 멈춰 섰던 나의 시간도 다시 흐르는 느낌이다. 동화구연에 몰두할 때면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일체감을 느낀다. 또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여전히 쓰임 받고 있다는 뿌듯함, 교육 현장에서 미래 세대를 키운다는 자부심은 오늘도 나를 숨 쉬게 한다. 동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면 아이들이 달려와 나를 잡고 놓지 않는다. 표현할 수 없는 희열과 함께 솟아나는 긍정의 에너지는 나를 더욱 힘차게 만든다.

나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준 여정을 가끔 회상한다. 남편의 죽음은 내 삶에 공백을 남겼지만, 이를 아이들과 동화로 채우면서 내 삶은 더욱 풍성해졌다.

동화구연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나를 세상과 연결해 주는 생명선이 되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활기를 찾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며, 그들의 웃음소리는 나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주위에서 갈수록 더 젊어지는 비결이 뭐냐고 묻곤 한다.

나는 '동화구연'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은 나를 미소 짓게 하고, 힘들고 피곤한 마음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몸이 허락하는 한, 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

나의 여정은 회복과 재생의 이야기로, 어느 나이에서든 새로운 목적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새로운 장(章)에서 나는 못 죽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빛어진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상상 이상으로 성장했고, 이제 많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할머니이자 선생님이 되었다. '동화 할머니'의 역할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고 아이들의 세계에 함께하는 기쁨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나는 나의 세상에서 나의 자리를 찾았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 계획이다. 내 나이 이제 여든, 나는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다.

시니어들도 대한민국의 관광외교를 하고 있어요.



서울강서시니어클럽 | 고혜자
사회서비스형-강서공항서포터즈



“인간은 미성년기를 지나 맞이하게 되는 성인기에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기적 주기’, 결정한 삶을 성취해 가는 ‘절정기적 주기’, 그 이후 비로소 안정을 찾는 ‘안정기적 주기’를 맞게 된다.”라고 임상심리학자인 다니엘 레빈슨(Daniel Levinson)은 시사했다.

이처럼 인간의 발달 과정에는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삶의 순환과정을 거치며 누구도 예외 없이 노년의 시기를 맞게 된다. 인생의 마지막 주기라 할 수 있는 노년기, 이 시기에도 신체적 조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남은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함으로써 부여되는 성취감과 나아가 안정적 인생의 경험을 맛보는 기회를 희망할 것이다. 이와 관련 ‘인생의 마지막 분기’라는 노년기에 노인일자리 활동 기회를 ‘결정’한 대가로 현재 인생 제2의 절정기적 주기의 ‘성취감’을 맛보며 안정기적 주기의 삶을 누리고 있는 ‘공항서포터즈’가 있다.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소속 140명의 ‘공항서포터즈’는 김포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안내데스크 직원 보조, 혹은 근무 현장에 따라서는 단독 근무로서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돕고 있다. 또한 주차 분야 공항서포터즈는 악천후와 상관없이 공항을 이용하는 입·출 차량의 정렬과 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김포공항 곳곳에 없어서는 안 될 공항서포터즈가 경험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고객의 애로사항과 그 요구에 응대하는 해결 중심적 사례를 통해 공항서포터즈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 나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주세요

2개월 전쯤, 국제선 2층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이었다.

데스크 여직원 휴식 시간에 혼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일본인 아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데스크에 와서 “묵었던 호텔 객실에 외투를 두고 왔다.”고 했다.

나는 고객이 이용했던 호텔 이름과 객실 번호, 외투 컬러를 확인하고 호텔과의 통화에서 “고객의 외투는 이미 호텔 프런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출국 게이트 입장 시간에 여유가 없는 고객이 외투를 전달받을 방법으로 퀵 서비스 이용을 문의했다. 호텔직원은 “호텔과 연계된 퀵 서비스는 없지만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때, 또 다른 일본인 남자 고객이 황급히 와서 “방금 자신이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고 했다. 다행히 택시에서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서 영수증에 기재된 택시회사에 전화로 택시 번호와 지갑 상황을 알렸다. 택시회사에서 가르쳐준 기사님 전화번호로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으나 운전 중 걸려 온 외부 전화라 그런지 통화가 어려웠다. ‘회사 전화는 받겠지.’라는 생각에 다시 택시회사에 전화해서 그쪽에서 기사님께 연락해 주기를 부탁했다.

잠시 후, 일본 아가씨의 호텔에서 전화가 왔는데 “호텔 인근 퀵 서비스에 알아본 결과, 호텔에서 공항까지 퀵 서비스 요금이 25,000원, 소요 시간은 1시간”이라고 했다. 1시간 후면, 고객의 출국 게이트 입장 시간이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으로 퀵 서비스를 부탁했다.

마침내 남자 고객의 택시 기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뒷자리에 있는 고객의 지갑은 확인되었지만, 택시는 다른 고객을 태우고 이미 강남 근처.”라고 한다. “김포공항으로 되돌아올 수는 없으신지요?”라는 나의 질문에 기사님은 “탑승한 고객이 다른 택시를 타도록 하차시키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오는데 요금이 30,000원입니다.”라고 한다. “3만 원을 내도 괜찮다.”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사님은 잠시 후, “고객에게 다른 택시 환승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김포공항으로 출발했다.”는 답변이 왔다.

택시의 색깔, 차 번호, 도착할 공항 게이트와 도착 예정 시간, 요금 등 기사님과의 질의응답으로 작성한 메모지를 나에게 받은 남자 고객이 지금 초조하게 퀵 서비스를 기다리는 여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서로 목적이 같은 하네다공항이니까 일단 여성은 출국하고, 여성보다 1시간 후에 출국하는 본인이 퀵 서비스로 배달된 여성의 외투를 받아서 하네다공항에서 전달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일본 남자의 제안에 일본 여성은 쾌히 승낙하고 상호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하네다공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여성 고객이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나에게 연신 머리를 숙여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한다.

이렇듯 20여 분 동안 동시에 발생한 두 가지 분실물을 해결하면서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다 보니 어느덧 여직원이 휴게 시간을 마치고 데스크에 왔다. 그동안의 상황을 여직원에게 설명하고 호텔 전화번호와 운전기사 전화번호, 일본 여성에게 받은 킥 서비스 요금 25,000원과 함께 업무를 인계하고 데스크를 나오는 나의 퇴근길은 순조롭게 해결된 오늘의 알찬 시간이 뿌듯하기만 하다.

◆ 도와주세요! 내 남편이 지금 술에 취해 있어요

3주 전에 국제선 2층 데스크에 70세가 넘어 보이는 어르신께서 안내 프린트 투명 아크릴 밖에서 나에게 “안녕.” 하신다. 연세 드신 분은 의치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어서 “고객님, 혹시 안양이요?” 묻는 나에게 “응.” 하신다. 나는 안양 버스 발권 승차권 부스와 정류장을 안내해 드렸다. 함참 후, 이 어르신이 다시 오셔서 통화 중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짜고짜 나에게 건넨다.

통화 상대인 아내는 “남편이 지금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 안양 가는 버스표를 끊어주세요. 남편이 작년 여름에 만취 상태로 길에서 잠이 들어 경찰이 겨우 찾았던 일이 있었거든요.”라고 말을 건넨다. 지금 아내의 심정은 작년 여름에 겪었던 일에 대한 트라우마로 매우 흥분한 상황.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그래도 겨울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네요. 겨울의 길에서 잠이 들면 위험하잖아요. 염려 마세요. 제가 안양까지 잘 도착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착할 역이 안양역인가요? 아니면 범계역이 더 가까우신가요?” 묻는 나의 말에 아내는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범계역에서 내려주세요.” 연신 부탁하신다.

어르신과 함께 버스표 자동 출력기에 갔으나 어르신의 수중에는 신용카드는 없고 자동 출력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직불카드와 5만 원권 지폐밖에 없었다.

공항 청사 안, 환전센터에 가서 5만 원권을 1만 원권으로 바꿔서 출력한 버스표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르신의 휴대전화로 애간장 녹는 아내와 나의 통화는 계속되었다.

남편이 오늘 술을 많이 마신 경위, 어떻게 김포공항까지 왔는지에 대한 염려와 원망 섞인 아내의 양가감정을 듣다 보니 마침내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였다. 기사님께 어르신의 숙취 상태를 말씀드리고 “안양 범계역에서 어르신을 꼭! 내려주세요.” 부탁한 후, 부인에게 버스 번호와 좌석번호, 공항버스 하차지점을 알려드렸다. 아내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남편을 마중 나가지만 버스가 도착할 동안에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선생님의 휴대전화 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신다. 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드리고 얼마 후, 아내로부터 “선생님 덕분에 남편이 무사히 도착했다. 내 마음에 너무 공감을 잘해 주셔서 감사했어요.”라는 전화가 왔다. 그리고 “김포공항의 여기저기 부서에 전화해서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렸다. 감사의 선물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어르신께서 도착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한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희는 사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퇴근하였다. 그날 저녁에 그분 아드님이 진심이 담긴 감사의 글과 함께 10만 원을 나의 휴대전화로 송금해 왔다.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아드님께 ‘감사의 답글’을 보내고, 어머님께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어요. 아드님의 성의를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어머님께 드립니다. 아드님께는 비밀로 하시고 어르신과 함께 맛있는 것 사주세요.”라는 메시지와 아드님의 10만 원을 어머님의 휴대전화로 송금해 드렸다. 곧바로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지만, 나의 거절에 대한 이유를 어머님께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

다음 날, 김포공항 홈페이지에 아드님의 감사 글과 어머님의 편지가 첨부돼서 올라왔다.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고객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정표는 나에게 보람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고객님들을 돕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 이 낯선 타국에서 나는 오늘 어디서 자나요?

국제 1층 안내데스크 뒤편, 서울관광공사 데스크에 영어를 사용하는 허름한 동양계 여성이 직원들의 친절할 답변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화를 내며 힘들게 하더니 마침내 나 혼자 근무하고 있는 데스크로 왔다. 화가 난 그녀는 “저녁에 여기에서 잠을 잘 수 있나?”는 것이었다. “김포공항은 하루 비행이 종료되면 문을 닫는다. 그 이후에는 누구도 이곳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나의 답변에 이 여성은 한참을 알아듣기 어려운 영어로 분노를 터뜨리더니 갑자기 평평 울기 시작한다. 이 고객의 사연인즉, “일본 간사이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간사이공항 편 마지막 비행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아직 하네다공항 편 출발 비행기가 몇 편 남았는데 일단 하네다로 가서 간사이까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나의 말에 그녀는 “여기에는 이미 하네다공항 편 예약이 끝났다.”는 것이다. 나는 재확인을 위해 고객과 2층 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문의해 보니 정말 모든 데스크에서 “당일 하네다공항 편대가 만석이다.”라고 했다. 어느 데스크에서는 “이미 저분이 이곳에 와서 진을 빼고 갔다.”는 답변을 했다. 다행히 “내일 간사이공항 편을 예매했다.”는 그녀와 다시 1층 데스크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고객이 오늘 묵을 수 있는 호텔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다.”는 이 여성은 김포공항 근처 깨끗하고 저렴한 호텔만 원했다. 공항 근처 작은 호텔들의 가격과 방을 알아본 결과, 근처에 저렴하고 깨끗한 작은 호텔에 방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고객도 그 호텔을 승낙하였다.

호텔 이름과 전화번호, 버스 번호, 버스 가격과 함께 하차지점에서 도보로 가는 호텔 지도를 고객에게 그려주고, 메모지 뒷장에는 반대로 내일 호텔에서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때, 같은 버스 승차장 지도를 그려주었다. 하지만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경유 시내버스는 종점 행과 회차 방향 승차장이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고객이 호텔 방향으로 가는 정확한 버스에 승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했다. 도착한 버스 기사님께 고객이 하차할 정류장을 부탁드리니 그녀는 나에게

“땡큐! 땡큐!” 하며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띠고 버스에 올랐다. 데스크로 돌아오니 서울관광공사 안내직원들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환영해 준다.

당일,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의 수속카운터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소연하다가 지쳐버린 그녀는 ‘여자의 몸으로 이 낯선 타국에서 오늘 어디에서 자야 하나?’ 그 막막한 두려움이 분노와 눈물로 표출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그녀에 대한 나의 감정이입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 큰일 났어요. 택시요금에 오해가 생겼어요

2주 전쯤에, 중년 남자가 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국제선 2층 데스크에 와서 방금 대만으로 간다는 손님을 태우고 온 운전기사인데 그 대만 고객을 꼭, 찾아야 한다며 무척 다급해하신다.

“네, 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지요.” 하고 함께 그 대만 사람 일행을 찾으러 가면서 기사님 말씀이 그 대만 남자는 학생들을 인솔한 교사인 듯 보였고, 두 대의 택시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일반택시 요금은 27,000원, 자신의 모범택시 요금은 43,000원이 나왔고, 게다가 차가 오던 길이 많이 막혔다고 했다.

이 2대의 택시요금 차이에 대한 대만 고객의 항의에 대해 기사님은 열심히 이해시켰지만, 언어소통은 안 되고 급기야 대만 고객이 기사님의 차량 앞, 뒷면 등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해 간 것에 관해 기사님은 겁을 잔뜩 먹고 있었다. 마침내 세금 환급 키오스크 앞에 있는 대만 고객 일행을 발견하였다. 기사님과 함께 다가가서 나를 소개하고 그분들이 타고 온 택시요금의 차이에 대해 미숙한 영어와 중국어 실력으로 열심히 설득하였지만, 그분은 완강하게 고개를 흔들며 좀처럼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기사님과 싸고 온 것처럼 보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은 알아야 한다. 한국의 오렌지컬러 택시요금은 저렴하고, 블랙컬러 택시와 큰 택시의 요금은 비싸다.”라는 단호한 나의 말에 그때서야 대만 고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였다.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오면서 ‘대만 사람이 택시를 촬영한 목적은 무엇이며, 만약에 택시요금에 대한 오해를 안고 본국에 갔다면 그 사진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선생님을 찾겠습니다.”라는 기사님의 말씀에서 외국인 승객들이 모범택시 요금을 잘 몰라 모범택시 기사님이 겪는 어려움을 느꼈다.

◆ 5개월 전의 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주말에 일본인 젊은 남녀가 국내에 입국하여 국제선 1층 데스크에서 나를 찾았는데 그날이 마침 나의 휴무일이어서 직원에게 무언가를 맡겨두고 갔다고 한다.

다음 날 출근해서 확인해 보니 작은 과자 선물과 한국어로 번역한 편지가 있었다. A4용지에 깨알

같이 쓴 편지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2월에 그들이 이용했던 아시아나 항공 편명이 적혀 있었다.

사연인즉, 이 젊은이들은 올해 2월,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중, 출국수속을 마치고 보안 구역을 통과, 출국 게이트에 도착하고 나서야 여자 친구의 지갑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출국 시간 30~40분 전이라서 탑승 게이트 입장을 해야 하는데 이미 보안 구역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지갑을 찾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데스크에 있는 나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탑승 시간이 촉박했고 지갑 분실 가능성이 높은 곳은 2층 수화물 검사소 앞이라는 자신들의 말을 들은 내가 찾아보겠다면서 보안 구역 밖을 향해 달려 나가더니 지갑을 수색해서 그들이 이용한 아시아나 항공사 직원에게 인계해 줌으로써 분실한 지갑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며 “선생님의 빠른 수색에 매우 놀라웠다. 너무 감사했다. 아시아나 항공사 직원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아시아나 항공으로 한국에 오고 싶다. 이 글을 직원들과 공유해 달라.”며 2월에 귀국하여 바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의 서두에는 자신의 글을 한국에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담겨있었다.

2월의 일을 잊지 않고 감사의 글과 마음의 선물까지 준비해서 나를 찾아 준 그 젊은 연인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더 진한 감동은 그 모든 상황이 고맙고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한국을 5개월 만에 다시 방문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례들의 파급효과로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명소’로 부상하길 바란다면 ‘너무 원대한 꿈’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2023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103만 명이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무려 700만 명에 육박할 만큼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만남과 마지막 이미지가 가장 오래 기억에 남듯이 급증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한국에 도착하여 자신이 예약한 호텔로 가는 교통수단, 알찬 여행을 준비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선 입국장, 우리나라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떠나는 공항의 출국장에서 겪는 경험은 그들에게 기억될 한국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을 몸소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에 공항서포터즈가 있다.

인생의 경험적 열정에서 비롯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김포공항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는 공항서포터즈의 활약은 위의 사례들처럼 내국인은 물론, 한국에서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공항서포터즈에게는 현장에서의 모든 상황이 나의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은 미담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감은 일상에까지 이어져, 지하철 역사나 길에서 우왕좌왕 배회하는 외국인 여행객을 볼 때면, 그 외국인이 찾는 곳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수고도 외면하지 않는다.

이처럼 140명의 공항서포터즈는 대한민국의 관광사업에 민간 외교관처럼 자부심을 품고 오늘도 김포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고객 점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공항서포터즈라는 노인일자리 활동을 결정함으로써 내 개인에게 주어진 보람과 성취감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였고, 경제적인 문제에까지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나는 이 노년기에 '인생 제2의 절정기적 삶' 과 '안정기적 삶'을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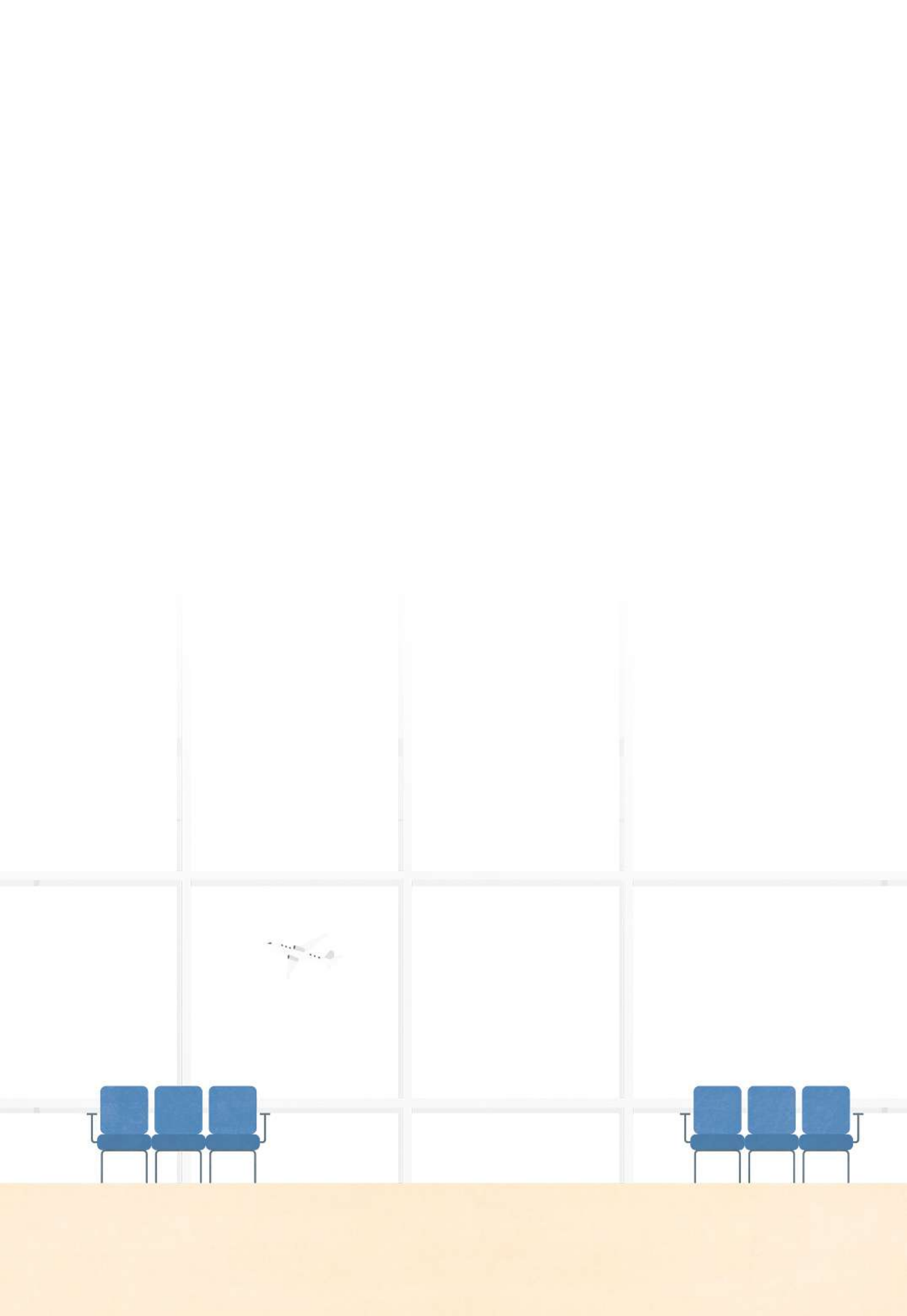
덧붙여 공항서포터즈를 시작하면서 평소에 원했던 사회 환원을 실천하게 되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인일자리에서 매월 받은 급여 일부분을 몇몇 사회단체에 기부함으로써 평소 가지고 있던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했던 마음에 위안이 되고 있다.

이처럼 나의 바람을 실현시켜 준 '노인일자리'는 너무 소중하고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한다.

'공항서포터즈'라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년기에 소속감과 성취감을 누리며 활동할 기회를 제공해 준 서울강서시니어클럽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아울러 지면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소속 공항서포터즈의 활약'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부산사하시니어클럽 | 김수홍
사회서비스형-국민생활시설점검원



15년 동안 주택관리사로서 300세대, 500세대, 1300세대 등 여러 규모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거쳐 마지막으로 640세대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7년 동안 근무하니 73세가 되어버렸다. 그간의 경험으로 관리소장의 기본 업무인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는 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대 내에 물이 샌다는 민원, 층간소음으로 인한 아랫집과 윗집의 불만, 담배 연기로 인한 민원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 공동생활이 남의 일이라도 되는 듯 일부 개인주의에 빠진 진상의 입주민 상대에 힘이 부치기도 했다. 그리고 단지 숫자에 불과한 73세의 나이 탓에 입주민 눈치(?)도 보이고 하여 직장은 그만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이나 다니고, 그동안 못 갔던 캐나다 형님께 가서 골프도 마음껏 치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2021년 말에 직장을 접어 버렸다.

새로운 기분으로 아침마다 공원 산책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팝송도 배우고, 미술학원에서 초상화 등 그림 그리기도 배우고 문화원에서 조금 칠 줄 아는 기타도 좀 더 배우고, 자서전이라도 내고 싶은 욕망으로 250페이지의 소설도 쓰는 등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다가 캐나다 이민 가서 정착하신 형님 덕에 가게 되었다.

형님 특히 형수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학비와 용돈을 대주는 등 정말로 내게는 특별한 분이였다. 형님 부부는 내가 왔다고 친한 이웃 두 집과 우리 셋을 더해 모두 일곱 명이 바하마제도와 쿠바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첫날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형수님이 호텔 주변 해변 허리 높이의 얇은 물에서 심장마비로 81세의 나이에 돌아가 버렸다. 불의의 사고로 여행은 다 집어치우고 캐나다 집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그런 상황이니 골프는커녕 오래 머무를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2개월도 안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내게는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으로 다가와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매사에 의욕도 사라졌으며, 겨우 한다는 것이 술이나 마시고 인터넷 바둑이나 밤낮으로 두면서 생활은 완전히 불규칙하게 되어버렸다. 이런 생활 중 목욕탕에서 만난 한 지인이 노인일자리에겐 청소나 교통정리 같은 단순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연명 상담, 소방 안전 관리, 시설 안전 관리 같은 보람 있고 약간의 전문성도 필요한 일도 있으며 시간도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니 한번 신청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인이라는 단어가 싫었다.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착각인지는 몰라도 주변 누구도 나를 노인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노인일자리라니 오히려 행복일자리라 좋은일자리라든지 국가일자리, 단체일자리라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어쨌든 이래서는 폐인이 될까 두렵고 안 되겠다 싶어 정신 차려 마음을 다져 잡고 주민센터를 거쳐 사하시니어클럽에서 안내받아 상담을 신청했다. 컴퓨터를 잘해서인지, 주택관리사 자격증,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서인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운(?) 좋게도 안전점검원으로 채용되었다.

10명의 안전점검원이 3개 조로 나뉘어 일하는데 내게는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을 때 했던 경험도 있어 크게 어렵지 않게 취약 시설인 경로당들을 점검하게 되었다. 옛 생각도 나고 처음에는 내 능력에 요까지 것 대강해도 다른 사람보다야 잘하겠다고 생각하며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옆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 모두가 너무나 열성적이고 적극적이며 꼼꼼하기가 이를 데 없어 나보다도 훨씬 잘하는 것 같았다. 더욱이 알고 보니 기업 대표도 했던 사람도 있고 교직원,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서 정년퇴직하여 모두 나름대로 사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온 대단한 사람들로, 마지막(?)으로 이 일에 심혈을 쏟는 것도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리라 생각되었다.

서울에서 대학 나와 국영기업체에서 10년 잘나가고 사업 몇 년 하고 관리소장 15년 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잡아 본 것 같아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반성하며 모든 점검원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제는 나도 점검할 때나 보고서 쓸 때나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휴대전화기도 카메라 성능과 속도가 뛰어난 제일 좋다는 것으로 거금을 주고 구매하였다.

소규모 취약 시설 중 경로당의 안전 점검을 위한 2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려면, 건물 구조에 따라 50~80여 장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는데 처음에는 체크리스트를 기억하며 촬영한 후 그 많은 사진 중에서 필요한 사진을 고르느라고 애를 먹었다. 사진 찍고 찾는 것을 쉽게 하도록 순서대로 체크리스트 내용을 명함 크기만 하게 축소하여 만들었다.

이 명함을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넣든지 뒷면에 꽂아놓고 보면서 순서대로 촬영하면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쉬워지며, 또 다 찍은 후 체크리스트 작성 때 순서대로 쉽게 필요한 사진을 찾을 수 있었다. 몇 년 경험이 있는 베테랑은 몰라도 올해 처음 하는 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을 받았음은 물론 처음 하는 동행 점검원에게도 만들어 주니 크게 기뻐했다. 이제는 재미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람도 있게 되었다.

한번은 오전 점검 때 보일러실 점검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 경로당 회장께 연락하여 오후에 다시 방문해도 되겠냐고 하니 몇 명 나와 있으니 와도 된다고 하였다.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사진을 찍으니 참 열심히도 한다며 커피를 타주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올해 91세라며 이제는 기운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내가 일하는 것이 부럽다고 한다. 내가 보기엔 나이보다는 10년 정도 젊게 보여 아직도 정정하시다고 하니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기 좋으며, 내게 열심히 즐겁게 일하면 덜 늙는다고 계속 열심히 일하라 하신다. 그래, 즐겁게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내가 항상 주장하던 것 아니냐. 나는 노인일자리 하는 노인이 아니다. 행복일자리, 좋은일자리, 국가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니 그냥 재미있게 열심히 하자 하고 속으로 외쳤다.

이제 5개월을 일하면서 돌이켜보니 개인적으로 얻은 것도 느끼는 바도 크다.

첫째, 몸이 건강해졌다.

군대용어에 3보 이상 승차라고 하던가. 어디를 가든지 승용차에 의존하던 내가 매년 경로당을 찾으면 때에 따라서는 산복도로 골목골목까지 누비며 걸으니 하체에 힘이 생기고, 이참에 그동안의 불규칙한 생활패턴을 고쳐 아침 일찍 일정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 시간에 먹고 자며 술도 줄이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주위에서 얼굴이 좋아졌다 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 특히 그동안에 잃어버리고 살았던 부부 생활(?)도 되찾아 와서 오랜만에 환한 집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 건강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둘째, 식구들에게 우상이 되었다.

아들 둘, 딸 둘, 며느리, 사위의 생일에 금일봉으로 생일 선물을 주니 생전 연락도 안 하던 며느리와 사위까지 가끔 전화나 문자도 오게 되었으며, 7명의 손자, 손녀 중 아직 돈을 못 버는 어린 4명에게는 만날 때마다 용돈을 주니 만나면 '할아버지' 부르며 포옹으로 반겨주어 큰 행복감을 준다. 왜 직장에 다닐 때 진작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여 내 자신이 새삼스럽게 가족의 중심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셋째, 자신감이 생겼다.

인척이나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 별것도 아닌 식대를 내가 내야 하나 하는 식대 부담 때문에 신경이 쓰여 만날까 말까 망설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이제는 무조건 내가 낸다고 하는 마음으로 만나니 마음도 편하고 그렇다고 내가 꼭 내지도 않았다. 그러니 만나는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졌다. 또한 사소한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다. 전에는 면도칼 하나 사는데도 외국산이 좋은데 좀 비싸서 망설여졌지만, 이제는 그냥 사버린다. 모자도 사고 싶으면 사고, 비타민 같은 건강식품도 살까 말까 생각이 들면 사 버린다. 영화를 볼까 말까 생각이 들면 그냥 본다. 무엇이든지 생각이 들면 나쁜 일이 아닌 한 망설이지 않고 실천해 버렸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과 실천을 하니 무언가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변화된 것이 시니어 점검원 일을 하면서부터니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새삼스럽게 느끼며 어느 재미교포가 쓴 글 일부가 생각났다.

한국에 와 보니

- *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로 되어 있고
- * 가정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었고
- * 자동 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 *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 * 집에 앉아서 햄버거 등 먹고 싶은 것 배달시켜 먹고
- * 어느 집에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나 카드 하나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 *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 * 집 안의 전등은 LED이며
- *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요즘은 리모컨으로 켜고 끈다.
- * 지하철, 고속철도, 음식점, 버스정류장에서도 자동으로 초고속 와이파이기가 잡힌다.
- *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온다는 정보도 뜨며
- * 의료보험료, 치료비는 1/10밖에 안 되는

이런 좋은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나 있을까 놀라겠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며 좋은 집, 좋은 교통, 좋은 의료제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글이었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글이었다.

내가 일하는 취약 시설 점검원을 포함하여 수많은 노인일자리의 노인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면 더욱 놀랐을 것이리라.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책을 떠나가는 국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감사드리고, 항상 교육 등으로 이끌어 주며 밀어주시는 국토안전관리원과 부산사하시니어클럽 직원들께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내일은 더 힘차게 나의 취약 시설 안전 점검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무제



인천남동시니어클럽 | 심옥자

공익활동-스쿨존안전지킴이



저는 혼자 살고 있는 72세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뜨고 자식들은 모두 제 짝을 찾아 떠나가니 홀로 산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힘들고 팍팍했던 옛날 생활과 현재 홀로된 제 처지가 뒤섞이니 날로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이 스쿨존 도우미 일을 해보라고 권해 주었습니다. 혼자 집 안에 있지 말고 무어라도 해보자 싶어 서류를 제출하였고 어렵게 스쿨존 도우미에 뽑혔습니다.

도우미 일은 아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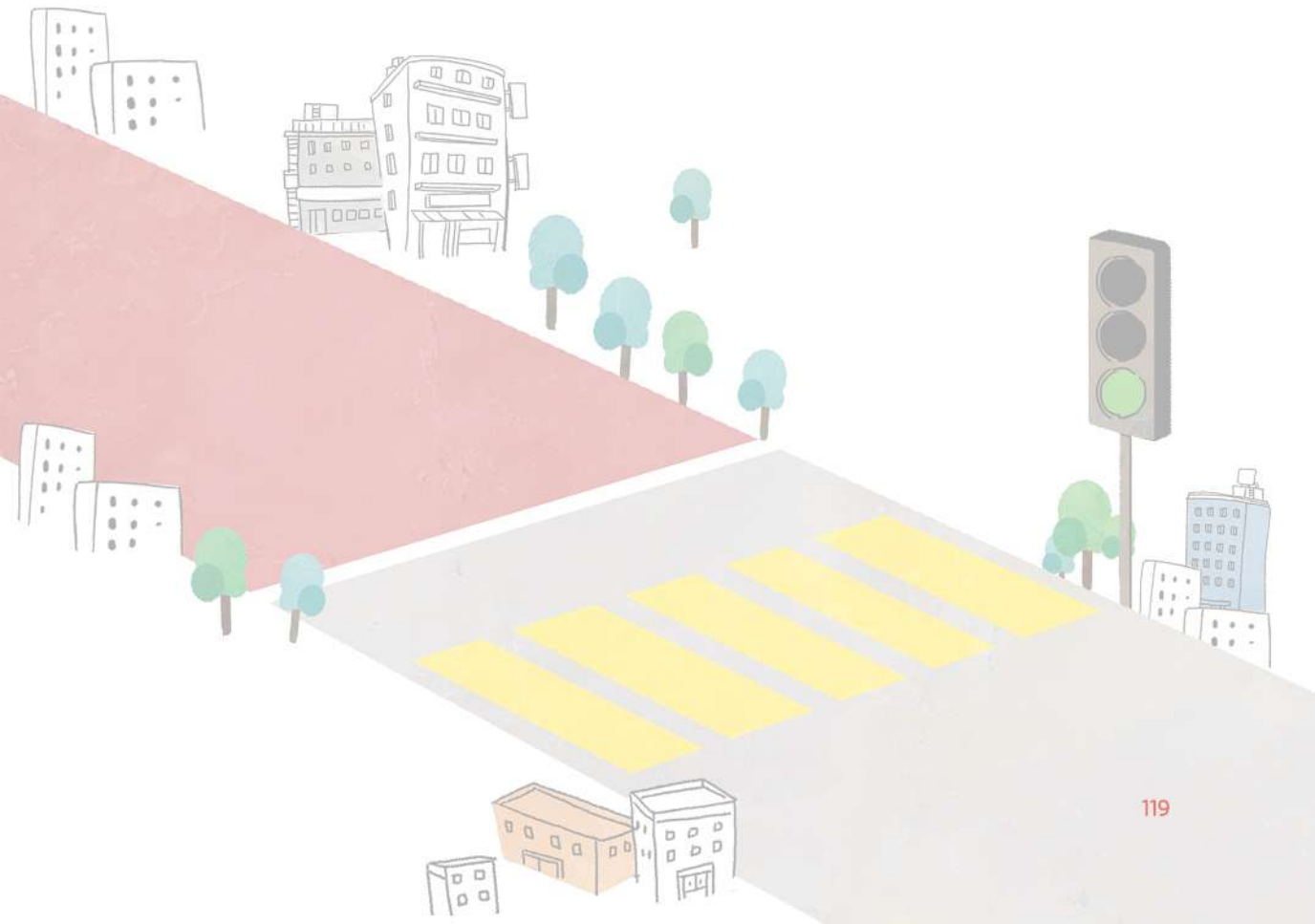
간혹 깃발을 잘못 들었다며 젊은 사람들이 창문까지 내리고 뭐라고 하는 날엔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수고하신다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과 밝게 인사하며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우산도 없이 영영 울며 걸어오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꼭 제 손주만 한 나이의 아인데 아침부터 무슨 일로 저리도 서럽게 우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아이의 옷이 많이 젖어 감기에 걸릴까 걱정이 된 저는 아이에게 제 우산을 건네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고 힘없는 늙은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스쿨존도우미 일을 시작하고 저 스스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음을 느낍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울증도 더 좋아지겠지요.

내년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으니 이 할미를 꼭 다시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인사 속에 담긴 우리의 연결고리



부산남구노인복지관 | 남덕희

공익활동-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사랑합니다!”

아침 일곱 시, 신호등이 깜빡이는 학교 앞 건널목 한 모퉁이에 깃발을 들고 선 내게 병아리같이 작고 귀여운 아이들이 걸어와 사랑한다고 인사한다. 노란 버스를 타고 와서 내리는 아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오는 아이, 혼자 씩씩하게 걸어오는 아이, 다양한 모습과 표정을 한 아이들이 생기 넘치는 꽃처럼 보인다. 내 매일 아침은 이렇게 아이들의 사랑한다는 인사 속에서 시작한다. 나는 3년째 스쿨존 교통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교통안전지킴이다.

혈기 왕성했던 젊은 시절에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포부도 넘쳤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늙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살다 보니 어느덧 내 나이는 일흔이 훌쩍 넘어 있었다. 자녀들도 장성하여 떠나고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도 퇴직하게 되면서 빈 둥지 시기를 맞이하게 되니 그제야 허탈감이 밀려왔다.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도 사라진 것 같았다.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젊은 시절에는 시간도 마음도 여유가 없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다니며 즐기는 여가 생활도 좋지만 그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 그저 개인의 향유를 위해 소비하고 소모되어 가는 것이 아닌 나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 아직도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자기 가치감 같은 것이 필요했다. 젊은 날에는 가장으로서 가족 속에서, 근로자로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내가 필요한 개인과 공동체에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바지함을 느끼기에 충분했지만, 이제 일흔이 넘은 노인이 된 나에게 그런 기쁨은 나의 젊음만큼이나 점점 더 사그라져 가기만 했다. 어디서든 약하고 소외된 존재가 되어버린 노인이라는 이름. 죽을 날만 기다리며 가정에 사회에 짐이 될까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게 되는 삶.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나는 아직도 건강하고 힘이 있으며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한 사회의 편견, 그 이름을 가진 이들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 그것과 실제 노인인 나의 아직 미처 늙지 못한 마음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노인이 그런 괴리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나의 주변에는 경제 상황이 나와 비슷하게 딱딱한 노인들도 있지만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노인들도 있다. 경제 상황은 각자 다양하지만, 그들 모두의 심리적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직도 사회 활동을 더 하고 싶지만 물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족들이 다 떠난 빈 등지에서 고독한 생활, 그것은 그들이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세상이라는 유기체 안에서 거세당한 것 같은 커다란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아닌 게 아니라 2시간마다 1명의 노인이 자살한다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숫자는 이런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잃고 조용히 고립되어 죽어간 그들도 한때는 젊고 빛나는 사회의 일꾼들이었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 욕구가 있고 그것을 해낼 능력도 있다.

그렇기에 나는 여러 가지 우울한 생각들로 의기소침해진 마음을 털어버리고 노인복지관의 문을 두드렸다. 젊은 시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패기는 이제 남아 있지 않지만 내 노년의 삶을 온전히 영위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냈다. 그곳에서 내가 지금 가장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했고 그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랑하는 내 손자 같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서 배움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일보다 더 보람찬 일이 있을까 싶었고, 그 생각으로 스쿨존 교통지도 일에 지원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사랑합니다.”라는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의 인사를 들으며 내 안에 사그라져 가는 젊음의 생명력이 아이들에게로 가, 그들이 자라나는 성장의 동력으로 날마다 부활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본다.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노인이 되면서 내 마음속에 뿔린 공허한 공간이 기쁨으로 가득 들어차는 것이 느껴진다. 이제 내게 젊음은 없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과 활력이 내 안에 있다. 누군가의 단순한 눈으로 보기에는 이 일이 작고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게 이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돕는 일이다. 나의 손짓으로 안전하게 등교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는 그 아이들이 아침마다 내게 건네는 친절한 인사 속에서 다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귀한 배움을 배우고 자라난 아이들이 채워나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 얼마나 기대할 만한 것인가.

나는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러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내 일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돕는 일 아닌가.

아이들도 이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는지 아침마다 내게 보여주는 미소 속에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 담겨있다. 누군가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던 한 노인의 노란 깃발이 아이들의 영혼 한편 어딘가에는 분명 따뜻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란 깃발의 따뜻함이 그들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작은 지도 중 하나가 되어주며, 아주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또 나와 같은 노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어린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우리는 이처럼 거대하고 아름다운 무한한 대물림의 연속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거대한 판 속에 살아간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노인들은 아이들을 도우며 그 자라남을 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고, 아이들은 노인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으며,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다시 노인이 되어 새로운 아이들을 돕게 될 것이다. 누구 하나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으며 '너'가 있기에 '나'가 있다. 노인일자리는 세월이 지나고 이 긴밀한 판 가운데로부터 이탈해 가는 소중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다시 그 끈끈한 유기 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사람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힘을 얻고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찾을 뿐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맺어진 여러 인간관계 속 교제를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따뜻함을 공급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더 관심을 두게 되기도 하며,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소외되어 죽음이라는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깊이 진입해 가고 있는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해 좀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나와 같은 황혼의 친구들에게 용기 내 노인일자리에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끝으로 이제는 나도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나의 일터 속 함께 연결된 귀한 이들에게, 나와 같은 노년을 살아가는 애뜻한 친구들에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더 활력 있게 만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돕는 모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삶을 찾아 떠나는 노년의 여정



대구중구시니어클럽 | 이종운
사회서비스형-공공행정업무지원사업



“선배님,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초등학생들 수업 마치고 과제도 봐주고 학습지도도 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보시겠어요?”

노년을 즐겁게 보내려고 여행을 가고 악기를 배우고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소일하고 있다는 말을 모임에서 후배에게 한 적이 있다.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대구중구시니어클럽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3년 전 정년퇴직을 하였다. 재직할 때는 내가 퇴직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퇴직하면 나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재직할 때 품었던 꿈을 현실에 그려갔다.

가족, 친지들과 몇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가입하여 매월 등산도 하였다. 동네 인근 야산을 오르다 본 국궁에 매료되어 주 3~4회 활쏘기를 배우러 다녔다. 퇴임 직전 음악 선생님에게 잠시 배웠던 우쿨렐레 악기도 본격적으로 배웠다. 재직 시 가졌던 모임에, 퇴직 후 만들어진 모임도 여럿이라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인들과 식사하고 답소를 나누며 나를 바쁘게 지냈다. 오직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이렇게 바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즐거움을 위한 바쁨은 일을 할 때의 바쁨과는 달랐다. 분명 즐거웠다. 그런데 한밤중이나 새벽에 문득문득 허전함과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나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은퇴한 나에게 금방 일자리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젊지도 않은 내가 어떤 일자리를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였다. 그때 문득 내가 예전에 굿네이버스 봉사활동을 했던 때가 떠올랐다.

‘그래, 우선 봉사활동부터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보자.’

2022년 12월 13일부터 범물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마음 잇기 안부 전화 상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2시간 동안 노인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전화 상담을 하고 말벗이 되어주며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러던 차에 후배가 나에게 꼭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주선했다. 평생을 교직에 있었기에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말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구중구시니어클럽에 전화하니 하루 3시간씩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하였다.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다시 선생님이 된다는데. 하루 3시간이면 자원봉사활동도 그대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신청서를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2023년 12월 20일 합격했다는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 다시 일을 갖게 된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향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무 소양 안전교육을 받고, 업무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대구의 8개 초등학교에서 선정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온다.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독서하거나 개인 공부를 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2인 1조로 하루 3시간씩, 월 20일 순환 근무를 하며, 참여한 학생들의 독서 및 학습지도, 간식지도, 학생 안전 관리 및 귀가 지도를 하는 학습 보조교사 및 담임 역할이 업무이다.

2024년 1월 첫 출근을 하는 날, 거울 앞에서 옷과 머리에 신경을 쓰는 나를 보며 아내가 웃으며 묻는다.

“그렇게 좋아요?”

“아니, 행복해요.”

나는 4학년 10명의 학습 보조교사이고 담임이다. 출근해서 만나는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꽃밭에 피어있는 각양각색의 꽃 같다. 빨강, 노랑, 분홍 등 각각의 색깔과 자태로 커가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으면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나는 10송이의 꽃을 탐스럽게 피워내고 가꾸는 정원사다.

“선생님, 재가 자주 떠들어서 책을 못 읽겠어요.”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이 문제 좀 풀어 주세요.”

민들레처럼 다소곳한 아이도, 해바라기처럼 미소가 예쁜 아이도, 매화처럼 단정한 아이도, 벚꽃처럼 화사한 아이도... 저마다의 이야기로 선생님인 ‘나’를 찾는다. 나는 매일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처럼 신선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한다. 노년에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우리 반 아이 한 명은 만지면 장미꽃처럼 뾰족한 가시로 손을 콕 찢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다른 친구들이 책을 읽으니 조용히 해주면 좋겠어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당돌하게 말한다. “요즈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수학 수업 시간 중에는 “선생님, 수학이 싫어요. 언제 끝나요? 수학을 왜 해야 해요? 수학 만든 사람 죽이고 싶어요.”라고 해서 깜짝 놀란 일도 있었다. 학원 숙제만 겨우 하고는 핸드폰으로 동영상만 보기에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라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어이 친구!” 하면서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보았다. 아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한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아이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맞벌이하려면 학원이든 어디든 방과 후에 아이를 돌봐주는 곳이 필요한데 도서관에서 독서도 하고 공부도 시켜준다고 하니 이보다 안전하고 좋은 곳이 또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으리라. 그러나 아이는 싫다고 한다. 독서도 공부도 이 아이에게는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뾰족할 수밖에 없다.

또 한 아이는 집에서 가지고 온 장난감 수갑으로 자기 손목을 채워서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보여주며 재미있어 한다. 경찰 놀이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혼치는 않은 행동이라 조용하게 불러 상담을 해보았다. 아이의 부모님은 일하러 갔다가 밤늦게 귀가하신다.

아이와 중학교 2학년 언니가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해서 둘이 저녁을 먹는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는 대부분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요즈음 가정의 모습일 것이다.

이런저런 사연을 갖고 온 아이들을 보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외에 이 사업에 참여한 시니어들이 가져야 할 소명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예전 대가족 시대의 가정의 역할을 보완하자.’

인생 1막을 살고 2막에 접어든 시니어들이 초등학생 과제 및 학습지도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젊은 선생님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대가족 시대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로는 삼촌, 고모들까지 여러 대의 가족들이 함께 살았다. 따로 예절이나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을 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였다. 핵가족 시대가 되고, 맞벌이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공부와 입시에 내몰리면서 가정에서의 교육의 기능이 약화하였다. 아이들의 언어에 욕설이 난무하고, 컴퓨터와 핸드폰에 매몰되어 친구와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학생이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선생님이 죽음을 택하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학습지도 외에 아이들에게 예절과 기본 생활 습관을 길러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선생님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예절과 기본 생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았다. 아이들과 합의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교실에 와서 친구와 만나면 먼저 본 사람이 즐겁고 공손하게 인사하기, 도서관 내에서 조용히 하기, 2명 이상 이동하지 않기, 수업 시간에 잡담하지 않기, 휴대전화는 간식시간에만 사용되도록으로 설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몇 달이 흐른 지금 아이들은 규칙을 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체득하는 데에는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교육은 기다림이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에게는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주고 다독이고 따뜻하고 예쁜 말로 자주 말을 걸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문제의 원인도 찾아보고 문제 행동을 교정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훗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만난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처럼 따뜻하고 나에게 참 친절하게 잘해 주셨지.’ 하고 한 번쯤 기억해 준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일 것 같다.

2024년 12월 말이면 지금 하는 초등학생 과제 및 학습지도 노인일자리사업의 계약이 만료된다. 이후에도 이 일을 이어서 계속하게 될지, 또 다른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오랫동안 일을 할 생각이다.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하려는 이유는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중에서 일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 행복 1순위로

‘오래 일하기’를 꿈꾼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117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 노인일자리가 103만 개이다. 노인일자리에 배정된 예산은 2조 원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가 이미 닥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 인력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다. 100세 시대다. 은퇴 후 노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나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해준 대구중구시니어클럽 담당자님, 초등학생 과제 및 학습지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관장님,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박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앞으로 일에 도전할 기회가 몇 번 있을지, 그 일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맞선을 보는 것 같은 설렘이 있다. 나는 일을 사랑한다. 천천히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것이라고 다짐해 본다.

오늘도 퇴근하면 아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고 신혼 때처럼 퇴근하는 남편을 맞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연수할 때 배운 노인일자리송을 흥얼거린다.

“너희들이 인생을 알아? 인생은 은퇴가 없어!”



꿈의 직장이 현실로 “경로당 헬스케어매니저”



강화군노인복지관 | 정선애

사회서비스형-헬스케어매니저



“안녕하세요, 저는 경로당 헬스케어매니저입니다.”라고 직업을 밝히면 적어도 60세 이상인 것을 금방 알게 된다. 흰머리 휘날리며 첫 삼을 뜨듯 경로당 문을 여는 순간 내 가슴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가득했다.

나이보다 젊게 들리는 목소리만 듣고, 서류를 들고 가면 “아... 연세가 많으시군요.”라며 당황해하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하다가 당당히 내 직업을 갖게 된 지금의 현실이 마냥 행복해서다. 젊은 시절 나름대로 일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본 경험이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학벌에, 나이에 밀려서 문전박대당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지내기가 쉽지 않았던 지난날들이 머릿속을 스친다. 어떻게 이런 직업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내 이름 석 자가 새겨진 명찰을 받아 든 순간, 살짝 따스해진 나의 가슴에선 행복한 심장 박동 소리가 났다. 어찌면 이 일은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겠지만, 그 평범함이 나에게 다가온 현실이 마냥 신났고, 신기했고, 감사했다.

몇 해 전 태풍이 지나간 어느 날, 제법 차분해진 동네 길을 따라 공원까지 걸었다. 먼발치 잔디밭 한가운데 벌러덩 누워있는 골대가 보였다. 바람이 미는 대로 끄는 대로 하나는 벌러덩 쓰러져 있고, 또 하나는 저만큼 밀려가 서 있었다. 경기 종료!! 무.승.부! 해주고 있었다.

그렇다. 나의 인생도 무승부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없는 비긴 것. 아마도 그래서 살만했던 시절이었다. 이제는 텅텅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웃음으로 넘겨왔지만,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아쉬움으로 가득하던 인생이 후반부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경로당 헬스케어매니저'로서의 삶은 그런 후반부에 자신감과 용기를 더해주고 있다.

우리 경로당은 65세~100세 혹은 그 이상 누구든 회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나도 경로당에 가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네! 물론이죠! 꼭 오세요~!”라고 환대한다. 12시 반부터 3시 반. 내가 근무하는 시간을 꼭 기억하시라고 여러 번 알려드리면 어르신들은 당신들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환하게 웃는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해맑음이 되살아나는 미소다.

경로당에 모여드는 어르신들은 알고 보니 강화도로 이사 온 지 50년이 지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충청도에서 왔소.,” “나는 경상도에서 왔소.,” “나는 전라도에서 왔소.”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그마한 경로당은 어느새 우리나라 곳곳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는 작은 여행지로 변한다.

“○○택”이라고 부르며 친정이 있던 지역을 이름 삼아 부르던 시절도 아련한 추억 속에서 튀어나와 경로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깃거리로, 재미있는 투정 거리로 다시 태어난다. 다른 지역 출신이라 해도 벌써 50년 이상 지났으니 우리는 모두 강화도 터줏대감 아닌가? 하며 한바탕 크게 웃는다. 웃음 속에는 타지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시절, 시댁에서 설움 받던 아픔도 가쁘히 날려버린 행복한 웃음만이 가득하다. 그래서 경로당은 그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는 저 멀리 두고, 삶의 흔적과 기억을 공유하며 서로 괜찮다, 잘 왔다, 고맙다며 안정을 취하는 공간이다. 가진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얼마 없어도, 경로당에서는 그저 삶을 살아낸 어르신들의 훌륭한 자태가 더욱 빛난다.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모이고, 날씨가 껏으면 서로 걱정이 돼서 모이게 되는 경로당. 이렇게 경로당은 서로 잠시라도 봐야 한다면 매일 아침 마을 곳곳의 대문이 열리고 탁탁탁 지팡이 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두 경로당을 향한 발걸음을 옮긴다.

92세 할머니가 92세 할아버지께 “안녕?”, 82세 할머니가 92세 할머니께 “안녕?” 하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든든한 친구를 만난 듯 안정감이 가득해진다.

때로는 의견이 분분해서 어린아이 심술부리듯 팽~ 돌아설 때도 있지만, 다음 날이면 슬며시 과자를 나눠주고, 음료수를 건네며 서로를 챙기는 모습 속에 미운 정 고운 정이 골고루 배어있는 듯하다. 마치 울고불고하다가도 다음 날 “OO아, 같이 노을~자.” 하는 어린아이들 같다.

그렇게 모이는 경로당에서 필수로 하시는 일은 헬스케어 건강 체크하기. 내가 일하는 경로당에선 어르신들이 꼭 헬스케어 건강 체크를 기억하며 일부러라도 방문해 주신다. 참 따스한 분들이다. 그분들의 미소에 나도 덩달아 웃으며 건강 체크를 해드리는 것뿐이지만,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건강 체크할 때는 긴장이 안 되는데, 병원에 가면 너무 긴장돼!”라며 편안하게 웃으신다. 덕분에 칭찬받은 것 같아 행복해하는 나를 보며 어르신들은 또 한 번 웃으신다.

이렇듯 서로서로 생각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버렸다.

누군가가 기분 좋아지도록 돕는 일은 참 보람찬 일이다. 여러 종류의 일을 경험했지만, 헬스케어 매니저로 일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나의 적성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신 나의 시어머니 생각이 문득 난다. 동네에서 ‘따따따 멧쟁이 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지신 유일한 분. 임기응변도 따따따, 며느리 자랑도 따따따, 게다가 며느리 홍보기도 따따따 해대시던 분이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꼭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애미는 비위도 좋다. 어찌 그러니?”라며 웃으셨다. 타인을 기쁘게 해주는 것, 타인을 편안하게 돕는 것을 후자는 피곤한 일이며 오지랖이라 판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제는 내 ‘남을 돕는 일’을 즐기고 있다. 나에게 주어진 감사한 복이라 여기고 있다. 가만히 생각하면 좋은 뜻이 더 많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단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살아가라.’던 부모님의 말씀을 이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함께한 분들의 격려와 칭찬 덕분이었으리라.

그래서 오늘도 경로당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기운차다. 한쪽 무릎이 안 좋아서 몸은 느릿느릿하지만, 마음에 닿는 기운만큼은 이십 대 못지않은 흥겨움으로 가득하다. 경로당을 제2의 집처럼 생각하고 오실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이 즐겁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며 나름의 고민을 해결해 가는 모습이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출근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하고, 책상을 닦고, 헬스케어 기구를 꼼꼼히 닦는다. 마을 곳곳에서 우리 경로당으로 오실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검사 기기들을 소독하고, 회원 기록지를 꺼내 놓는다.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를 가득 띤 채 어르신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내 가슴에서도 행복한 소리가 멈추지 않고 파장되어 멀리멀리 퍼져 날아가는 기쁨을 만끽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 및 지역본부 연락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 1566-0151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1
근영프라자 10층
☎ 032-527-9221

세종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8로 223,
우리새마을금고 3층
☎ 043-715-3045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 042-476-9893

전북지역본부

전라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5
한화생명보험(주)전주사옥, 8층
☎ 063-908-9661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4
SRB빌딩 6층
☎ 062-365-8815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7
와이즈타워 19층
☎ 02-6203-0962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6번길 16 3층
☎ 031-8067-5060

강원지역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 2360, 3층
☎ 033-910-3059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3층
☎ 053-759-1900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3층
☎ 051-507-6373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24
해금사이언스타운 6층
☎ 055-713-3080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법조타워 5층 501호
☎ 064-805-3079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기집

발행일 2024. 11.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
발행인 김미곤
만든이 홍보기획부



Copyright ©202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 저작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국민  행복 일자리, 노인일자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중산동 1701)
TEL. 1566-0151 www.kordi.or.kr